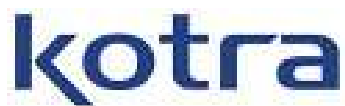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필리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2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9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0
- 2. 주요 산업 동향 /11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9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3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2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4
 - 관세제도 /37
 - 주요인증제도 /37
 - 지적재산권 /40
 - 통관운송 /4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6
- 외국기업 투자동향 /49
- 우리기업 투자동향 /5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1
- 진출형태별 절차 /58
- 투자입지여건 /64

3. 사업관리

- 노동관리 /69
- 조세제도 /7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2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74
- 2. 물가정보 /79
- 3. 바이어발굴 /82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86
-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88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8
- 7. 이주정착 가이드 /90
- 8. 출장가이드 /91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통칭 Philippines, 공식국명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타갈로그어 국명: Republika ng Pilipinas) (현지에서는 Filipinas 으로도 부름)
위 치	동남아시아, 북위 4도23분-21도25분, 동경 116도-127도
면 적	300,800 km ² (한반도 1.3배,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
기 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대별
수 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서울시와 면적, 인구 비슷)
인 구	91,077,287(2007년 2/4분기 추정) (National Capital Region: 1,000만 명 이상)
주요 도시	Manila City(160만 명) (면적: 종로구보다 약간 넓음), Quezon City(220만 명)
민족(인종)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인도네시아/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간 혼혈
언 어	타갈로그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 교	로만 카톨릭 80.9%, 기독교 4.5%, 이슬람 5%, 기타 등
건국(독립)일	1898. 6. 12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 Ms. Gloria M. Arroyo (14대, 재임) - 취임일: 2000.1.20 - 초임: 2000.1.20~2004.5.29(전임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잔여임기 승계) - 재임: 2004.6.30~2010.6.29 (정식 임기 6년)
입 법 부	양원제 (현재 상원 24명, 하원 209명)
정 당	Lakas-CMD, NP, PDP, KAMPI, LP, PMP, NPC, GO

나. 경제 지표 (2007년 기준)

G D P	US\$1,441억
GDP성장률	7.3%
물가상승률	2.8%
실 업 률	6.3% *잠정치 (2006년 7.3%)
화폐단위	페소(PESO)
환 율	US\$ 1 = 46.1484
외 채	US\$ 54.4 (미\$ 10억)
연말 외환보유고	US\$ 33.8 (미\$ 10억)
산업구조(GDP비중)	1차 산업(14%), 2차 산업(32%), 3차 산업(54%)
교역규모	수출 US\$ 429.7억/ 수입 US\$ 482.3억
주요 교역품	○ 수출: 반도체 등 전자부품/제품, 의류, 동/니켈, 코코넛/ 열대과일/참치 등 ○ 수입: 반도체 등 전자부품/제품, 기계류, 유류/석유화학제품, 낙농제품 등

자료: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다. 한-필리핀 관계

체결 협정	자원·에너지협력협정('05), I.T.협력협정('05) 등
교역 규모 (2007년 기준)	US\$ 4,420백만 (대 필리핀 수출) US\$ 2,438백만 (대 필리핀 수입)
교 역 품	전자 부품, 직물, 철강제품 (우리나라 수출) 전자 부품, 농산물, 비철금속 (우리나라 수입)
투자 교류	대필 투자: 6,129백만 페소 투자신고 (2007년 누계, BOI)
교 민	영주권 소지자 1,500명 포함 장기 체류자 40,000명 추정 단기 체류자 포함 시 60,000~100,000 명 내외
관 광 객 (2007년 기준)	필리핀 방문 한국인 약 70만 명 한국 방문 필리핀인 약 5만 명

자료: KOTIS, 2007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 정치 사회 동향

가. 최근 정치 사회적 주요 흐름 정리

아로요 대통령 집권 후 정치, 경제면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경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과거부터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2008년 초에는 현 아로요 대통령의 부패의혹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어 보인다.

최근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국제유가와 쌀값폭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쌀 지원 확대와 에너지 수입 시 세금인하 등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와 식량자원 확보가 필리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2010년 대통령 선거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가 어떤 정권이 되느냐의 여하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사회적 통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1)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행정부의장이자 국가수반으로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6년 임기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유고 시는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승계하며 이어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까지만 대행하고 있다.

대통령 피선 자격은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최소 40세 이상, 선거 직전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승계하며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나 1차 연임 가능하다.

부통령의 유고 시 대통령이 상. 하원 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상. 하원 의원 과반수의 비준 필요). 피선거 자격은 대통령과 동일하다.

2) 사법부

대법원(Supreme Court)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며 모든 결정은 대법관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등법원(Court of Appeals)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두고 있으며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기능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지역법원(Trial Court) 8개, 수도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17개,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29개,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19개, 시 순회법원(Circuit Trial Court) 10개로 구성된다.

특수법원으로는 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3개, 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11개,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1개,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1개가 있다.

3) 입법부

필리핀의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 24석, 하원 250석으로 구성.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매3년마다 12명씩 개선.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이 허용된다.

상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의 동의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원은 소선거구제에 입각하여 1구 1인 선출(1선거구는 인구 25만 명 기준)하며 대통령이 직능대표로 50명까지 임명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이며 2차 중임까지 허용된다.

하원의 권한으로는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다.

4) 정당 제도 및 현황

필리핀의 정당제도는 다당제로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103개에 달한다. 주요 정당으로는 다수당이며 여당인 CAPP 및 군소정당 National Peoples' Coalition 등이 있다.

5) 주요 정당

정당명	약명	당수/의장/사무총장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Unity (TEAM Unity)		
Koalisyon ng mga Pulitikong na Maka-Administrasyon	CAPP	Federico Sandoval II & Solomon Chungalao
Kabalikat ng Malayang Pilipino	KAMPI	Luis Villafuerte Sr. (President)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LDP	Edgardo Angara (President)
Lakas-Christian Muslim Democrats	Lakas-CMD	Jose De Venecia (President)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Eduardo Cojuangco, Jr. (Chairman)
Philippine Democratic Socialist Party	PDSP	Norberto B. Gonzalez (Chairman)
Genuine Opposition (GO)		
Aksyon Demokratiko	AD	Sonia Roco (Chairperson)
Kilusang Bagong Lipunan(Marcos Wing)	KBL	Ferdinand Marcos Jr (President)
Liberal Party	LP	Franklin Drilon (President)
Nacionalista Party	NP	Manuel Villar (President)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Eduardo Cojuangco, Jr. (Chairman)
Partido ng Demokratikong Pilipino-Lakas ng Bayan	PDP-LABAN	Aquilino Pimentel, Jr. (Chairman)
Puwersa ng Masang Pilipino	PMP	Joseph Estrada (Chairman)
United Opposition	UNO	Jejomar Binay {President}
Unaffiliated parties		
Ang Kapatiran	AKP	Nandy Pacheco (Chairman)
Kilusang Bagong Lipunan(Lozano Wing)	KBL	Oliver Lozano
People's Reform Party	PRP	Miriam Defensor-Santiago (Head)

6) 군소 정당

정당명	약명	당수/의장/사무총장
Regional Parties elected through the constituency system		
One Cebu	ONE CEBU	Gwendolyn Garcia
Partido Magdalo	N/A	Juanito Remulla
Sarangani Reconciliation and Reformation Organization	SARRO	Priscilla Chiongbian
Party-list organizations		
Akbayan Citizens' Action Party	Akbayan	Ronaldo Llamas
Alagad	N/A	N/A
Alang sa Kalambu-an ug Kalinaw	Alayon	John Henry Osmeña
Alliance for Barangay Concerns	ABC	James Marty Lim
Alliance of Volunteer Educators	AVE	N/A
Anak Mindanao	AMIN	N/A
Anakpawis	AP	Crispin Beltran
Ang Laban ng Indiginong Filipino	ALIF	Acmad Tomawis
An Waray	N/A	Florencio "Bem" Noel
Association of Philippine Electric Cooperatives	APEC	N/A
Bagong Alyansang Tagapagtaguyod na Adhikaing Sambayanan	BATAS	Daniel Soriano Razon
Bayan Muna	N/A	Satur Ocampo
Buhay Hayaan Yumabong	Buhay	Mike Velarde (founder)
Citizen's Battle Against Corruption	Cibac	Emmanuel Joel Villanueva
Cooperative NATCCO Network Party	Coop NATCCO	Cresente Paez
Gabriela Women's Party	GABRIELA	Liza Maza
Luzon Farmers Party	Butil	N/A
Partido ng Manggagawa	PM	Renato Magtubo
Sandigan ng Lakas at Demokrasya ng Sambayanan	SANLAKAS	N/A
Veterans Freedom Party	VFP	N/A

7) 군대

육군 6만 1,000명, 해군 2만 2,000명, 공군 1만 5,000명으로, 총 9만 8,000명의 병력

8) 선거제도

선출직의 임기는 대통령 6년, 상원의원 6년(매 3년마다 절반을 선출), 하원의원 3년, 지방 정부 및 지방의회의장 등 지방 선출직은 3년. 매 임기 만료 시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다. 주요인사

1) 대통령 및 부통령

- 대통령(President)
 - Gloria Macapagal-Arroyo
- 부통령(Vice-president)
 - Noli L. De Castro

2) 내각(Secretary of Department)

대통령이 의회 인준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명

- Department of Land Reform
 - Hon. Datu Nasser C. Pangandaman AL HADJ
- Department of Agriculture
 - Hon. Arthur C. Yap
-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 Hon Nasser C. Pangandaman
-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 Hon. Rolando G. Andaya, Jr
- Department of Education
 - Hon. Jesli A. Lapus
- Department of Energy
 - Hon. Angelo T. Reyes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Hon. Lito Atienza
- Department of Finance
 - Hon. Margarito B. Teves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Hon. Alberto G. Romulo
-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 Hon. Ronaldo V. Puno
- Department of Health
 - Hon. Francisco T. Duque III
- Department of Justice
 - Hon. Raul M. Gonzales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Hon. Arturo D. Brion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 Hon. Gilberto C. Teodoro Jr.
-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Hon. Romulo L. Neri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 Hon. Ignacio R. Bunye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 Hon. Manuel M. Bonoan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Hon. Estrella F. Alabastro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Hon. Esperanza I. Cabral
- Department of Tourism
 - Hon. Joseph H. Durano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 Hon. Peter Favila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 Hon. Leandro R. Mendoza

3) 기타 주요 인사

- Presidential Spoke Person(대통령궁 대변인)
 - Ignacio R. Bunye

- Press(공보)
 - Ignacio R. Bunye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이민국)
 - Alipid F. Fernandez, Jr.
- Bureau of Customs(관세청)
 - Napoleon L. Morales
- Bureau of Internal Revenue(국세청)
 - Jose Mario C. Bunag
- GSIS(공무원보험관리공단)
 - Winston F. Garcia
- National Security Adviser(국가안전보장)
 - Norberto Gonzalez
- Phil. Nat'l Police(경찰청)
 - Oscar C. Calderon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국가정보원)
 - Hernando Perez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상공회의소)
 - Cora Dela Cruz
- Fed. of Filipin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Francis Chua
- Philippine Ambassador to Korea(주한 필리핀 대사)
 - Susan O. Castrence

라. 외교 관계

기본정책은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보(군사력 약세를 외교력으로 보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강화,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있다. 대미 관계는 아직도 필리핀 안보의 기반이다.

1992년 11월 말 필리핀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했으나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의 제 1교역 상대국이며 또한 1995년까지만 해도 대필리핀 최대 투자국이었다. 2002년 민다나오 지역의 회교반군 문제로 이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군사작전을 벌였고 미군주둔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2003년과 2008년에 아로요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였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의 제 2위 교역대상국이자 1996년 이래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필리핀이 수령하는 대외원조(ODA)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외교적 노력을 투입해 2차 대전 때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필리핀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의 군국화와 경제적 팽창을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는 순조롭다.

아로요 대통령의 방일(2001년 1월 취임 이후 2002년 12월 국빈방문 포함 총 4회) 및 고이즈미 총리의 필리핀 방문(2002년 1월)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일본-필리핀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체결을 추진하여 2008년 10월경 완료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정상화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중 관계 발전의 저해요소였다.

영유권 문제는 중국의 대국주의, 패권주의적 경향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 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으나, 2004년 9월 아로요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남사군도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친중국 분위기로 돌아섰다. 2005년 3월에는 베트남, 중국과 3년 간 남사 군도 개발 타당성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서명 당사자: Philippine National Oil Co./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Vietnam Oil and Gas Corp.)

과거 1999년 11월 주룽지 총리 필리핀 방문, 2000년 3월 아로요 부통령 중국 방문, 2000년 5월 에스트라다 대통령 중국 방문, 2002년 9월 이봉 전인대 상무위원장 필리핀 방문 등 고위인사 상호 방문하였다.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 원유수입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외 노동자 60%를 고용하고 있는 관계로 필리핀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과는 인종 차별 정책이 철폐된 후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며 아프리카에서 투쟁하는 소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구 공산권과는 50~60년 대에는 친미 노선을 바탕으로 반공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1972년 루마니아, 유고 등 동구권과 외교관계를 맺고 1975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강화하였고, 북한과는 2000년에 수교 하였다.

우리나라와는 1949년 3월에 외교관계 수립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1954년 1월에 주한 공사관 및 주필리핀 공사관을 각각 설치했고, 1958년 2월 양국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마. 주한 주재국기관

□ 필리핀 대사관

- 대사: Susan O. Castrence
- 주소: 34-44 Itaewon-1 dong, Yongsan-gu, Seoul
- 전화: 02) 796-7887, 7388
- 팩스: 02) 796-0827
- 근무시간: 9:00-12:00 & 13:30-16:30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ASEAN FTA 체결

- 2004.11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FTA 협상개시 선언
- 2005. 2 월 협상 개시
- 2005.12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 2006.2 월 2006 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부터 서비스.투자협정 관련 협상 개시
- 2006.8 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1 월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 시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타결시점을 2007.11 월로 조정
 - 2006 년 말 타결을 목표로 동 분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어 협상 타결 목표 조정
- 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시 서비스무역협정문 협상을 타결하고 11 월 5 일 전체 아세안 회원국과 양허 협상 완료
 - 제 20 차 협상 시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은 2008 년으로 연장
 - 2006.2 월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까지 총 11 차례 서비스무역협정 협상 진행
- 2007.11 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 태국은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미완료함에 따라 금번에는 서명하지 못하였고, 추후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 협정에 서명기로 함.
- 2008.1 월 한-필리핀(ASEAN) 상품 FTA 발표
- 2008년 중 투자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협상 완료
-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2020년까지 전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

향후 필리핀(ASEAN) 서비스 FTA가 이루어질 경우, 레스토랑, 호텔업, 레저(여행) 사업의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 호텔 및 여행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고 있다.

나. 반덤핑 규제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는 없으며, 2008년 8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철강제품에 대한 Safeguard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 지표

지 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 GDP 성장률 (%)	4.43	4.52	6.18	4.97	5.45	7.3
GDP (미\$ 10 억)	78.0	79.6	86.7	98.4	116.9	144.1
GNP (미\$ 10 억)	83.1	85.4	93.4	106.7	139.85	157.6
1 인당 GDP (미\$)	970	977	1,038	1,153.8	1,344.7	1,625
1 인당 GNP (미\$)	1,034	1,050	1,118	1,251.2	1,470.0	1,777
수 출 (미\$ 10 억)	35.0	36.2	39.6	40.5	46.2	42.97
수 입 (미\$ 10 억)	33.5	37.4	40.3	47.7	53.1	48.23
연평균환율 (미\$:페소)	51.6036	54.2033	56.0399	55.0855	48.0899	46.1484
소비자물가 (%)	3.1	3.1	6.0	7.6	6.2	2.8
실 업 율 (%)	11.4	11.4	11.8	8.1	7.4	7.8
산 업 구 조						
- 농수산업 (%)	14.7	14.5	15.2	14.3	14	13
- 2 차 산업 (%)	32.5	32.3	31.9	32.2	32	32
- 서비스업 (%)	52.8	53.2	52.9	53.4	54	55
해외근로자 송금액(미\$10 억)	7.2	7.6	8.6	10.7	12.8	10.30
외 채(미\$ 10 억)	53.6	57.4	54.8	54.2	53.4	53.15
대외채무의 GDP 비중(%)	69.8	72.5	63.7	55.1	54.9	45.39
원리금상환액 비중(%)	9.9	9.98	8.32	7.64	6.76	6.64
- 이자상환비중(%)	3.3	3.16	2.73	2.70	2.12	5.30
- 원금상환비중(%)	6.5	6.82	5.59	4.94	4.64	40.37
외환보유고(미\$ 10 억)	16.4	17.1	16.2	18.5	22.96	30.90

자료: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등

나. 경제 동향

- 필리핀은 2001 년 이후 연 4~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여 왔으며, 2007 년에는 7.3%의 GDP 성장률을 보여 31 년만의 최대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7 년 고성장의 요인은 광산업 분야 25%, 건설분야 20%, 농수산 및 임업의 5.1% 성장 등 산업 전반에서 전년대비 4.5~6.6% 성장했고, 서비스 분야도 2006 년 6.7%에서 8.7%로 성장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정부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성장해 교통·통신 8.2%, 무역 9.8%, 금융 12.3%, 부동산 6%, 민간 서비스 8.8%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 또한 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하여 민간소비는 2006 년 5.2%에서 2007 년 6.5%, 정부소비도 5.2%에서 9.9%로 증가해 경기활성에 기여했고 이와 더불어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2006 년 132 억 달러에서 2007 년 144 억 달러로 9.1% 증가해 내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 투자의 경우, 내국인 투자는 년 21 억 달러에서 2007 년 23 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6 년 1 억 달러에서 2007 년 31 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은 502 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증가했고, 수입은 553 억 달러로 6.8%의 증가세를 보여, 전년도의 14.9%, 9.2% 증가세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다.

- 환율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급증했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연간 40% 증가하여 2007년 1월 48.9 페소/달러에서 12월 41.5 페소/달러로 급격히 강세기조로 전환했으나 최근 들어 유가 및 쌀값 폭등으로 필리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2008년 9월 현재 다시 달러당 46 페소 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 필리핀은 2007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최근까지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최근의 유가 및 곡물값 폭등으로 경제, 사회적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경제성장 목표도 5%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향후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구조 개관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GDP의 50%대를 차지하고 있어 필리핀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이 콜센터 등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의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콜센터 진출이 늘어나는 등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BPO 산업이 두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광산업, 건설업의 성장이 20%대로 높은 편이며, 에너지 사업은 투자자금에 부족하여 투자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은 농작물의 작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07년에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별 통계

□ 산업부문 별 비중 및 성장률

경상 가격 GDP 기준

(단위: 십억 페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림수산업	631	734	777	855	937.348
광공업	1,373	1,538	1,754	1,907.6	2,083
- 광업, 채광업	44	53	64	75.6	99.26
- 제조업	1,004	1,115	1,259	1,381	1,460.70
- 건설업	188	214	234	235	290.67
- 전기, 가스, 수도	137	156	197	216	232.11
서비스업	2,289	2,554	2,848	3,270	3,621.24
- 수송, 통신, 창고	313	367	412	446	478.24
- trade	603	682	777	878	997.16
- 금융	188	215	268	312	359.90
- 부동산	270	292	320	351	374.52
- 민간서비스	538	605	664	830	939.52
- 공공서비스	377	394	408	453	481.91
G D P	4,293	4,826	5,379	6,032	6,651
G N P	4,591	5,168	5,796	6,070	7,274
1인당 GNP(\$)	1,035	1,104	1,234	1,470	1,770

주: 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자료: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 2007

제조업 비중이 약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50%가 넘는 소비위주 경제이다. 제조업은 대부분 외국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도체 등 전자산업 및 의류 산업 등 재수출용 제조업이 주종을 이룬다. 소비 중심 경제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내수 대상 제조업은 식품 가공업, 음료, 통신업 등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1) 가전 산업

□ 필리핀 가전 산업 구조

필리핀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내수지향적이며 판매량의 대부분이 내수용이다. 대다수의 가전 제품 생산업체들이 외국 굴지의 기업들과 합작한 제품을 생산하며 외국기업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차 동남아 현지법인에서 들여와 내수시장에서는 판매만 하는 업체가 많으며, 최근 들어서는 현지에서 거의 가전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 통합에 따라 대아세안 수입관세율이 현재 대부분 무관세 내지는 5%까지로 낮아져 필리핀 현지생산을 중단하고 인근 아세안 회원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해 오는 업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가전 제품 수입관세율

품목명	HS CODE	2006년		2007년	
		MFN	CEPT	MFN	CEPT
WHITE LINES					
- Refrigerator	8418.21	10	5	10	5
- Freezer, Chest Type	8418.30	5	5	5	5
- Freezer, Upright Type	8418.40	10	5	10	5
- Washing Machine	8450.11	5	5	5	5
- Air-Conditioner, window or wall type	8415.20	5	5	5	5
- Parts for Refs & Freezers	8414.90	5	3	5	3
- Parts for Air-Con	8415.90	10	5	10	5
- Parts for Washing Machine	8450.90	5	0	5	0
BROWN LINES					
- Audio	8527.13	15	5	15	5
- Color TV/Video	8528.21	15	5	15	5
- Microwave Ovens	8516.50	3	0	3	0
- For Kitchen, Others (range, stove, rice cookers)	8616.8030	5	5	5	5
- Electric Fans (table, floor, wall, ceiling type)	8414.51	7	5	7	5
- Parts for TV/Video, Audio	8529.1090	5	0	5	0
- Parts for Kitchen Appliances	8516.9090	5	0	5	0

주1: 대한 수입관세율- MFN 적용

주2: 아세안 회원국- CEPT 적용

총 현지 내수 판매량

(단위: 대)

품 목	2006	2005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Refrigerator	552,100	567,100	625,000	571,700	440,200	466,900
Freezer	37,000	35,500	39,800	40,800	24,300	17,300
Washing Machine	494,300	565,800	747,000	685,000	588,800	570,600
Microwave Oven	80,200	83,300	103,400	97,500	43,400	28,800
Vacuum Cleaner	20,300	18,300	19,500	18,300	13,200	15,400
Air-conditioner	408,700	589,900	593,100	501,500	393,700	371,900
*Rice Cooker	141,600	322,700	502,300	460,400	425,100	247,100
*Flat Iron	278,700	562,600	726,700	567,300	651,200	430,900
*Toaster	47,000	101,300	185,100	194,100	200,300	152,800
*Stove	86,700	303,700	417,000	482,500	723,900	637,500
Range	21,000	66,500	86,600	61,500	70,900	73,100
*Electric Fan	888,700	1,083,400	1,566,200	1,592,400	1,594,800	1,298,500
Color TV	1,058,800	1,061,600	1,069,300	1,014,500	943,000	883,100
VCR/VCP	-	-	1,600	1,150	7,900	43,700
VCD Player	-	2,000	20,600	93,400	194,300	10,600
DVD Player	345,300	259,500	251,100	120,800	41,900	n/a
DVD Home Theater	21,600	12,200	n/a	n/a	n/a	n/a
Video Camera	22,900	30,100	25,500	n/a	n/a	n/a
Music Center	117,800	160,800	207,100	232,100	242,400	302,100
Radio Cassette	76,200	99,600	97,100	99,800	171,800	206,300
Karaoke	32,100	36,800	57,000	60,600	67,600	75,700
Headphone Stereo	5,300	9,300	7,200	9,700	13,500	17,300
Total	4,736,800	5,972,000	7,348,200	6,905,050	6,852,200	5,849,600

주: 현지 Philippine Appliance Industry Association, Inc.의 자료를 원용하여 작성된 통계로, 동 회원사 소속 업체들의 신제품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중고제품 판매 수량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으며, 중고제품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자료: Economic Indicators; 2007 12월 기준

□ 한국업체 진출 현황

- LG 전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했다가 판매법인으로 전환하였다.
- 삼성전자는 생산법인이 있으나 재수출용 전자부품 생산. 가전제품은 판매법인에서 취급하고 있다.

2) 광업

□ 개황

필리핀은 동, 니켈, 금 등의 매장량이 세계 8위로 추정되는 자원 보유국이며 자원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크롬, 구리, 철 등 다른 지하 자원도 풍부하나 낙후된 기술과 자본력 미약, 외국인 단독투자 불허 등으로 매장량 조사가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경제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업이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2004년 기준)밖에 안 될 정도로 비중이 적다.

1995년에 Philippine Mining Act(광산개발법)가 통과되었는데 동 법은 광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제세감면, 시설 도입 시 면세 통관 등 제반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여 광업을 진흥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채굴의 경제성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광산 개발법의 일부 조항,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 광산개발 사업권, 광물 가공 사업권 등을 허용한 것이라고 2004년 초에 필리핀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자원개발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나 자원 개발에 참여하려는 국내자본이 없어 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리핀 정부로서는 난국에 봉착하였다.

정부의 재심 요청에 따라 필리핀 대법원이 2004년 12월 초 1995년 광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종전의 위헌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재계와 정부의 환영을 받았다. 1995년 광업법 중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FTAA)의 경우 외국인 회사가 광산 개발권 및 개발 지분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필리핀 광산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었다. 다만, 환경보호론자, NGO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 자원 생산량

주요 자원별, 연도별 생산량

자원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Copper							
Concentrate	DMT	129,755	98,065	79,213	80,821	70,578	75,300
Gold	kg	36,511	33,792	35,846	39,008	35,464	37,500
Nickel	kg	1,023,381	1,290,524	1,200,204	872,923	874,193	1,106,900
Cement Raw Materials	MT	22,264,100	21,535,100	20,524,400	17,555,300	20,514,000	20,862,800

주: DMT: Dry Metric Ton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 (NSCB)

□ 자원 수출량

광물자원의 연도별 수출량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 달러,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port Value	727,788	641,682	379,305	361,781	328,731	328,372	328,373	328,374
Export Share (%) (Export Volume/ Total Export)	2.9	2.2	1.1	1.0	1.0	0.9	0.9	0.8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 (NSCB)

3) 농림수산업

□ 개 황

농림수산업은 필리핀 경제의 주 원동력으로서 국민총생산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종사인구는 40% 정도이며 필리핀 농림수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단위 당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앞으로 개발 필요성이 많은 분야이다. 1986년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지기 전 필리핀 농업은 농지소유에 제한이 없어 대농장이

많았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 기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는데 당시에는 쌀, 설탕, 옥수수 등의 생산이 내수를 초과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어 수출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쌀,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쌀 생산량은 비슷한 데 비해 인구가 매년 2%인상 증가하고 있어 쌀 자급도는 농업부문의 획기적 생산증대가 따르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개수로 확충 부족으로 가뭄 시 농업용수가 부족해 애로를 겪으며, 국내 내륙 운송을 위한 도로망 확충 부족으로 내륙운송비가 많이 드는 점은 농수산물에 비싸게 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수산업 현대화 계획을 도입하여 식량자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120만 톤 가량씩 쌀을 수입한다. 주요 생산 작물은 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망고, 담배, 아바카, 고무, 카사바, 고구마, 망고 등이며, 특히 열대 과일류는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 농기계 산업 개황

일정기간 기업소득세 면제 등 주로 조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우선 투자분야(Investment Priority Plan; IPP)에 농기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농수산업 현대화법에서 농기계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농기계제조업 육성보다는 농민에게 혜택부여를 통한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적 의지는 없으며 이는 기계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 되어있고 투자자본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에 투자를 꺼리는 필리핀 기업가들의 행태에도 기인하고 있다.

필리핀 농기계 산업은 저기술,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 45-50개 정도의 농기계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 철공소 수준에 불과하며, 비교적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는 6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도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해 표준 모델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주문생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력장치인 엔진, 모터는 필리핀 자체 생산이 없으며 외국산 신품 또는 중고엔진에 단순 기능 장치를 부착하는 수준이고 사용 자재도 고철을 사용한다. 수요자(농민)의 구매력이 매우 낮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소규모(최대 5헥타르)이며 기후 조건이 선진국과 상이하여 현대화된 농기계는 현재의 필리핀 실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미국의 재정지원으로 아시아 지역 쌀 생산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미작 연구소)은 저가, 단순 기능의 모델을 디자인하여 보급하고 있다.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 조합 및 농기계 제조, 수입업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Power Tiller 및 Rice Thresher의 경우 수요의 약 90%를 필리핀 국내산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내 자급률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 수입의존 품목은 엔진(가솔린 및 디젤), 사륜 트랙터, 전기 모터 등으로 디젤 엔진의 경우 한국산 대동 및 국제 등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전기모터의 경우 LG모터가 판매된 바 있다.

□ 농지개혁법(CARP; 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시행

1986년 민중혁명으로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지고 아키노 정부가 들어선 이후 87년부터 시행된 농지개혁법이 농가 1가구당 농지 소유한도를 5헥타르로 제한하면서 단위 경작 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농가(예전 소작농 또는 농장 노동자)의 자금여력이 없음에 따라 농업기화는 후퇴하여 농기계 수요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농지개혁법 시행시한이 당초 1998년이었으나 정부재원 부족으로 토지구매 자금이 없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10년간 연장하여 2008년까지로 연장됨. 2004년 상반기발 현재 분배대상 토지 429만 헥타르 가운데 80%인 342만 헥타르 면적의 농지가 195만 명의 농부들에게 분배됨.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2008년까지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되어 2010년까지로 다시 시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토지분배정책에 따라 대규모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세 농가들이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 수요처는 협동조합, 농촌 상인(농기계를 농민에 대여하고 수확기에 생산물로 변제 받았다; 고리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및 유통업체(쌀의 경우 건조기 및 도정 시설 등을 갖춘 업체) 등이며 실경작 농민의 농기계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다.

□ 농수산업 현대화법의 시행

전임 에스트라다 정부에 이어 현 아로요 정부에서도 식량확보(안보)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을 신정부의 역점 분야의 하나로 지정하고 라모스 정부 시절 통과된 농, 수산업 현대화법의 실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단기간 내에는 가시적 정책집행이 의문 시 되고 있기도 하다.

동 법은 정부차원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농업기계 및 종자 구입시 농민에게 자금을 대여, 장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에서 농민에게 대출해주는 자금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대량 구입 등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재정 부족으로 진척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권은 천연연료 사업을 통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익을 증대하고자 정부에서 농민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4) 석유화학산업

□ 개 황

필리핀 석유화학 산업은 개발단계에 있는 유치산업이다. 나프타 분해공장은 없으며, PVC, PS, PP, PE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 가격,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수입관세를 인하로 위기에 처해있다.

2001년 말에는 22개의 공장에서 PP, PE, PVC, PS, 알킬벤젠, 폴리아미드,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석유화학 레진을 연간 110만 톤 가량 생산하였으나, 알킬벤젠, 프탈릭알데히드, 나일론 생산공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2002년 말에는 11개의 공장에서 70만 톤 가량이 생산되었다. 2003년 말 11개의 공장에서 71만 톤 생산되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수입관세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하여 자국 유치산업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3년 초에 금년도 대아세안 수입관세 인하율을 당초 계획보다 줄였다. 아세안 공동관세 인하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폴리에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경우 2002년의 15%에서 2003년에는 5%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대통령령 EO 161호로 2004년 12월까지 10%를 적용기로 하였다. 일부 플라스틱 완제품은 2002년과 동일하게 7%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4년 9월 업스트림 업계에서 필리핀 최초의 나프타 분해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다고 하며, 대신 나프타 공장이 정상가동에 들어갈 때까지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석유화학 중간재 수입관세 인하 계획을 다시 연기하여 당분간 자국산업을 보호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 관철시켰다. 반면 다운스트림 업계에서는 PE, PVC 등 석유화학 중간재에 대한 고율관세로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이 채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업스트림 업계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각료급 관세관련위원회(Cabinet-level Committee on Tariff and Related Matters; TRM)가 2004년 12월 28일에 동 관세인하를 2005년 6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에 건의함에 따라 2005년 6월 말까지 대아 세안 관세인하 조치가 연기되었다. 동 건의안은 2005년 말 현재까지도 변동사항 없이 실행 중이다.

2005년 3월 JG Summit이 구체적인 나프타 분해공장 설립 및 가동계획을 제시하면서 유치 산업보호를 위해 당분간 해당 제품의 관세인하 계획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6년 하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다운스트림 업계에서도 이번에는 원자재 보다 낮은 수준인 일부 플라스틱완제품 관세를 원자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하면서 업스트림 업계와 의견을 통일시키고 있으나 다운스트림 업계의 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동향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생산량	94,439	88,242	73,367	79,255	77,160
Aviation Turbo	5,050	5,024	4,582	5,576	7,186
Premium Gasoline	5,523	-	6,939	5,037	-
Regular Gasoline	-	-	-	-	-
Premium Unleaded	11,213	9,967	5,821	14,058	13,490
Kerosene	3,227	2,802	1,776	1,672	-
Diesel Oil	29,758	28,731	21,719	24,843	26,942
Fuel Oil	26,104	25,970	23,419	23,170	20,981
LPG	5,019	4,604	3,064	3,817	3,864
Asphalts	199	-	1.70	-	-
Hydro/Solvents	115	157	102	99	-
Naphtha	4,158	4,496	1,800	1,032	-
Mixed Xylene	541	731	852	979	-
Base Stocks	148	0	-	-	-
Secondary Products	-110	0	-	-	-
Waxes	-5	0	-	-	-
In-Process Loss	3,498	466	(3)	621	(97)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 DOE/Oil Industry Mgmt Bureau

□ 합성수지 생산 동향

플라스틱 가공, 직물 등에 필요한 합성 수지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원유를 주로 수입하고, 제조업을 꺼리는 필리핀 특유의 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합성수지별 제조업체 현황

구분	업체 명	생산 능력 (1,000 MTPY)
PP	Petrochemicals Corp. of Asia-Pacific*	225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180
PE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175
	Bataan Polyethylene Corp.**	275
PVC	Phil. Resins Industries, Inc.	140
PS	D & L Industries, Inc.	18
	Phil. Petrochemical Products, Inc. (PPPI)	14
Alkylbenzene	LMG Chemicals Corporation	25
Phthalic Anhydride	RI Chemical Corporation(formerly Resins, Inc.)	14
Formaldehyde	Borden International Phils., Inc.	28
	RI Chemical Corporation(formerly Resins, Inc.)	40
Emulsion Polymers	Borden International Phils., Inc.	25
	D & L Industries, Inc.	
	Kemwerke, Inc.	
	Pacific Products, Inc.	
	Polymer Chemicals	
Polyester (unsaturated)	D & L	10
	RI Chemical Corporation	
	PPPI	
	Kemwerke	
	Pacific Products	
Polyamide	Pacific Products	1
Nylon 6 Fibers	Fibertex	14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및 해당업체 문의, 2007년 1월 기준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PE	195	133	154	94	165	134	224	138	169	136
PP	93	60	99	58	78	52	92	67	94	80
PVC	17	13	18	11	18	14	15	13	19	18
PS	16	17	21	18	20	20	25	25	24	27
계	321	223	292	181	281	220	356	243	306	261

구분	2005(1-8)	
	수량	금액
PE	56	57
PP	56	50
PVC	7	7
PS	10	13
계	129	180

자료: NATIONAL STATISTICS OFFICE

수입 관세율

(단위 : %)

품목	HS Code	CEPT Rates		MFN Rates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PVC	3904.1020	3	15	15	15
PS	3903.1110	10	0	15	15
PP	3902.1010	10	0	15	15
PE	3901.1010	10	0	10	15
	3901.2010	10	0	10	15
Formaldehyde	3903.1010	0	0	3	3
Emulsion Polymer	3905.9911	0	0	3	3
Polyesters	3907.9110	3	3	5	5
	3907.9910	0	0	1	1
	3907.9940	3	3	10	10
Polyamide	3908.1012	3	3	10	10
	3908.1092	0	0	3	3
	3908.1011	3	3	10	10

자료: 2004/2005년 관세율표

5) 에너지 산업

필리핀은 자국 내 유전에서 소량의 원유생산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을 해외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필리핀의 원유수입액은 연간 약 32억 달러 수준으로서 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서 75%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라모스 대통령 취임 후 발전능력 향상 및 시설 개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과거에 빈번했던 정전이 94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최근에 와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소 확충작업이 미뤄지면서 2008년경에는 루손섬에도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조달 능력이 없는 현 정부로서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BOT법 등 관련법규 정비를 추진 하고 있다.

석유 이외의 지열 발전 및 열수발전 등 대체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001년 10월 팔라완의 말람파야 지역에서 가스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필리핀 개인 사업가들의 활발한 천연 연료 개발을 통해 2006년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전력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BOT 방식에 의한 민영 개발로 정책을 전환한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정부재원 부족으로 발전, 서비스 향상에 한계
- 민영개발을 통한 전력난 해소가 주목적
- BOT 추진 시 정부의 보증도 억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정부 재원 부족으로 중장기 전력 개발 계획 추진이 부진하며 전력 생산 50% 이상을 오일 및 가스 발전에 의존(기타 수력 발전 21%, 석탄 화력 발전 13%, 지열 발전 12% 정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높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가격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발전설비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송배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 발전량의 76%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루손 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민다나오 섬에서는 15%, 비사야스 섬에서는 단지 9%만이 된다.
- 총 송배전 연장 길이는 17,000 ckt/km 정도로 설비의 노후화, 관리 부실로 최고 40%까지로 전력 누수율이 심각하다.

과거 90년대 초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발전소를 설립할 때 정부가 민간 전력 생산업자들 (IPPs)과 맺은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소비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 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 전기사용 자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이에 전력요금을 일부 인하함에 따라 전력공사 (NAPOCOR; NPC)의 재정 적자가 100억 달러까지로 늘어나는데 일조하였다.

연간 전력생산은 2002년의 경우 48,467.4 gigawatt/hour, 2003년에는 52,941 gigawatt/hour, 2004년에는 55,957 gigawatt/hour, 2005년에는 56,568 gigawatt/hour가 생산되었다. (Dept of Energy / Power Statistics 2005)

한국전력은 지난 12월 16일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와 일리한 반전소에 이어 세부 발전소에 착공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한국과 필리핀 정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세부지역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으로 한-필 간 에너지 협정조약이 체결로 한국 가스공사가 말람파야 발전소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 자동차 산업

□ 개 황

필리핀 자동차 산업은 일본 자동차 조립 회사들이 이끌고 있다. 승용차 14개(연간 생산 능력 221,450대), 상용차 21개(연간 생산 능력 145,950대), 모터 싸이클 21개(연간 생산 능력 46만 대)업체가 있으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40% 정도 가동되고 있다.

주요 제조사인 TOYOTA, HONDA, NISSAN, MITSUBISHI, ISUZU 등 5대 일본 조립업체들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 FORD, COLUMBIA MOTORS (MAZDA, DAIHATSU 조립) 등이 있다.

신형 차량의 연도별, 차종 별 판매대수는 아래와 같다. 필리핀인들은 가족수가 많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소형 승용차보다는 봉고형 승합차(Asian Utility Vehicle; AUV)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와 기아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선두로 필리핀 시장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점유율이 미흡한 상태이다.

연도	승용차	상용차
2000	28,826	55,123
2001	23,684	52,986
2002	21,728	63,859
2003	24,321	68,015
2004	33,277	54,798
2005	35,633	61,432
2006	38,479	61,062

자료: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CAMPI) Economic Indicators; November 2006

□ 시장 규모

필리핀 시장규모는 2005년 등록기준으로 5,059,75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을 갱신한 차량은 4,299,173대, 신규 등록 차량은 760,580대이다. (LTO 통계).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LTO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등록차량 대수와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한 신차판매량 대수를 비교하면 내내 맞췄다. 중고차 밀반입량과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신규등록 대수와 신차 판매량의 차이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용 면세차량 반입분 및 일부 중고차량 밀수, 상용차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제작되는 지프니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도별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필리핀 전체	신규	781,741	760,580	723,400	539,845	490,881
	갱신	4,549,833	4,299,173	4,037,193	3,752,427	3,696,792
승용차	신규	40,763	47,175	47,772	30,032	30,889
	갱신	751,610	747,233	750,388	712,633	718,664
Utility Vehicles	신규	114,441	115,513	152,559	142,686	149,080
	갱신	1,676,454	1,676,281	1,636,412	1,543,631	1,503,234
Trucks	신규	16,896	15,245	24,028	21,286	17,287
	갱신	269,005	251,670	243,949	234,223	240,487
Buses	신규	2,008	1,738	2,469	1,560	1,764
	갱신	27,136	29,239	32,501	29,789	32,241
오토바이	신규	605,038	585,482	495,400	343,138	290,468
	갱신	1,804,325	1,572,255	1,351,961	1,209,441	1,179,915
Trailers	신규	2,595	1,427	1,145	1,143	1,483
	갱신	21,303	22,495	21,976	22,710	22,251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 (p.13-8)

필리핀 자동차 자체생산은 없으며, 대중들의 교통수단인 지프니는 중고 엔진을 이용하여 지프니 제작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프니 생산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프니는 2004년에 처음으로 수출이 되었는데, 2004년 3월 지프니 버스 4,000대, 26억 페소(약 4,600만 달러)를 파푸아 뉴기니로 수출하고 있다. 지프니를 베트남과 인도로도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수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

자동차 업체	생산 차종	점유율	설립연도	투자국
Toyota Motors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35.87%	1988	일본
Honda Cars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14.02%	1992	일본
Nissan Motor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3.04%	1997	일본
Mitsubishi Motors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12.47%	1996	일본
Ford Motor Company Phils.	승용차, 상용차	7.97%	1999	미국
Isuzu Phils.Corp.	상용차	14.06%	1996	일본

자료: CAMPI ; July 2006

□ 자동차 부품 산업

무역 산업부 웹사이트 자료(2005년 6월 현재)에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공식적으로 256개라고 나와 있으나,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 협의회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 협회 등을 통해 문의해본 바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기준, 실제로는 149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Association of Consolidated Automotive Parts producers : 129 members
 - Add : G/F., Guieb Gldg., 961 Pres. Quirino Ave., Malate, Manila
 - Tel : 63-2) 522-0534
 - Fax : 63-2) 536-8138
-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104 members
 - Add : 24 Gen. Araneta Cor., Gen. Atienza Sts., Brgy. San Antonio, Pasig City
 - Telefax : 63-2) 633-5382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1년 9억 5,400만 달러, 2002년 11억 6,700만 달러, 2003년은 13억 2,500만 달러, 2004년은 17억 5,700만 달러, 2005년 18억 9,500만 달러, 2006년 상반기 9억 5,8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체별 또는 산업 전체의 자동차 부품 생산 규모는 발표된 자료가 없다. 관련 협회에 조회 하였으나 개별 업체들의 기밀사항이라고 하며 내역 제공을 거절하여 입수 불가이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분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며 필리핀 생산업체들은 단순한 비핵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천여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며, 현지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부품은 15%에 불과하다. 과거 현지 자동차 조립 시 적용되던 Local Contents(현지 산 부품 사용)비율은 2003년 7월에 폐지되었다.

참고로 필리핀 업체들(다국적 부품 생산업체 포함)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해온 부품 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Spring Cramps, Axles, Nuts & Bolts, Carbide Tips, Drill Rods, Closed Impression Die Steel, Electrical Pole Lines, Hardware, Container Rocking Gear, Fitting/ Mining Parts, Stamped Parts, Aluminium Alloy Wheels, Air Conditioning Copper Tube & Pipe for Diesel Engine, PVC Leather for Upholstery of Car Seat, Door Trims, Automotive Transmission, Shock Absorber, Air Conditioning Components, Rugs & Carpets for Auto., Motorcycle Parts 등

자료: ACAPP/ Association of Consolidated Automotive Parts Producers Inc

7) 정보통신산업

(가)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 전반적인 시장 현황

이동전화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 닷컴 기업 및 인터넷 관련 기업수의 증가, IT 부문으로의 국내·외 투자 증가로 동 산업은 필리핀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관련 인프라는 점점 다양화되고 확산추세에 있으나 정부조직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산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열악한 상황이며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다.

국영 전화회사인 PLDT 1개사가 독점해온 통신산업을 1994년 통신산업 자유화 이후 다수의 유무선 통신회사가 설립되어 경쟁해오다가 합병과정 등을 거쳐 다시 정리되었고, 현재는 PLDT(국영통신회사 민영화)와 Globe Telecom(Ayala 그룹) 2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유선전화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Bayantel, Globe Telecoms 등 주요 전화회사가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으나 PLDT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회선수 및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명	회 선 수			
	2003	2004	2005	2006
PLDT	2,933,555	2,912,129	2,926,515	3,009,791
GLOBE	-	-	-	-
DIGITEL	633,190	633,190	634,345	653,616
BAYANTEL	443,910	443,910	443,910	443,910
ISLACOM	693,978	-	-	-
INNOVE	-	1,507,197	1,507,197	1,507,197
OTHERS	2,546,748	976,625	1,026,420	425,165
총 계	6,557,403	6,473,051	6,538,387	7,198,922

사업자 명	가입자 수			
	2003	2004	2005	2006
PLDT	2,098,453	2,115,561	2,043,861	2,006,773
GLOBE	-	-	-	-
DIGITEL	391,605	412,618	410,661	431,366
BAYANTEL	227,057	227,057	227,057	227,057
ISLACOM	-	-	-	-
OTHERS	582,206	352,347	355,810	231,124
INNOVE	-	329,908	329,908	329,908
총 계	3,299,361	3,437,491	3,367,252	3,226,228

주: PLDT가 제1의 서비스업체(자회사인 SMART 포함)이며 GLOBE TELECOM이 제2의 전화 서비스 업체이다. ISL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되었다.

자료: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라모스 정권기에 통과된 REPUBLIC ACT 7925 (TELECOMMUNICATION POLICY ACT)에 의해 NAT'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이 설립되면서 대도시 전화 사업권을 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오지의 전화선도 매설토록 의무화하고,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사업자들에게도 오지에 전화를 매설토록 의무화하여 전화보급률이 확대되었다가 최근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로 유선전화는 오히려 보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 전화보급률(100명당 전화 회선 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보급률	8.91	8.70	8.0	7.83	7.76

자료: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통계 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필리핀 통신 산업은 아직까지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통신 이용자수의 증가, 통화질의 향상, 고비용 통신비용의 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터넷 부문 발전을 위해서는 큰 폭의 전화 보급률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회선 증설 속도가 완만하다.

낮은 PC보급률에 따라 최근 들어 인터넷카페(PC방)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초고속 통신망 보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동통신

약 4개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별 가입자 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사업자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SMART	6,825,686	10,080,112	14,595,782	15,424,196	17,201,005
GLOBE	6,572,185	8,800,000	12,513,973	12,500,000	16,659,742
PILTEL	1,773,620	2,867,085	4,612,450	4,984,425	6,974,379
ISLACOM	181,614*	N/A	Closed	-	-
EXTELCOM	29,896	29,896*	13,670	10,375	10,374
DITITEL	-	732,467	1,200,000	1,860,000	2,000,000
총 계	15,383,001	22,509,560	32,935,875	34,778,995	42,868,911
인 구 수	79,476,271	81,054,271	82,652,000	84,215,000	86,972,500
100명당 보급률	19.36	27.77	39.85	41.3	49.3

주: 전년도 통계 기준 수치. ISL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됨.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양대 이동통신 회사인 Smart Communications와 Globe Telecom는 이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가입 자수는 300만~500만 명 정도로 필리핀 전체 단말기 사용자에 10~20%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GSM 방식을 사용. 단말기는 보급품의 저가 기종이 대부분이며, 후불제보다는 선불카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신 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및 소액 재충전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0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3,500만 명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VoIP

현재는 기존 유선통신 사업자들에게만 사업권이 허가되어 있으나, 관련 업계의 규제해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최근 규제를 해제하여 유선통신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사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005년 3월 초, PLDT 회장이 금년 내 VoIP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2005년 9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 인터넷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업체도 크게 늘어났다. 가 대미달러 환율의 급상승, 경기침체, 기존 유선망 사업자인 PLDT와 GLOBE까지 ISP 시장에 가세하는 바람에 경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ISP 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NTC에 등록된 ISP 숫자는 2000년 34개사, 2001년 64개사, 2002년 93개사, 2003년 121개사, 2004년 144개사, 2005년 177개사로 2005년 말까지 총 633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NTC 문의 결과)

ISP 업체들간 경쟁 과열로 네트워크 능력을 초과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네트워크 과부하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NTC가 ISP의 네트워크 용량과 가입자 유치 실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는 없다.

인터넷 카페 수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00여 개가 있는데, PC 15대 이상을 설치한 중견규모는 5,000여 개, 1-2대 등 소규모로 설치한 곳들은 9,0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2005.3월 Business World by Netopia Internet Company Survey)

인터넷 사용자수는 1999년 95만 명, 2000년 190만 명, 2001년 310만 명 이었고, 2002년 340만 명, 2003년에는 400만 명, 2005년에는 782만 명으로 2년 동안 약 2배의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기적 사용자(regular user)'는 2002년 96만 5,000명에서 2003년 100만 명으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주로 유선전화 보급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나머지 300만 명은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있거나 가끔 이메일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AC NIELSEN; Business World 2004.2.13, 2004년 이후 자료 미공개)

사업가들도 인터넷을 가끔 이메일을 사용하는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한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메일을 점검한다는 바이어들도 많아 사업상 의견교환은 주로 팩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터넷 회선 가입자는 2001년 50만 명, 2002년 80만 명, 2003년 100만 명, 2004년 120만 명, 2005년 144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원: NTC)

인터넷 사용자의 40% 가량이 Pre-Paid Card 사용자로, 휴대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인구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선전화 보급 부진, 높은 유. 무선 전화이용료, PC보급 부진 등이 인터넷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WiFi 무선랜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커피전문점(Starbucks, Coffeebean), 호텔,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 중이다.

아직까지 Dial-up 방식이 주류로, 최대 속도는 56K이나, 인프라 부실로 인해 실제 접속 속도는 이보다 느리다. ISDN의 경우 유선전화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64K, 128K가 서비스되고 있고, 기업용으로 한정되어 E1급(30채널)이 주로 보급되고 있다. ADSL은 광섬유 라인이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되고 있고, 기업용은 512K, 1M, 2M가 가능하며, 월 사용료 600달러로 사용료가 비싸서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 기업용: 최저 18K - 최대 2Mbps DSL 연간 사용료 약 2,700달러(속도 별 차등)
- 가정용: 최저 18K - 최대 1.6Mbps DSL 사용료 월 58달러
- 케이블 인터넷은 CABLE TV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월 34달러 정도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나 단말기가 저가 보급품 위주로 보급되어 있어 다양한 동영상 등의 서비스는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는 뉴스, 간단한 게임 등 사용 분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콘텐츠도 다양하지 못하다.

□ PC 보급

1998년 9만 대, 2001년 136만 대, 2003년에 185만 대 보급. 2003년 말 기준 인구 100명 당 2.77대 수준으로 추정(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분야별로는 기업 65%, 가정 13%, 정부기관 10%, 학교 6%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개인 PC보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의 80%가 월 소득 27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이 IT보급 확산의 장애 요인이다.

2004년도 필리핀 정부가 인텔사와 약정을 맺고 '국민형 PC(PC for the people)'를 도입, 학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했으며, 2005년 3월에는 세계 2위의 마이크로칩 업체인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와 다시 약정을 맺고 저가 PC 보급을 시작했다. 인텔의 국민형 PC는 판매가격이 대당 17,600페소 (약 320달러)로, 리눅스가 설치된다. 필리핀에 부품 형태로 반입되어 조립, 판매. 부품 조달처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코스타리카 등으로 알려져 있다. AMD는 인텔보다 낮은 가격인 대당 16,500페소(약 300달러)에 칼라 잉크가 장착된 프린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AMD는 2005년에 1만 대를 필리핀에 공급하였고, 판매 대상은 학교 및 공무원으로 인텔사와 같다.

□ 필리핀의 IT산업

필리핀 정부가 육성하려는 필리핀IT 산업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으로, 그 가운데 특히 콜센터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3년 IT분야에서의 투자는 23% 증가한 64억 페소였는데, 그 중 69%인 44억 페소가 콜센터 산업에 투자됨. 2004년 1분기에는 IT분야 투자 26.3억 페소 가운데 92%가 콜센터 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필리핀의 콜센터 산업은 2002년의 10,000석에서 2003년 말에는 21,000석으로 100% 이상 증가했으며, 2004년 말에는 4만 석, 2005년 말에는 8만 석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5년 이후 자료 미공개). 현재 세계 콜센터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내지 7년 후에는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센터 기지로서의 필리핀의 장점은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구사 인력이 풍부하며 통신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좋다는 점이다. 또한 필리핀인들의 미국 선호가 강한 덕분에 미국 문화와 친숙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미국의 유수 콜센터들인 Convergys, West Tele Services, Sykes, ICT, APAC Customer Services가 있으며, 메트로마닐라, 클락, 세부 등에 60여 개의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IT Park 육성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단조성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IT 단지 및 건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상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개발, 하드웨어 디자인 및 시제품 생산, 컴퓨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 연구개발 및 IT 제조 등이다. 2006년 6월 기준, 총 161개의 IT Park와 IT 빌딩이 지정되어 있다.

단지별 주요 입주 기업

단지명	주요 입주 기업
Eastwood City	IBM Business Services Inc., Siemens Inc., E-Telecare (콜센터), NEC Toppan Circuit Design Inc., Toie Animation Philippines Inc., Trend Micro Inc.(보안 소프트웨어), Link2Support Inc.
RCBC Plaza SEZ	Dell International Services Philippines Inc, Safeway Philtech Inc., ACS of the Philippines Inc.
Asia Town IT Park SEZ	Epson Precision (Philippines) Inc., Epson Precision (Philippines) Inc., People Support (Philippines) Inc.
Northgate Cyberzone	HSBC Electronic Data Processing (Philippines) Inc. APAC Customer Services Inc., Itron, Inc.

자료: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June 2006)

□ IT 인력의 임금 및 노동 여건

영어 구사 및 해독 가능한 IT 관련 programmer, analyst, system integrator 등 숙련 인력이 풍부하여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IT관련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필리핀은 노조설립이 자유롭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동정책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선진국에 가까운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KMU 등 전문 노동운동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투자업체들의 애로사항 내지 우려사항의 하나가 노사분쟁이다.

필리핀 기업도 노사분쟁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꼭 현지 파트너가 외국인 경영진보다 노무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생소한 외국인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IT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필리핀 내에서는 급여가 많은 편이다. 필리핀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에 따라 달라지고 업종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단순작업 종사자는 월15,000-20,000페소, PROGRAMMER는 월 20,000-25,000페소, SYSTEM ANALYST 및 WEB DESIGNER는 월25,000-30,000페소, IT ENGINEER는 월 40,000-50,000페소 정도이다.

(나) 국내 기업 진출 유망 분야

□ 유망 진출 분야

○ IT 분야

-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무선통신이 발달하였기에 무선통신과 관련된 위성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등이 유망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렴한 영어구사 가능 인력으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전세계에서 문의되는 고객문의에 응답하는 역할을 하는 Web Call Center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인식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하청생산 기지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네트워킹 장비의 경우 수요는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경제적 물량을 수주하기가 어렵다. 인터넷 솔루션은 필리핀의 인프라, 구매력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광산 개발 분야

-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Mines and Geosciences Burea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전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 특히 금속성 광물 자원은 총 8억 5,0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2004년 기준)은 약 99만 톤으로 총 매장량에 약 0.117%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자원개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잠재 광물자원이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체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95년 「광업법 (Philippine Mining Act - Republic Act 7942)」과 2004년 1월에 「행정 명령 270호 (Executive Order No. 270)」를 제정,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현재 한국기업의 경우 'LG 상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KORES)'가 필리핀 Rapu-Rapu 동·금광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기업은 구리(Cu) 약 3,000톤과 아연(Zn) 약 4,000톤을 확보한 상태이다.

□ 현지 협력(합작 등) 가능 업체

독자적으로 파트너를 물색하기 힘들 경우 필리핀 투자청(BOI)에서는 합작 파트너를 소개해 주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내수 판매, 관리 등 파트너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정하고 이에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있는 필리핀 사업가들은 제조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상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합작선으로 나선 파트너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합작을 하기를 원하는 지 사전에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의 목적이 우리 측의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해야한다.

필리핀에서 파트너 선정에 있어 애로사항은 경제적인 상류층과 하층이 너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자본력도 있고 왕성한 기업욕을 가진 중소기업 수가 적다는 데 있다.

□ 기진출한 IT 업체 및 진출성공/실패 사례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의 IT관련 업체는 2001년 진출한 LG CNS와 2003년 진출한 와이더랜닷컴 등이 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인 한국 업체들도 있으며 온라인 게임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성업 중이다.

인터넷 솔루션 장비업체들도 필리핀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결말을 맺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진출을 보류중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WAP 솔루션 장비의 경우 노키아에서 이동통신회사에 단말기 제공을 목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음에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동 장비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한-ASEAN FTA 체결

2006년 5월 16일 한국·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하였으며, 정부는 2007년 2월 협상이 개시된 한-아세안 서비스, 투자협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비준절차를 마쳤으며, 동 협정문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한국과 ASEAN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은 2007년 11월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상품 FTA가 발효되었다.

한·ASEAN FTA는 한국의 네번째 FTA이며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로서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과 ASEAN간의 상품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보다 3년 늦게 한·ASEAN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ASEAN 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07.4.7)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ASEAN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하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무역협정문은 모든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군 분류는 각 당사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리핀의 경우 일반 품목군으로는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철강 등이 있으며 민감 품목 군으로는 오리, 고등어, 야자수, 소시지, 신발류 등이 있다. 초민감 품목은 닭, 돼지, 양배추, 마늘, 플라스틱제 의류 등이 있으며, 버, 사탕수수당, 시동 전동기, 와이어링 세트 등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된다.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인하 및 철폐에 대한 조항은 상품무역협정 제3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개의 부속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ASEAN FTA 협상 경위

- 2004.11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FTA 협상개시 선언
- 2005. 2 월 협상 개시
- 2005.12 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 2006.2 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부터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협상 개시
- 2006.8 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1 월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 시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을 2007.11 월로 조정
 - 2006 년 말 타결을 목표로 동 분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어 협상타결 목표 조정
- 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시 서비스무역협정문 협상을 타결하고 11.5 일 전체 아세안 회원국과 양허 협상 완료
 - 제 20 차 협상 시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은 2008 년으로 연장
 - 2006.2 월 제 9 차 협상(인도네시아) ~ 2007.10 월 제 20 차 협상(라오스)까지 총 11 차례 서비스무역협정 협상 진행
- 2007.11 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 태국은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미완료함에 따라 금번에는 서명하지 못하였고, 추후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 협정에 서명기로 함.
- **2008년 1월 1일 상품 FTA 발효**
- 2008년 중 투자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협상 완료
-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2020년까지 전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
 - 향후 광산개발 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풍부한 필리핀의 광물자원(금속성 광물 자원 총 8억5천 톤으로 추정) 개발을 위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레스토랑, 호텔업, 레저(여행) 사업의 개방으로 필리핀 관광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호텔업 및 여행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 되었으나 한-FTA 승인 후에는 100%로, 외국인 순수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나. 필리핀-일본 FTA 체결

지난 2003 년부터 시작된 일본-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 년간의 진통 끝에 제 6 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개최 하루 전인 9 월 9 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일본-필리핀 경제협력 협정(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PEPA)'의 표제로 양국 정상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현재 JPEPA 진행 상황은 당초 2008 년 7 월 말 상원 개원 시 상원의 승인을 통한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환경문제, 교역문제, 헌법상의 소유권문제,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현재까지 상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8 년 10 월 중 상원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PEPA 는 필리핀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철강(Iron and Stee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 의류, 과일(포도, 배)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향후 10 년 내에 삭감 또는 폐지해야 하며, 필리핀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비-FTA 국과 차별화되는 혜택(Incentive)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일본산 산업용품(Industrial Goods)의 경우 향후 10 년 내에 현행 수입관세의 90%, 철강의 경우 현행 수입관세의 최소 60%를 삭감해야 하며,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그 이하)도 현행 30%인 수입관세율을 △금년 29%, △2007 년 26%, △2008 년 23%, △2009 년 20%, △2010 년 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일본 정부도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협정품목), 가공식품 및 기타 부산물 대한 관세를 최대 10 년 내에 단계적으로 삭감·폐지해야 하고 동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Quota)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과 같은 인력파견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본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인력 수급량의 가이드라인도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인력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산 농산물의 경우, 파인애플(900g 이하)은 5 년 이내에 무관세로 연간 800 톤의 수입 할당량(1,000 톤/년→ 1,800 톤/년)을 늘려야 하며, 건조 파인애플은 10 년 이내 수입관세 철폐,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관세 적용 비율의 10%를 5 년 내에 줄여야 한다. 또한 바나나의 경우 하절기 수입 시 수입관세 2% 포인트 삭감(10%→8%), 동절기 수입 시 10% 포인트 삭감(28%→18%)된 수입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닭과 같은 축산물에도 2011 년에 수입할당량을 3,000 톤에서 7,000 톤으로 (수입관세 8.5% 적용) 늘려야 하며, 필리핀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도 조기 철폐(새우) 또는 단계적 철폐(게)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부산물인 당밀(Molasses)에 대해 △2009 년 2,000 톤, △2010 년 3,000 톤으로 수입 할당량을 늘려야 하고 1kg 당 15.3 엔으로 부과 되고 있는 수입관세도 50%를 삭감해야 하며, 흑설탕(Muscovado Sugar)에 대해서도 △2009 년 300 톤, △2010 년 400 톤으로 수입 할당량을 늘리고 수입관세도 1kg 당 35.3 엔에서 17.65/kg 으로 50%로 삭감해야 한다(단, 원료 및 정제 설탕은 2010 년 재협상 품목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7 년에 31 년만의 최대인 7.3%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현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유입도 늘어나고 있어 교역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기업들의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지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도 발표되는 등 향후 경제성장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08 년 1 월 1 일부로 한-아세안간의 상품 FTA 가 발효되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의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임에 따라 기존시장의 확대 또는 신규시장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진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8 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은 25 억 달러로 전년대비 27.8% 가 늘어났으며 수입도 15 억 달러로 29.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7년 기준, 필리핀의 대 한국 수출은 2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는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2007년 44억 달러, 2008년 상 반기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2007년 약 2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1~6월)	
	금액	금액	증가율
수출	2,438	1,513	29.8%
수입	4,420	2,538	27.8%
무역수지	-1,982	-1,025	

- 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부품, 비철금속 제품, 농산물, 금속광물 등이다.
- 비철금속, 금속광물, 기초 산업기계 등의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비중은 전자부품이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 수출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MTI 2단위	품목명	2007		2008(1~6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2,438,257	11.5	1,513,601	29.8
1	83	전자 부품	1,117,277	10.4	547,715	11.2
2	62	비철금속 제품	340,546	17.8	382,008	106.6
3	1	농산물	328,073	12	196,635	11.6
4	81	산업용 전자 제품	222,622	-11.4	110,036	9.6
5	84	충전 기기	141,259	9	58,415	-16.4
6	11	금속 광물	28,159	241.7	44,172	249.3
7	61	철강 제품	43,648	24.2	40,643	96.5
8	82	가정용 전자 제품	43,918	62.8	21,086	-9.4
9	22	정밀 화학 제품	23,652	54.2	19,061	87.7
10	3	임산물	15,937	5	15,685	91.5
11	21	석유화학 제품	13,918	182.5	14,139	29.1
12	44	섬유 제품	23,868	72.3	12,733	12.6
13	4	수산물	21,729	-18.9	8,523	-19.5
14	31	플라스틱 제품	9,033	-3.4	6,514	53.7
15	74	수송 기계	11,814	20.4	6,377	-2
16	12	비금속 광물	10,836	35.1	4,908	-6.2
17	24	요업 제품	5,527	25.8	3,717	62.9
18	71	기초 산업 기계	2,116	-0.1	3,291	436.6
19	25	제지 원료 및 종이	7,873	5.2	2,762	-27.8
20	73	정밀 기계	2,965	20.7	2,423	143.5

자료: KOTIS 무역 통계

- 수입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수송기계 등의 비중이 높고, 2008년에는 철강제품, 전선, 비료 등이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 전자부품의 경우, 현지 가공을 위한 원자재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강제품의 수입급증은 현지에 진출한 한진 중공업의 선박제조용 원자재 수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필리핀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송기계의 수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對한 수입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MTI 2단위	품목명	2007		2008(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4,420,334	12.5	2,538,643	27.8
1	83	전자부품	1,360,034	-12.8	705,991	7.1
2	13	광물성연료	688,418	63.6	374,325	79.2
3	61	철강 제품	295,804	48.2	291,058	149.2
4	74	수송기계	207,123	62.9	149,378	78.3
5	21	석유화학 제품	225,456	33.1	127,162	5.9
6	81	산업용 전자 제품	267,222	-20.3	119,778	-11.8
7	62	비철금속 제품	243,685	34.2	115,390	-6.4
8	22	정밀 화학 제품	102,192	21.1	82,526	82.5
9	43	직물	194,102	-17.5	71,430	-29.3
10	71	기초산업기계	95,778	241.5	55,738	6.6
11	85	전선	49,618	27.1	46,275	188.1
12	23	비료	34,351	0	43,151	778.3
13	72	산업기계	89,950	34.3	38,776	-25.4
14	31	플라스틱 제품	60,032	7.6	36,323	27.7
15	84	충전 기기	48,613	30.8	30,605	17.8
16	11	금속광물	40,312	18.2	30,006	76.3
17	79	기타 기계류	84,735	274.8	27,666	-20.6
18	75	기계 요소공구 및 금형	42,087	7.6	23,626	0.2
19	82	가정용 전자 제품	37,905	-22	21,248	10.4
20	73	정밀기계	25,556	36.7	20,108	70.1

자료: KOTIS 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품목(Import Regulated Commodities) (범례) 품목 수입승인기관

유의: 아래 자료는 중앙은행(BSP)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최근 자료가 발간되지 않아 현재의 정확한 수입관리품목은 정리된 것이 없는 바, 수입 시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사전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 Acetic anhydride ... DDB
- 쌀, 옥수수 ... NFA
- Sodium Cyanide ... BFAD
- Chlorofluorocarbon ... BFAD
- Penicillin, derivatives ... BFAD
- 정제석유제품 ... ERB
- Aviation Gasoline ; Motor Spirit(Gasoline) ; Petroleum Naphtha ; Kerosene(including Kerosene type jet fuel) ; Diesel Oil ; Other Gas Oils ; Fuel Oils for use in the generation of electric power ; Bunker Oil ; Slop Fuel Oils ; Other Fuel Oils ; Lubricating Oils and base stock, Heavy Oil Preparations ; LPG

- 석탄 ... ERB
- 컬러복사기 ... NBI & Cash Dept. of Central Bank
- 폭약용 화공약품 ... PNP-FEO
 - Sodium Nitrate ; Nitric Acid ; Sodium Chlorate ; Potassium Chlorate ; Sodium Perchlorate, Ammonium Perchlorate and Potassium Perchlorate ; Potassium Nitrate ; Lead(II) Nitrate, Copper(II) Nitrate, Barium Nitrate, Calcium Nitrate, Strontium Nitrate and Cupric Nitrate ; Ammonium Nitrate ; Nitrocellulose and Dinitrocellulose
-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종자용) ... Bureau of Plant Industry
- 농약 ... Fertilizer & Pesticide Authority
 - Agricultural Insecticides ; Fumigate ; Other Insect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Fung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retail sale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Weed Killers (Herb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Rat Positions ; Anti-Sprouting Products ; Plant-Growth Regulators ; Other Products
- 중고 자동차 부품 ... BIS
- 중고 타이어 ... DTI
-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는 중고차 수입 ... BIS
- 정부기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연간 2백만 페소 초과시) ... Nat'l Computer Center
- 방사능물질 ... PNRI
- 필리핀 통화의 합법적 입찰 ... BSP
- 금화, 구리, 니켈 등 각종 주화용 빈 동전, 지폐 ... BSP
-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NFA, BAI
 -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 휴대전화 단말기, 전화수신기 등 모든 통신기기 ... NTC
- 중고컴퓨터 ... DENR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용 프레온 가스 ... DENR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BPI
- 신선 및 냉동 어류 ... BFAR
- 동물용 사료 ... BAI
- 가공 식품류 및 약품 ... BFAD
- PVC resin ... BOI
- Cigarettes & other Tobacco Products ... NTA, DENR, BIR
- 화장품 ... BFAD
- 수의약품 ... BFAD, BAI
- 보트 및 각종 선박 ... MARINA
- 각종 항공기 ... ATO, CAB
- 컴퓨터(모뎀 장착된 것) ... NTC

□ 승인기관 약칭 풀이

- ATO : Air Transportation Office
- BAI : Bureau of Plant Industry
- BFAD : Bureau of Food and Drugs
- BIR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BOI : Board of Investment
- BPI : Bureau of Plant Industry

- BRAR :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 CAB : Civil Aeronautics Board
- DDB : Dangerous Drugs Board
- DENR : Dep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 ERB : Energy Regulatory Board
- MARINA : Maritime Industry Authority
- NBI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NTA : National Tobacco Authority
- NTC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PNP-FEO : PNP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 PNRI : Phil. Nuclear Research Institute

나.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Commodities)

-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농산품(종자용 제외)
- 포르노 제품 / 재료
- 중고 의류 및 냄마
- 장난감 총
-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 도박용구, 카드, 기구 등
- 복권, 경마권 등
-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 불량 의약품 및 식품
-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다. 수입규제 현황

- 최근 필리핀 정부는 현지 Steel angle bar제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에서 수입된 철강제품에 대하여 Safeguard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Safeguard 조사추진 내역
 - 제소자: Cathay Metal Corporation, Dragon Asia Rolling Mills Inc. 등 3개사
 - 제소추진: 2008.1.14~7.30
 - 제소접수: 2008.8.6
 - 예비조사 개시: 2008.8.11
 - 피제소자
 - Taiwan 6개사, 일본 3개사, 중국 30개사, 홍콩 3개사, 프랑스 1개사, 캐나다 1개, 미국 1개사, 싱가포르 1개사, 한국 1개사 등 총 47개사 등

4. 관세제도

상품분류는 HS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분류코드는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를 사용함.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PSCC 코드로 분류하여 집계, 발표되었다. 관세율은 1999년 Estrada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334를 발표, 당초에는 2001년 14단계에서 2004년까지 4단계로 축소(2004년 최고 관세율 5%)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2년 4월에 Arroyo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91을 발표, 관세율 인하 계획을 수정, 2004년에는 관세율이 9단계(2004년 최고 관세율 50%)로 변경하였다.

2003년 중반부터 수입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쪽으로 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회담 실패를 계기로 하여 11월부터 5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추가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수입관세가 조정되었다.

2002년까지는 관세율 표에 3개년 분을 포함시켰었으나 2003년에는 당해년도 관세율만 명시하여 발간함으로써 차후 관세율의 조정 기미를 보였다. 2004년도 관세율 표에는 2005년까지 2년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세안 관세율(CEPT Rates)과 MFN 관세율이 나란히 표시되고 있다.

2006년 5월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및 소비자의 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재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관세를 최소 0%에서 최대 3%까지 탄력적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527호(EO No. 527)를 발표하였다.

2008년 1월부터는 한-아세안 상품 FTA 발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었고 향후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관세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5.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화 및 국제 인증 (전체 분야)

-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관련 업종의 제품과 관련된 정부 유관 기관 해당 부서 및 국제 공인 기관 (ISO, IEC)에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표준화는 필리핀 무역 산업부의 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에서 제공하는 ICC (Import Commodity Clearance) 품질 마크를, 국제 인증서 등은 ISO와 IEC등 국제 기구에서 기준 및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 표준화는 전기·전자 분야, 기계, 화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자의 제품의 질을 판단하기 보다는 현지 시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 자국민 경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판단한다.
- 기계분야 및 섬유관련 분야의 경우 필리핀 표준 규격 조건(BPS, Bureau Philippine Standard)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전기/전자, 석유/화학공업 및 건축/건설의 경우는 표준 규격 조건과 함께, 제품별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된 동종 민간단체의 규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ISO 9001 및 IEC 인증과 조건에 맞는 규격을 필요로 한다.

- 현지에서 가장 인지도 및 효용성이 높은 국제 인증으로는 ISO 9001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국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ISO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최근 관심 사항인 것은 ISO 14064 (지구 온난화 관련), ISO 26000 (치안 관련), ISO 9000 (건강 관련)등이 있다.

1) 기본 규정

- 필리핀 행정부에서 발표한 필리핀 규격(PS: Philippine Standard)조항에 의거, 수입규제 대상품목(Regulated products)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수입품의 경우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마크를, 현지 생산품의 경우 필리핀 표준 규격(Philippine National Standard; PNS) 또는 국제 표준 인증(품목마다 상이)을 확보 후 판매가 가능하다.

2) ICC 인증 필요 서류

- 신청서 원본과 공증된 3장의 사본
- 선하증권
- 제품 리스트
- 송장 (INVOICE)
- DTI (Dept of Trade and Industry)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입자의 등록 서류
- 표준규격인증서(ISO등 국제 표준)

3) ICC 인증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요건

- 필리핀 표준청 (BPS)의 제품 테스트는 없었으나, ISO9001:2000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필리핀 표준청 (BPS)의 제품 테스트와 ISO9001:2000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수입 허가제도 의 수입관리대상 제외 품목으로, 필리핀 표준청 (BPS)의 제품 테스트와 ISO9001: 2000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필리핀 표준 규격과 안전 규격 마크 (Safety Certification)가 있는 경우

나. 의약품 분야

- 주재국에 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필리핀 식약청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등록 신청의 요구사항

- BD #1 s. 2002에 규정된 등록 지원서 작성
- 약품 등록 서식 첨부/참조(개정판)
- 모라토리엄 제어 대상 증명서
- 과거 RSN에 해당되어 승인 불가 통보한 서신 사본(재신청의 경우)
- 제조업자, 무역업자, 분배자간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 사본
- 수입, 수출업자, 도매업자
- A.O. 54 규정에 명시된 제품 등록 증명서 원본 제출
- 제품 출처가 명기된 제조업자, 무역업자, 분배자, 수입업자의 LTO 사본
- 추가서류: 금지/통제 약품의 경우(DDB에서 발행된 허가증)
- 기준 복용량과 제조법
- 약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technical 내역서
- 주요 원재료에 대한 분석표

- 공급자(제조사)에 의한 원재료 분석
- 제조업체의 완제품 분석
- 완제품에 대한 technical data(기술 검사서)
- 완제품에 대한 분석표(1회분의 견본 제출)
- 제조 공정 내역서, 생산 장비, 추출 견본, 품질검사 및 포장 공정 설명 내역서
- 효능을 분석/검사한 데이터 자료 e.g. 색층 분석(비공식적인 포뮬러라면 분석/테스트 결과 첨부)
- 안정성 시험(Stability Studies)
- Accelerated (최초신청)-1 batch at 3 elevated temperature
- Long Term(갱신)-3 batches
- In-Use(개조된 제품)
- 1 batch at 30 oC and 2 oC -8 oC
- 3 batches at 30 oC and 2 oC -8 oC
- 시중에 유통돼있는 상태의 샘플 또는 상용화 상태의 견본품(유효기간이 1년 이상 여유 있는)
- 라벨의 재질
- 고유색상이 지정된 label 도안 및 실물 각 3매
- Bioavailability / Bioequivalence Studies (for Rifampicin)
- 수입된 제품의 경우
- Certificate of Free Sale from Country of Origin duly authenticated
- by the territorial Philippine Consulate
- Regulatory Agency Certificate attesting to the status of the
- manufacturer as to competency, reliability of personnel and facilities duly authenticated by the territorial Philippine Consulate
-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
- General information
- Studies done on the plastic to substantiate claim that product is
- safe to use
- Test procedure and limits
- Empty plastic container and closure with corresponding proof of
- payment for laboratory analysis
- 새로운 약품(적용되는 경우)
- Submit copy of ABC approval on pre-clinical, clinical, protocol
- for Monitored Release
- Copy of ABC approval on the rationale of Fixed Dose Combination
- Product (if applicable)
- Copy of ABC approval of PMS or letter of Extension of MR status(if applicable)

요금

(단위: 필리핀 페소)

약제 분류	최초 (1년 유효기간)	갱신 (5년 유효기간)
새로운 약재	20,000 / 3년	-
브랜드 명이 없는 약재	2,000	7,500
브랜드 명이 있는 약재	3,000	10,000

주: 현지화 환율- US \$1 = 52.00 페소, 2006년 3월 기준

그 밖의 경우	금액
재 신청 (최초 / 갱신)	1,000페소

자료: 식품 의약품 관리국(Bureau of Food and Drugs)

다. 프랜차이즈 분야

- 필리핀 내 프랜차이즈 부문의 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관계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규들이 있다.
 - Intellectual Property Code
 -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 Retail Trade Law
 - Retail Liberalization Act
- 이와 함께, 다음에 언급하는 인허가 및 기타사항도 진출과정에서의 법률 행위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방정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식품의약청(the Bureau of Food Drugs) 등 관련기관/부처의 승인절차
 - 협약서(Memoranda of Agreement), 진술서(Affidavits), 기관/포기각서(Waivers), 공증서류(Notarized documents) 등 협상방안
 - 주재국 관련 법규, 도덕적 관습, 공공질서 및 정책 등에 반하지 않는 조건
 - 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회사와의 협력
 -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Management 지원

6. 지적재산권

가. 개 황

- 필리핀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연합의 회원국으로 국제저작권법의 가맹국이며 법적인 토대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 미국 이 2004년 4월에 지적재산권침해 우선감시대상국에 필리핀을 포함시킴으로써 3년 연속 우선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오르고 있다.
- Optical Media Board의 자료를 인용하여 Business World(2004.11.28)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불법복제 공장에 대한 급습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판 사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율이 2002년의 82%에서 2003년 에는 89%로 악화되었다.
-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영상물 산업으로, 금년 잠재 매출액은 63억 페소(1억 1,250만 달러)이나 불법 복제물로 인한 손실액이 49억 페소(8,750만 달러)에 달해 실제 매출액은 14억 페소(약 2,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분야는 영화 산업으로, 잠재 매출액은 70억 페소(1억 2,500만 달러)이나, 해적판으로 인한 손실액이 30억 페소(5,350만 달러)에 달하며, 음반업계 또한 금년도 매출액은 13억 페소(2,32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19억 페소(3,39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적재산권 침해율이 이같이 높아짐에 따른 타격으로 영화관은 1997년에 1,200개에서 2004년에는 870개로 감소했으며, 영화제작사는 1997년 200개에서 금년에는 50개로 줄어들었고 연간 완성 작품도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영화관들의 손실 외에도 오락세 30%, 부가 가치세 10% 등 정부가 입은 손실도 8억 페소(1,4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
-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Business World (2004.6.18)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2002년의 3,0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3,3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해적 음반은 2002년 2,090만 달러에서 2003년 2,22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영상물 복제비율이 2002년 80%에서 2003년 89%로, 음반 복제는 변동 없이 40%로 추정된다.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 추정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나, 2003년도 해적판 비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2003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1년 손실 추정액은 1,990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26%가 증가한 2,500만 달러에 달했다. 현지 DVD 해적판은 정품의 최저 10%의 가격에도 판매됨.
- 2003년 한 해 동안 2,000여 건의 단속을 통해 압수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DVD 130만 장, VCD 84만 4,000장에 달했다. 2008년에는 현지 영화산업이 불법 복제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규 동향

- 2004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이 Optical Media Law로 알려진 Republic Act(RA) No. 9239호에 서명하였다.
- RA 9239는 광디스크의 수입, 수출, 생산을 관할하는 법으로, 복제에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Optical Media Board(OMB)로 바꾸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디스크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 OMB의 허가 없이 관련 제조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시키는 자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만 페소에서 최대 150만 페소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005년 2월 25일 RA9239의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발표되어 동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 특허권 획득

- 내국인 특허권 획득은 부진한 반면 외국인의 획득은 활발해지고 있다.

내/외국인의 특허권 획득 건수

연도	총 건수	내/외국인	Invention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2001	1679	내국인	10	189	152
		외국인	1082	5	241
2002	3268	내국인	12	428	670
		외국인	1113	47	998
2003	3890	내국인	7	806	863
		외국인	1160	43	1011
2004	2920	내국인	16	335	468
		외국인	1433	325	343
2005	1666	내국인	15	7	0
		외국인	1638	4	2
2006	1161	내국인	37	88	17
		외국인	944	3	0

자료: Philippin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6

내/외국인의 상표권 등록 건수

연도	총 건수	내/외국인	Principal	Supplemental	Renewal	Container
2001	3101	내국인	232	0	66	0
		외국인	2601	0	0	0
2002	2079	내국인	269	0	20	0
		외국인	1673	0	117	0
2003	4841	내국인	938	0	51	0
		외국인	3666	0	186	0
2004	3791	내국인	803	757	0	0
		외국인	2988	2808	0	0
2005	9400	내국인	2547	0	207	0
		외국인	6594	0	52	0
2006	13296	내국인	5207	0	19	0
		외국인	8042	0	28	0

자료: Philippin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6

라. 저작권

- 국립도서관에 등록한 작곡,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 저작권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기간은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이며 공동 창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자나 대리인에 대한 보호 역시 사후 50년간이다.
- 다음의 경우 법적 보호 기한은 30년이다: 정기 간행물 및 신문/ 오디오, 비디오/ 영화, 사진 영상물
- 기술 이전을 수반하는 라이선싱 계약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심사를 득하여 등록해야 유효하다.

마. 상표권

- 근거 법은 Law on Trademarks, Trade names and Service marks (RA 165)인 상표, 상호, 서비스 등록에 관한 법(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다.

-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는 상표 국에 등록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선 사용주의로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등록 이전에 2개월 이상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일로부터 20년 간 유효하며 20년마다 갱신. 5년 단위로 해당 상표가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선서 공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출원 수속: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 청구. 상표권 등록필증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 상표법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및 5만 이상 20만 페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바. 의장권

- 근거 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며 출원 수속, 강제 실시 권 등은 특허권에 준하며 동법 55조에 규정하고 있다.
- 담당 기관: Bureau of Patents
-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5년 단위로 해당 의장권이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선서공술서로 갱신 가능하다.

사. 특허권

- 근거 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
- 담당기관: Bureau of Patents
- 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법 특허(Process Patent), 장치특허(Apparatus Patent)로 구분, 각각 인정. 보호 기한은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17년이며 종료 후 5년마다 2회 갱신 가능하다.
- 출원조건: 출원인의 발명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 / 특허 출원 1년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지 않은 것
- 출원 제외 사유: 미풍양속, 건강, 복지에 해가 되는 것 / 발명과 분리된 사상, 이론 / 상품의 개선 및 제조에 기여하지 않은 것 / 상업상의 발명. / 단지 기계적 기술로 이루어진 장치 / 의사의 처방을 나타낸 조합 약품.
- 출원 수속: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이다. 출원 후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한다. 특허권 등록필증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 된다.
- 위반 시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10만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 관련 기관

- 지적재산권 등록, 침해 소송제기 등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해당 국별로 나누어 담당.
- Bureau of Patents
- Bureau of Trademarks
- Bureau of Legal Affairs
- Documentation, Information & Technology Transfer Bureau
- Administration, Financial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EDP Bureau

□ 연락처(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Add : G/F., IPO Bldg., 351 Sen. Gil J. Puyat Ave., Makati, Philippines
- Tel : 63-2) 752-5450/65 loc. 201 to 205
- Fax : 63-2) 897-1724
- Web Site : <http://ipophil.gov.ph>

7. 통관/운송

가. 수입 절차

수입 절차

절 차	해당기관
단순 소비재인 경우	
- 수입업자등록	CIIS of BOC
- 대상품목의 수입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BOC, AAB
- 신용장개설	AAB
- 은행이 세관 앞 출고허가서 발행	
- 소비재 반입신청서(증명서 유첨) 제출	EPD
- 소비재수입증명서, 확인서 제출	FED
- 수입품 반출, 완료	
단순 소비재가 아닌 경우	
- 수입업자등록	CIIS of BOC
- 대상품목의 수입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BOC, AAB
- 신용장개설	AAB
- 은행이 세관 앞 출고허가서 발행	
-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일 경우 BOC에 보세반입신청	
-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도 아니면 BOC의 특별수송 허가(SPT)	
- 수입품 반출, 완료	

주 1: CIIS; Customs Intelligence Investigation Service

주 2: BOC; Bureau of Customs

주 3: AAB; Authorizes Agent Bank

주 4: EPD; Entry Processing Div.

주 5: FED; Formal Entry Div.

주 6: SPT; Special Permit to Transfer

주 7: CBMW;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참고로, 사전수입허가 등이 필요한 수입관리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수입에 앞서 확인하고 수입을 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관리대상 품목을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는바,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하여 확인해둘 필요가 있음. 사전 수입 허가 품목인데 수입품이 현지 세관에 도착된 이후 수입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례에 해당되어 30%의 Penalty를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국제공항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마닐라근교), Mactan International Airport (마닐라 남방 562킬로의 세부시 소재) 2개가 있음. 마닐라의 관문인 NAIA 1은 건물의 규모가 작아 출영객 및 환송객의 출입을 막고 여행객만을 건물 내에 출입시키고 있다.

외자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NAIA 3는 2003년 초 개장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BOT 계약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가 완전 중단 되었다. 필리핀 정부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NAIA 3를 인수해야 하나 재정부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고 있음. 일단 정부가 NAIA 3를 일방적으로 인수를 선언. 2005년 말에는 개장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실효적인 개장 일정이 공표되지 않았다.

외국 항공사들이 입주해 있는 NAIA 터미널 1에서는 입국자가 환영객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공항 건물을 나와 택시승강장이 있는 길을 건너 연결통로(Extension)로 내려가면 WAITING AREA (A부터 Z까지 표시)가 나옴. 마중 나온 사람은 길 건너편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자신이 마중 나온 여행객이 WAITING AREA에 내려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길을 건너가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하다.

필리핀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NAIA 터미널 2를 이용하게 되는데, 세관을 통과하여 공항을 나오면 환영객을 바로 만날 수 있다.

마닐라 국제공항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입국 시, 입국카드를 작성한 후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Arrival Gate를 통해 청사건물로 빠져나가면서 입국카드 사본 1매와 수화물 티켓(통상 짐표로 호칭됨)을 제출해야 하므로 단체 입국 시 개인별로 수화물과 짐표를 제시하는 것이 확인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한편 출국 시에는 청사건물 입장 시에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항사정에 따라, 건물 바깥에서 20~30분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 비행거리

마닐라와 주요 도시간 비행시간은 서울 3.5시간, 동경 4시간, 상해 3.25시간, 대만 2시간, 홍콩 1.5시간, 방콕 3시간, 팔라렝푸르 3.5시간, 싱가포르 3시간 정도 소요 된다.

라. 국제항구

Cebu, Manila, Batangas, Zamboanga, Iloilo, Davao, San Fernando 등의 국제항구가 있다.

마.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도착지 및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선적시기에 맞춰 아래 현지 운송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 운송/통관 업체

- 아펙스(APEX)
 - 25th Flr.,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 Makati City
 - 전화: (63-2) 887-5996
 - 팩스: (63-2) 887-5480, 5420, 5426
 - 이메일: egchang@apexphilippines.com
 - 웹사이트: www.apexphilippines.com
- 디펙스(DPEX)
 - Perry's Logistics Centre Naia Ave., Paranaque City
 - 전화: (63-2) 825-0100
 - 팩스: (63-2) 829-7900
 - 이메일: choi_dw@hanmail.net
 - 웹사이트: www.dpex.com
- 두라 해운항공
 - Rm 110 skyfreight Bldg., Naia Ave., Paranaque City
 - 전화: (63-2) 852-7220
 - 팩스: (63-2) 851-6950
 - 이메일: kc9698@hanmail.net
- 한진해운 마닐라지점
 - 2232 CTC Bldg., Roxas Blvd., Pasay City
 - 전화: (63-2) 831-9721, 832-2878
 - 팩스: (63-2) 551-9658, 932-2692
- 유니셉(주)
 - 3rd Flr., ECJ Bldg. Real St., Intramuros, Manila
 - 전화: (63-2) 527-4165
 - 팩스: (63-2) 525-7818
 - 이메일: jjjang@seeds.com.ph

IV. 투자

1. 투자환경

필리핀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한 위치하여 높은 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크롬, 니켈, 금, 동, 철 등 15가지 금속성 광물과 석회석, 대리석, 현무암 등 20가지 이상의 비금속성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크롬, 니켈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보다 낮은 문맹률(6.6%, 2003년 기준)과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문화·종교적 이질감이 적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출가공지대 및 민간공단 입주 시 전력, 통신, 용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현재 필리핀은 4개의 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투자기업들에게 소득세, 영업세 면제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수출입 시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임금상의 우위보다는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면에서 강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력관리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노조도 매우 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가 어렵다.

최근 들어 미국계 콜센터 업체들이 현지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현지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이 투자유치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단체인 Makati Business Club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직원들의 영어 공인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TOEIC 등과 같은 공인 영어시험을 기업들이 요구하면 학교들과 학생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영어성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가 국가경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필리핀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표시로 간주 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장려.

-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
-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
- 수출품의 범위, 질, 양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농업, 광업, 공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련기술을 공급하거나 향상시키는 행위

필리핀 기업들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필리핀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형태나 외국 기업과 필리핀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외국기업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 순위계획(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해당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구비된 공단 등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 및 민간이 개발한 산업공단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은 아직까지 낮은 소득 등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므로 수출산업이 바람직. 따라서 투자 시행 전에 목표시장 설정과 투자전략 수립 시 필리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재산성 확보 등을 위해 공장가동시 필리핀 현지에서 관련 원부자재 조달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인근 타 국가에 비해 임금상의 우위는 별로 없으나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이 다소 우수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전력요금 문제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업체의 신규투자는 별로 없으며, 기 진출한 업체들도 베트남, 태국,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한 산업에의 투자는 필리핀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상품을 필리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타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유망한 품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현지진출 투자자들의 필리핀 투자매력도 평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평가하는 필리핀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 8일 필리핀 유력 컨설팅업체인 Wallace Business Forum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매력도는 2003년의 63.7에서 62.2로 낮아져 필리핀의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정부정책의 가변성 등으로 투자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4년 9월 필리핀 주재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들이 투자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관료적 형식주의, 즉 부패 (85%)를 꼽았고, 다음이 경제적 불안정성(76%), 정책의 일관성 결여(73%), 정부 태도(65%), 빈약한 도로 수송망(57%), 외화 송금의 애로 및 불안정한 환율(53%), 정치적 불안정성(51%) 등을 지적 하였다.

필리핀의 투자 매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교육수준(90%), 영어 사용 능력(84%), 중간관리자 및 기술자의 수완 수준, 현지생활여건(51%) 등이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응답업체들이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줄일 것
- 투자자에 대한 세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것
- 전력공급능력 확충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할 것
- 사업환경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중단할 것, 공공사업을 민영화할 것
- 합법적 사업 환경에 법원이 끼어드는 일을 최소화할 것
- 공공부문 적자와 부채문제를 즉각적이고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것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들 주요 기업들은 아시아에서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을 꼽았고, 필리핀은 일곱 번째로 꼽아, 투자확대를 고려할 경우 필리핀에서의 사업확장보다는 다른 나라로의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대상지로서의 필리핀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2002년 8위에서 2003년 6위로 올라갔다가 2004년에 6위에 머물렀으나 평가한 점수로는 2003년보다 낮아졌다. 2003년에 베트남은 8위, 말레이시아는 7위였다.

2008년에 들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필리핀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7년 3/4 분기까지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126 억 페소로 전년동기 대비 24.18% 감소하였다. (2006년 총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1,659 억 페소)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단위: 백만 페소)

	2004	2005	2006	2007(1-9)
투자액	173,895.2	95,806.8	165,880.0	122,620.3

2007년 국가별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 (분기별)

(단위: 백만 페소)

국가	Q1 2007	Q2 2007	Q3 2007	금액
투자액	17,875.90	58,809.90	34,934.50	112,620.30
일본	6,864.50	5,975.00	21,651.50	34,491.00
미국	3,584.50	22,768.70	2,411.90	28,765.10
노르웨이	0.7	11,172.20	2.4	11,175.30
대만	32.1	10,249.40	158.8	10,440.30
네덜란드	4,272.00	1,062.10	1,399.20	6,733.30
한국	185.1	3,236.20	2,707.70	6,129.00
기타	490.2	2,848.90	739.8	4,078.90
싱가포르	543.9	13.1	1,811.40	2,368.40
영국	905.9	873.2	346.2	2,125.30
독일	34.6	-	1,383.10	1,417.70
중국	356.7	23.6	876.6	1,256.90
홍콩	447	421	108.9	976.9
호주	0	242.5	442.8	685.3
영국 연방	11	567.6	91.3	669.9
프랑스	-	0	603.5	603.5
말레이시아	147.7	154.7	41.9	344.3
태국	-	186.6	-	186.6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도 대 필리핀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을 볼 때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 신고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전체 산업 중 약 54%를 차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필리핀은 전기, 수도, 가스 시설과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체 기술력이 미흡하여 외국 기술, 즉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2006년 대비 2007년의 투자 신고액이 감소한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익성 논란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을 100% 오픈하면서 2008년에는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산업별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 (분기별)

(단위: 백만 페소)

산업별	1Q 2007	2Q 2007	3Q 2007	TOTAL
투자액	17,875.90	59,809.90	34,934.50	112,620.30
농업	2	-	-	2
광산업	104.3	486	921	1,511.30
제조업	12,529.00	28,278.50	-	40,807.50
- 전자	-	22,120.60	-	22,120.60
- 가스	-	-	533.4	533.4
- 수도	-	-	-	-
건설	88.5	8.4	32.6	129.5
무역	126.8	7.5	60.2	194.5
운송	35.8	36.5	142.2	214.5
보관	-	948.6	268	1,216.60
통신	-	-	-	-
금융	35.6	1,435.00	3,253.20	4,723.60
부동산	447	421	108.9	976.9
서비스	4,954.00	6,488.80	2,973.50	14,416.30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개황

1998년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한국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함. 1999년, 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2001년에 급증한 후 200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5년 한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2004년 대비 약 30% 증가)로 인한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투자 반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투자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 1/4분기에 한국이 주재국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진 중공업의 수빅만 조선소 건립을 위한 직접 투자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나. 투자 금액

필리핀 4대 투자진흥공사 집계 기준 직접 투자 신고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년W
전체	당해연도	1,053.38	884.71	2,730.68	1,674.46	1,145.48
	누계	8,420.26	9,304.97	12,035.65	13,710.11	14,855.59
한국	당해연도	18.16	12.31	13.70	17.15	54.35
	(순위)	(10위)	(13위)	(10위)	(8위)	(5위)
	누계	130.17	142.48	156.18	173.33	227.68
	(순위)	(9위)	(10위)	(11위)	(11위)	(11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당해연도	892.42	627.00	3,103.05	1,717.88	1,223.73
	누계	15,748.01	16,375.01	19,478.06	21,195.94	22,419.67
한국	당해연도	26.06	13.14	58.18	194.16	996.15
	(순위)	(6위)	(7위)	(5위)	(5위)	(1위)
	누계	253.74	266.88	325.06	519.22	1,515.37
	(순위)	(-)	(-)	(-)	(-)	(-)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7 (NSCB), Foreign Direct Investments - First Quarter 2007

다. 우리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섬유,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 건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주로 CAVITE, BATAAN 등 경제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 투자 업종 및 업체

회사명	모기업	투자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한전필리핀	한전전력공사	에너지	-	단독법인	186(23)	199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업	-	지점	26(12)	1973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조업	CD/DVD RW	단독법인	1390(9)	2001
삼성전기 필리핀법인	삼성전기(주)	제조업	MLCC, Tantal, Chip-R, X-Tal	단독법인	3068(29)	1997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중 매체, 전문 직종에서의 직업 행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나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 영역에 있어 100% 외국자본 투자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네거티브 리스트 C에 포함되더라도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100% 외국인 투자 가능하다. 세부적인 투자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참고

재선에 성공한 아로요 대통령이 2010년까지 임기 중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대중매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04년 9월 말 발표했다. BOT(Build-Operate-Transfer)법 및 시행령도 개정하여 정부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 업체에는 60% 필리핀인 지분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려우며, 임기 중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 사기업에 금지된 산업

사기업에 금지된 산업은 없음. 필리핀 헌법은 사기업의 기업 확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천연 자원의 탐사나 개발 중 대규모 광업의 생산품 분배 계약(MPSA) 및 소규모 광업 등은 국가의 통제와 감독을 받음. 이러한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자원 탐사나 개발의 경우 필리핀 민간 지분 60%인 개별 기업과 공동 생산이나 합작 투자, 생산물 공유 계약을 할 수 있다.

2) 외자소유에 대한 규제

옵니버스 투자법 1987은 다음과 같은 기업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 생산물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수출위주의 기업.
- 개척(파이어니어) 기업
- 수출 가공 지대 관리청에 등록된 기업

투자청(BOI)은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의거 저개발 지역에서의 비개척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허용. 외국기업은 다음 분야에서만 100% 단독투자 가능하다.

-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의해 '개척산업'으로 규정된 산업
- 수출 가공 지대에 의한 수혜를 받는 산업
- Republic Act 7042하의 과도기 네거티브 리스트 A, B, C에 규정되지 않은 산업

필리핀에서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이 권장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기타 규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필리핀인만 가능.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임대 토지에서 빌딩을 소유할 수 있다.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일반기업은 리스의 형태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한 공유지를 보유할 수 있다.

3) 과도기의 네거티브 리스트(Transitional Negative List)

다음은 RA 7042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의 과도기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는 일반 금융법(General Banking Act) 및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통제받는 금융업 및 보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범례: CA – Commonwealth Act; LOI – Letter of instruction; PD – Presidential Decree; RA – Republic Act;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OT – Build Operate Transfer

□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 제한

○ 외국자본 불허 업종

- 대중 매체 (헌법 Art. XVI, Sec. 11)
- 허가된 전문직의 수행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헌법 Art. XIV, Sec.14; RA 5181, Sec. 1): 회계/ 건축/ 형사학/ 통관중개/ 엔지니어링/ 산림/ 지질학/ 법률/ 문헌정보/ 갑판원/ 항해사/ 의료/ 설탕 기술/ 인테리어 디자인/ 화학/ 조경술/ 환경계획/ 배관공사 소유권/ 복지사업/ 교육/ 농업/ 어업
- 미화 250 만 달러 이하의 자본을 가진 소매 무역 회사(RA 8762, Sec. 5)
- 협동조합 (RA 6938, Ch III, Art. 26)
- 사설 경호(RA 5487, Sec. 4)
- 소규모 광산 (RA 7076, Sec. 3)
- 군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수산자원의 활용 및 강, 호수, 만, 개펄 내에 소규모 수산자원의 활용 (헌법 Art. XII. Sec. 2)
- 투계장의 소유, 운영, 관리 (PD 449, Sec. 5)
- 핵무기의 공급, 제조, 수리, 선 구매(stockpiling) (헌법 Art. XII. Sec. 2)
- 생·화학, 방사선 무기의 공급, 제조, 수리, 선 구매(stockpiling)
- 폭죽 및 기타 불꽃 장치의 제조 (RA 7183. Sec. 5)

○ 2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사설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 (RA 3846)

○ 25%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국내외 고용에 관련된 인력지원(recruit)업 (PD 442, Art 27)
- 지방의 관급 건설이나 수리 계약 (CA No. 541. Sec 1; LOI No. 630)
- 단. RA 7718 에 명시된 기간시설/개발 프로젝트;
- 외국 자본 및 원조 프로젝트와 국제 경쟁 입찰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제외
- 방위관련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계약 (육. 해. 공군 및 해안경비, 병기고, 병영 막사, 보급소, 격납고, 비행장, 병원 등) (CA 541, Sec. 1)

○ 3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광고업 (헌법 Art. XVI, Sec. 11)

○ 4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광물 생산품 분배계약(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사유지 소유 (헌법 Art. XII, Sec 7)
- 공공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 (헌법 Art. XII, Sec 7)
- 교육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소유 및 설립 (헌법 Art. XIV, Sec. 4)
- 쌀, 옥수수의 소매, 교역을 제외한 재배, 생산, 제분, 처리, 거래 행위 (PD 194, Sec. 5; RA 8762, Sec. 15)
- 정부소유 혹은 정부 관리기업 및 대리점, 지방당국 기업에의 원자재 및 상품 공급에 관한 계약 (RA 5283, Sec. 1)

- 공공시설 허가권이 필요한 BOT 프로젝트의 제안 및 설비 운영 (헌법 Art. XII, Sec. 11; RA 7718, Sec. 2(a))
- 심해 상업적 어로 선박 운영 (RA 8550, Sec. 27)
- 회사 조정 (PD 612, Sec. 323, PD 1814)
- 콘도미니엄 전체 소유권 (RA 4726, Sec. 5)

○ **6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RA 5980, Sec. 6; RA 8556)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투자회사 (PD 129, Sec. 5; RA 8556)

□ **보안, 국방, 국민보건상의 위험, 혹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외국자본 소유 제한**

○ **외국자본 한도 40%까지 허용 업종**

- 총기류, 탄약, 무기, 군용물품, 폭발물, 조명탄 및 그 부품 또는 그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제조, 수리, 저장, 혹은 배포

○ **필리핀 경찰청 허가사항**

- 총기(권총 및 소총), 총기류의 부품
- 무기류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의 장비류
- 화약, 다이내마이트, 폭발물품, 폭발물 제조를 위한 성분
- 망원경, 적외선 조준기 및 유사 장비

○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

- 전쟁용 총기류 및 탄약, 핵 무기류, 군수품 및 관련 부품
- 총포류, 포탄, 사격통제 시스템 및 그 부속류
- 유도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및 그 부속류
- 우주선 및 그 부속 시스템, 항공모함 및 보조함
- 무기 수리 및 유지 장비, 군 통신장비, 야간의 식별용 暗視장비
- 생물학 무기 구성요소, 군사훈련장비

○ **기타규제 및 허가사항**

- 위험약품의 제조 및 유통 (RA 7042; RA 8179)
- 사우나 및 스팀 목욕업, 마사지 클리닉 및 유사 업종은 국민 보건 및 윤리에 미칠 위험으로 인하여 법의 규제를 받음 (RA 7042; RA 8179)
- 경마장운용, 소유, 경마의 수입과 같은 오락관련 영업(RA 7042; RA 8179)
- 자본금 20 만 달러 이하로 운영되는 내수기업 (RA 7042; RA 8179)
- 첨단 기술을 소유하거나 최소 50 인의 직접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으로서 자본금 10 만 달러 이하로 운영되는 내수기업 (RA 7042; RA 8179)

□ **RA 7042 및 기타 법규, 행정규제 및 일반 관행에 의해 규제 받는 영역**

○ **40%까지 외국자본 허용 분야**

- 상품의 제조와 무관한 수입 및 도매행위 (RA 7042)
- 라이선스나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거나, 투자청(BOI)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이외의 다른 중앙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거나 RA 7042의 발효일 당시 기존의 행정규제 및 관련 행정기관의 관례에 따라 필리핀 국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업 (RA 7042)

- 관광 에이전트
- 관광 숙박업 (기숙사, 여인숙)
- 각종 집회 조직자 (Convention and Conference organizer)
- 전문적 재보험 서비스 및 보험중개를 포함한 생명 및 비생명보험 대리점
- RA 7042 발효일 현재 라이선스 계약기간 동안 외국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기술, 노하우, 브랜드 네임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필리핀인이 국내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조립, 가공, 제조하는 외국인 라이선스 제공자나 그 동업자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RA 7042)

4) 소매업

소매업은 1999년까지는 외국인 지분소유가 불허되었으나 3월 7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소매업 개방화 법안(REPUBLIC ACT NO.8762)에 서명함으로써 수년간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소매업이 개방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최소자본금이 너무 많고 제약이 많아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동 법은 과거에 금지됐던 소매업(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모든 업종)을 아래의 4가지 CATEGORY로 분류 그 중 B, C, D에 해당되는 소매업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CATEGORY A: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규모로 여전히 필리핀 개인 및 법인만 지분 소유 가능
- CATEGORY B: 납입자본금 250만~750만 달러 규모의 소매업으로 법안 발효 후 2년까지는 지분의 60%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100% 소유가 가능
- CATEGORY C: 납입자본금 7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소매업으로 외국인의 100% 소유 가능
- 다만 CATEGORY B, C 모두 매장 설립 비용이 83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CATEGORY D: 고급, 사치품을 판매하는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소매업으로 외국인 100% 소유 가능

그러나 위 4가지 CATEGORY에 속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 기업만이 소매업에 진출할 수 있다.

- 본국 모기업의 순 자산 가치 기준: CATEGORY B, C의 경우 2억 달러, D의 경우 5,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매장 기준: 전세계 어느 곳이든 5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매장 중 하나의 자본금이 25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 소매업 경험: 5년 이상 소매업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소매업 개방 상호주의 기준: 필리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매업투자가 개방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소매업 허가를 받더라도 매장 이외에서의 상품 판촉 활동은 금지되며 최소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필리핀 중앙은행이나 통상산업부에 의해 확인된 자본금이어야 한다.

필리핀은 막사이사이 대통령 시절인 1954년 소매업 금지 법안을 발효, 외국인의 소매업 진입을 금지한 바 있다. 당초 동 법의 취지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화교들의 소매업 행위를 제한하여 필리핀인들의 소매행위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화교들이 귀화 등 절차를 거쳐 소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교들을 타 외국 업체들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매업 환경 또한 소매금지법 발효 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과 단순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형태의 소매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ENTERTAINMENT COMPLEX의 역할을 하는 대형 쇼핑몰이 늘었으며 이에 견주기 위해 일정 자본금 이상의 소매업 진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금 하한선이 너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여전히 외국업체에게는 진입이 어려움 실정이다. 현재 소매 유통업에 공식 진출한 외국인 투자업체는 미국계 PriceSmart 한 곳뿐이다.

나. 투자허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허가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투자 허가/등록 기관
 -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 받는 경우와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센티브 수혜 경우

BOI (Board of Investment: 투자청): IPP (Investment Priority Plan: 인센티브 부여 대상 리스트로 매년 갱신 하며 일반적으로 4월 경에 당해 년도 리스트 발표)의 대상이 되는 투자건의 인센티브부여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2006년 자료는 필리핀 투자청 홈페이지 (www.boi.gov.ph) 에 있는 'Doing Business'에서 알 수 있다.)

-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공단관리청): 정부소유 공단(수빅 및 크라크 특별경제지대 제외) 및 민간 개발공단으로서 PEZA가 승인한 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단 입주 허가 및 입주 업체 관리, 지원을 담당
- SMB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만관리청): Subic Bay Freeport Zone 입주허가, 입주업체 관리, 지원 담당기관
- CDC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클라크 개발공사): Clark Special Economic Zone 입주허가, 입주업체 관리, 지원 담당기관

2) 인센티브 비 수혜 경우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이곳에 등록
- BTRCP(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내의 부서로서 개인소유 기업의 경우 동 기관에 등록
 - 인센티브 수혜의 경우 상기 각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SEC 또는 BTRCP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투자관련기관

- BSP(Central Bank: 중앙은행): 상기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친 후 외국기업의 경우 중앙은행에 등록 필요하다. 이는 과실송금 및 투자자본 철수 시 동 중앙은행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 Tax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 MMA(Metro Manila Authority):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에서의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동 기관의 허가 필요(Location Clearance/ Building Permit/License to do Business)
- City Hall 또는 Municipal Office: 메트로마닐라 이외 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 MMA와 같은 허가
- SSS(Social Security System): SSS는 사회보장기금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동 기관에 등록하고 피고용인별 SSS Number를 받아야 한다.
- Phil Health Corp. :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기금으로 피고용인 부보
- MERALCO(Manila Electric Co.) : 메트로마닐라 및 인근 수도권일대를 커버하는 민간 전력판매 회사로 전력 연결 신청
- Local Electric Utility Firm: MERALCO 사업지역 이외 지역은 지역별로 담당 전력판매 회사가 있으며 해당지역 회사에 전력 연결 신청
- MWSS(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메트로마닐라 지역 용수 공급기관으로 용수 공급신청
- Local Water Utilities Administration: 메트로마닐라 이외 지역은 각 지역 별로 용수 공급기관이 있으며 해당지역 기관에 용수 공급 신청

○ 허가서 획득 이후 제반 절차

- 기타 투자관련 기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 등록, 납세번호 획득, 사회 보험 기금 등록, 의료보험가입, 용수 및 전력공급 신청, 시청 등 지방행정기관에의 사업자 등록 및 건축허가 획득, 노동부 등록 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
- 투자청의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신청, PEZA 등록 등을 위한 사전조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신청 및 SEC 등록에서부터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그 이외의 절차는 통상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할 경우 시간과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세세한 작성방법, 관행 등을 잘 모르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 제반 사항 등을 대행해주는 변호사 비용이 1,200~1,500 달러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 필요 서류의 준비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 이외에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특별허가 취득 절차가 있다.
 - Alien Employment Permit (AEP)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 Registration for Operation of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CBMW)
 - 공장 내 보세 구역 설정: Bureau of Customs
 -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Dep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내의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 Projects involving land use/conversion(토지 사용/전용이 수반되는 프로젝트): Housing & Land Use Regulatory Board(HLURB), National Housing Authority(NHA),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 Permit to construction/operate pollution control devices(에너지, 화학, 염색 등 환경 오염 가능 공장,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허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 Trademarks/Patents registration: Bureau of Patents, Trademarks & Technology Transfer (BPTTT)
 - Registration of power Generation projects : National Power Corporation (NAPOCOR)
 - Philippine Standard(PS) Quality Mark (내수 판매 소비재의 필리핀 표준 적합성 여부 심사): Bureau of Product Standards (BPS)

- Clearance for projects which involve food, chemicals and others : Bureau of Food and Drug (BFAD)
- Registration of tourism projects : Department of Tourism (DOT)
- Franchise for mass transit operation: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LTFRB)
- Telecommunication projects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NTC)
- License/clearance for defense-related projects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 Registration of advanced technology(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선진기술 등록):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 Clearance for health-related projects : Department of Health (DOH)
- Clearance for oil exploration activities : Office of Energy Affairs(OEA)
- 광업권 획득: Mines & Geosciences Bureau (MGB)

○ 투자 자금의 송금

- PEZA 등록 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OI, PEZA 등의 승인이 난 후 SEC (증권거래국)에 등록(투자인센티브 수혜기업이 아닌 경우 바로 SEC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동 기관에 등록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납입자본금의 필리핀 내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 이후 SEC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은행(BSP)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이익금 송금, 투자자본 철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송금 후 SEC 대신 필리핀 무역산업부 내 BTRCP(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에 등록하면 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지사 개설 환경

- 외국회사의 지점(Branches of Foreign Companies)은 모회사가 지점의 모든 활동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는 지점형태보다는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필리핀 내 자회사(Subsidiary Corporation)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행위는 할 수 없으며 본사 고객을 위한 정보 배포, 상품판매 진흥활동 등 간접적인 사업 활동만 할 수 있다. 동 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본사는 사무소 운영을 위해 최소 연 5만 달러 이상의 운영비를 송금해야 한다.
-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에 대한 정의/개념이 없으며,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가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나. 지사 및 대표 사무소 설립 방법

- 지사(Branch Office)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유사하며 지사 역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 지사 설립 허가 신청 전 투자자는 최소 미화 20만 달러를 필리핀 현지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단, 최신 기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지사의 경우 10만 달러, 수출 지향 지사의 경우 예치금 없음), 지사설립 허가 이후 60일 이내에 SEC 에 최소 10만 페소(약 2,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동 예치금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 담보금 성격을 가지며 총소득(Gross Income)이 500만 페소(약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총소득의 2% 해당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하고 매년 총소득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증가분의 2% 상당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먼저 투자국의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행위는 할 수 없으며 본사 고객을 위한 정보 배포, 상품판매 진흥활동 등 간접적인 사업 활동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 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본사는 사무소 운영을 위해 최소 연간 3만 달러 이상의 운영비를 송금해야 하며, 따라서 동 사무소는 기업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필리핀 중앙은행(BSP) 및 국세청(BIR)에 사업자 등록 의무를 지지 않고 증권거래 위원회(SEC)의 등록만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

다. 기타 회사 설립 방법

1) 회사 설립

- 회사의 종류: 자본금의 조달 형태를 기준으로 주식회사(Stock Corp.)와 비주식회사(Non-stock Corp.)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주식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 외국 회사의 지점이 있다.
- 주식회사(Stock Corp.)의 설립 절차
 - 기본정관의 작성 및 제출
 - 5인 이상 15인 이하(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자이어야 한다.)의 발기인이 기본 정관을 작성, 공증인의 서명과 함께 증권거래 위원회에 제출
 - 기본정관 수록사항: 회사 명칭, 회사설립 목적, 본사 소재지(필리핀 국내에 한함), 회사존속기간, 발기인 성명 및 주소, 회사 사원의 성명 및 주소(5인 이상 11인 이하, 그 중 2인 이상이 필리핀인), 총 자본액, 주식 총수 및 1주의 금액(무액면주의 경우 주식수), 인수 주식의 총수(무액면 주식의 경우 주식수),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및 인수액
 - 신문지 상 공고 및 정관의 법원 제출
 -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인 설립사항을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동 정관을 법원에 제출, 회사설립 증명서를 발급
 - 부속정관의 작성 및 제출
 - 기본 정관이 제출된 후 1개월이 내에 부속정관을 작성, 제출
 - 부속정관 수록사항: 정기 및 특별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주식의 의결권,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및 권한 등, 주주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인수 주식의 과반수 주주의 동의를 얻어 기재

2) 합작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동일
- 단,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SEC)와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투자청(BOI) 또는 수출공단 관리청(PEZ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투자 형태의 결정

- 필리핀 투자 시 합작투자, 단독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전략적 측면 이외에 법적 제한으로 합작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업종 이외에 외국인 토지 소유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합작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필리핀의 공단은 정부소유 공단과 민간개발 공단이 있는데 정부소유공단의 경우 부지 임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으나 민간개발 공단의 경우 분양(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규정 때문에 100% 외국인 단독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
- 공단 이외 일반지역에서의 사유지 임차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으나 지주에 따라 장기 토지 임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현지 파트너의 판매망, 인력활용 측면에서 합작투자가 바람직하며 노무관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노무관리를 맡기는 합작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필리핀은 노조설립이 자유로우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동정책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선진국에 가까운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KMU 등 전문 노동운동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투자업체들의 큰 애로사항 내지 우려 사항의 하나가 노사 분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노조가 개입 되어 회사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있고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노조문제는 전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다.
- 필리핀 기업도 노사분쟁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꼭 현지 파트너가 외국인 경영진 보다 노무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생소한 외국인 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 파트너 선정

- 독자적으로 파트너를 물색하기 힘들 경우 필리핀 투자청(BOI)에서는 합작파트너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내수 판매, 관리 등 파트너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정하고 이에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자본이 있는 필리핀 사업가들은 제조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부동산, 상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합작선으로 나선 파트너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합작을 하기를 원하는지 사전에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의 목적이 우리 측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 필리핀에서 파트너 선정에 있어 애로사항은 경제적인 상류층과 하류층이 너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자본 여력이 있고 왕성한 기업욕을 가진 중소기업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점이며 또한 자본과 기업경영 의욕,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들도 제조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다.

바. 공장 설립 절차

1) 공장 설립 인허가

-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의 경우 공장설립 이전에 토지사용허가(Land Use Clearance) 및 공장 건축허가(관할시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1주에서 2주 소요되며 환경청으로부터 설치예정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증명서인 Environmental Clearance Certificate(ECC)를 발급 받아야 한다(동 절차도 변호사가 대행)

2) 공장 입지 여건 분석

□ 교통 여건

- 필리핀의 운송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내륙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운송이며 철도운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관계로 도로운송에도 한계가 있으며,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운송도 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 또한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 외국회사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 선사들이 노선별로 독점 또는 과점-담합을 하고 있어 해상 운송비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 육상운송의 경우에도 총 운송비가 실질적인 트럭운송비의 4~5배가 되는 등 운송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의 경우 입지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참고로 마닐라-부산 간 40 Foot 컨테이너 해상운송비가 약 500달러라면 민다나오-마닐라 간 운송비가 3배에 달하는 1,500달러에 달한다. 이는 과거 3개 선사가 1개 선사로 합병하면서 동 노선이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업체들이 많은 카비테 지역에서 마닐라 항구까지의 40F 컨테이너 운송비가 800~1,000달러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 트럭 운송비는 160~200달러 수준이나 운송 경비료(실제로는 경비가 동등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지불함에도 운송 도중 분실된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세관원 등 관계 직원의 야간근무수당, 사례비(실제 모든 과정에서 소액의 사례비가 소요되기는 하나 운송회사가 더 붙이는 경우도 있다. 운송회사를 바꾸어도 이러한 청구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례화 되어 있어 불합리한 청구임을 알아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음) 등 부대경비가 많아 실제 물류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공단이 밀집해 있는 마닐라 남쪽의 까비테 지방, 라구나 지방의 도로사정도 열악하여 30~40km 떨어진 곳의 평일 자동차편 소요시간이 2시간도 걸리며 러시아워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는 3~4시간도 걸리는 등 대중이 없다. 특히 인근에 주거지가 있을 경우 트라이시클(삼륜 모터사이클 또는 자전거), 지프니 등 저속 차량이 많아 거리에 관계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육상운송 소요시간은 거리로 가늠하기 어렵다.
- 또한 대형 트럭(6륜 이상)은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만 메트로마닐라 지역을 통행할 수 있는데 국제항인 마닐라항 및 마닐라의 국제공항인 아키노 공항으로의 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트로마닐라를 통과해야 하므로 수출입 화물은 야간에만 수송이 가능하다.
- 따라서 수출입화물 수송 측면에서 본다면 마닐라 남쪽 인근의 어떤 공단이나 지역도 운송 사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까지 있는 남부고속도로(South Super Highway) 인근 지역은 비교적 교통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마닐라 북쪽으로도 클라크 특별경제지대까지 70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므로 동고속도로 주변이나 클라크 지대, 클라크와 접해 있는 Angeles Industrial Park공단 등(클라크는 최근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닐라에서 클라크까지의 철도 개설과 함께 아키노공항을 대체하는 필리핀의 관문으로 개발할 계획임) 교통여건은 까비테, 라구나 지역에 비해 별로 나쁘지 않음. 내수시장이나 필리핀 내 원자재 조달이 필요 없는 수출가공업의 경우 자체 국제항구 및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수빅 특별 경제 구역이 물류 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전력/용수 공급 방안 및 절차

- 전력 대량 수요기업의 경우 지역 전력판매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전력 생산 회사로부터 직접 라인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력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 필리핀의 전력료는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필리핀의 발전이 대부분 중유를 쓰는 화력 발전이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팔라완섬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 발전과 지열 발전, 석탄 화력 발전 등 연료비용이 저렴한 발전소를 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력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 전력 요금은 민다나오섬 일대가 가장 저렴한데 타 지역에 비해 약 40% 저렴하다. 이는 민다나오섬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량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업종은 민다나오섬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나, 민다나오 지역은 메트로 마닐라, 수빅, 세부 등지에 비해 치안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필리핀은 1994년 이후 전력부족이 거의 해소되어 현재로서는 도시지역 및 공단 지역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인한 단전은 거의 없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단전이나, 대부분의 전력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우기에는 수시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단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상 대책은 있어야 한다. 2000년대 후반기에 가면 루손섬에도 전력 부족 사태가 예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6년 ‘한국전력’과 동 지역에 125만kW급의 ‘일리한(Liljan) 발전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였음. 2002년 5월 한전은 일리한 발전소에서 125만kW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이 전력량은 한국의 ‘고리 원 자력 발전소(100만kW)’보다 큰 규모이다.
- 정전 및 단전사태에 대비하여 대부분 자체적으로 비상발전기(Back-up Generator)를 설치하고 있는데, 2005년 6월 말까지 일반 가정(단독주택)과 병원용을 제외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에너지 관리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ERC)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대당 10만 페소의 벌금에 지체일수당 1,000페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한다(전력산업개혁법 시행령;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IRR) of Republic Act 9136 –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
- 일부 공단의 경우 물 과다 소비업종은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종의 경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각 지역 급수기관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방법 외에 공단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 저수조 설치 등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통신 여건

- 1993년부터 1개사 통신 독점 체제를 개혁하여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복수 통신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전화라인 설치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화망 확충에 노력한 결과 전화 보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휴대폰의 경우 다수 업체의 경쟁체제로 인해 기기가격 및 통화료가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발달하였다.
- 공단 및 상업지구 등 통신케이블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회사용 전화라인의 설치에는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국제전화를 포함한 전화료도 적절한 수준이며 통신 품질도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에게는 전화가 사치품에 속하고 전화 보급률도 낮은 수준이며 공중전화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들과의 연락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다. 최근 저가 단말기 보급 및 이동통신사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 등으로 휴대 전화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도 이동전화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노동력 확보

- 필리핀은 전국 어느 지방도 문맹률이 10%이하이고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있으나 불완전고용이 20% 정도 되어 실제 취업률은 7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전국 어디에서나 노동력 확보는 별반 어렵지 않다.
- 일반노동자도 최소 고졸인력, 많은 경우 전문학교내지 대학 졸업자로 충당할 수 있다. 노동력 확보와 관련 카비테, 라구나, 메트로마닐라 등 공장 밀집지역은 미소한 월급 차 이에도 쉽게 이직을 하는 등 이직률이 높고 노조세력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불리한 면도 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숙련노동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면에서는 공단 밀집지역이 유리하다.

3) 입지 선정

□ 토지 임차/ 매입

- 토지 임차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국가소유공단(4개 공단) 및 수빅, 클라크 특별경제지대의 경우로 장기임대 방식 이다. 현재 4개 국가소유공단은 개발 완료된 곳은 임주가 완료된 상태로 기존 입주 업 체가 철수할 경우에만 신규 임주가 가능하다. 각 공단들이 추가확장 또는 유보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수빅의 경우에도 기존 공단은 임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 둘째, 공단 이외 개인 사유지를 임차(최장 50년)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높아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지주들이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토지 매입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 첫째, 민간개발 공단을 분양 받는 것으로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다. 민간개발공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완료 후 판매방식이 아닌 선분양 방식을 취한다.
 - 둘째, 공단 이외의 일반지역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장용지로의 사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필리핀 헌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인 토지 지분의 40% 밖에 소유할 수가 없어 합작투자가 불가피해진다.

4) 공장 건물 건축

- 건축허가는 해당 시청 또는 자치단체에서 받는다. 필리핀 건설업체들은 공기도 오래 걸리고 약속한 공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조업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6월에서 10월에 걸친 우기에는 작업이 느려지고 태풍 등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에서 샌드위치 패널 등 조립식 자재를 수입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도 신속한 공장건물 건축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OI 인센티브를 받는 투자업체나 수출가공 지대 입주 업체는 공장설비는 물론 건축자재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 1996년 말 컨덴서 공장을 설립한 한국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조립식 패널을 수입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건축한 바 있다.

6. 투자입지여건

가. 필리핀의 산업 공단 개요

필리핀 산업공단관리청인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77개(2006년 6월 기준)의 공단에 1,129개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루손섬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개발한 Public Economic Zones으로는 Baguio City Economic Zone, Bataan Economic Zone, Cavite Economic Zone, Mactan Economic Zone의 4개 공단이며 총 438개사가 입주해 있다.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공단(Private Economic Zones)으로는 Laguna Technopark,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Light Industry & Science Park 등 41개 공단이 있으며 총 52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가 별도 지정한 IT공단 및 지정 건물들은 Eastwood City Cyberpark 등 31개로, 161개의 IT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관광 경제 공단(Tourism Economic Zone)의 경우 Eastbay Arts, Recreation and Tourism Zone이 있으며 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공단 내에 수출가공지대와 일반지역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 업종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가공지대는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편의제공 외에도 조세감면,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나 이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게만 국한되는 혜택은 아니며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투자 우선순위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부여되는 혜택이다.

일반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조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공단입주의 장점은 조세상의 특혜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이용, 공단관리업체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공단 외 지역보다 유리하다.

초기단계에는 국가공단으로 수출가공지대를 개발하여 임대방식에 의해 활용하였으나 점차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단개발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도 재정 부족으로 민간공단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민간공단은 대부분 임대방식이 아닌 매각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선 분양 후 개발의 경우가 많아 정부의 토지전용허가 등을 살펴본 후 매입해야 한다.

나. 대표적 공단 소개

면적상으로는 Bataan Economic Zone이 가장 크나 아직 절반 정도 밖에 개발되지 않았으며, 입주업체가 가장 많은 공단은 메트로마닐라 인근의 Cavite Economic Zone (CEZ)로, 이곳에는 한국 업체들도 많이 입주해 있다.

다. 투자 인센티브 대상 공단

구분	공단 특징	경제특구공단(사무소) 명	위 치
1	Public Economic Zones	Baguio City Economic Zone	Loakan Road, Baguio City
2		Bataan Economic Zone	Mariveles, Bataan
3		Cavite Economic Zone	Rosario, Cavite
4		Mactan Economic Zone	Lapu-Lapu City, Mactan, Cebu
5	Private Economic Zones	Agus Industrial Estate	Bulac, Sta. Maria, Bulacan
6		Amkor Technology Special Economic Zone	Brgy. Cup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7		Angeles Industrial Park SEZ	Calibutbut, Bacolor, Pampanga
8		Calamba Premiere Industrial Park	Batino, Parian and Barandal, Calamba, Laguna
9		Carmelray Industrial Park I	Canlubang, Calamba City, Laguna
10		Carmelray Industrial Park II	Punta & Tulo, Calamba City, Laguna
11		Cebu Light Industrial Park	Basak, Lapu-Lapu City, Mactan, Cebu
12		CIIF Agro-Industrial Park	Barangay Kiwalan, Iligan City, Lanao del Norte
13		Cocochem Agro-Industrial Park	Aplaya & Danglayan , Bauan, Batangas
14		Daiichi Industrial Park	Maguyam, Silang, Cavite
15		EMI Special Economic Zone	Anabu II, Imus, Cavite
16		Filinvest Technology Park - Calamba	Punta & Burol-Bubuyan, Calamba City, Laguna
17		First Cavite Industrial Estate	Langkaan, Dasmariñas, Cavite
18		First Oriental Business & Industrial Park - SEZ	Ilang, Bunawan District, Davao City
19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Sta Anastacia , Sto. Tomas, Batangas
20		Food Terminal, Inc. - SEZ	East Service Road, Taguig, Metro Manila
21		Gateway Business Park	Javalera, General Trias, Cavite
22		Greenfield Automotive Park	Don Jose, Sta. Rosa, Laguna
23		Jasaan Misamis Oriental	Solana & Luz Banzon, Jasaan, Misamis Oriental
24		Jose Panganiban SEZ	Jose Panganiban, Camarines Norte
25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Ganado & Mamlasan, Biñan, Laguna
26	Private Economic Zones	Laguna Technopark	Biñan and Sta. Rosa, Laguna
27		Leyte Industrial Development Estate	Isabel, Leyte
28		Light Industry and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I	Diezmo, Cabuyao, Laguna
29		Light Industry and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II	Real & La Mesa, Calamba City, Laguna

30		Light Industry and Science Park of the Philippines III	San Rafael & Sta Anastacia, Sto. Tomas, Batangas
31		Lima Technology Center	Lipa City and Malvar, Batangas
32		Luisita Industrial Park	San Miguel, Tarlac
33		Macroasia Ecozone	Nichols Field, NAIA, Pasay City
34		Mactan Economic Zone II	Basak, Lapu-Lapu City, Cebu
35		MRI Ecozone	Sabang, Danao, Cebu
36		New Cebu Township	Cantao-an, Naga, Cebu
37		People's Technology Complex	Maduya, Carmona, Cavite
38		Philtown Technology Park	Trapiche, Pagaspas & Baloc-Baloc, Tanauan, Batangas
39		Plastic Processing Center	Alion and Cabcaban, Mariveles, Bataan
40		Rapu-Rapu Ecozone	Malobago and Pagcolbon, Rapu-Rapu, Albay
41		Rio Tuba – SEZ	Rio Tuba, Bataraza, Palawan
42		Sarangani Economic Development Zone	Cannery, Polomolok, South Cotabato
44		Subic Shipyard SEZ	Cabangaan Point, Subic, Zambales
45		Tabangao Special Economic Zone	Tabangao, Batangas
46		TECO – Special Economic Zone	Bundagul and Paralayunan, Mabalacat, Pampanga
47		Toyota Sta. Rosa (Laguna) Special Economic Zone	Pulong Sta. Cruz, Sta. Rosa, Laguna
48		Victoria Wave Special Economic Zone	Malaria, Tala, Caloocan City
49		West Cebu Industrial Park	Arpili & Buanoy, Balamban, Cebu
50		YTMI Realty Special Economic Zone	Brgy. Makiling, Calamba City, Laguna
51	IT Centers and Buildings	6750 Ayala Avenue Building	Ayala Avenue, Ayala Center, Makati City
52	IT Centers and Buildings	Arcenas Estate IT Building	Banawa Hills, Barangay Labangon, Cebu City
53		Asia Town Information Technology Park	Lahug and Apas, Cebu City
54		Bigfoot Information Technology Park	Barangay Mactan, Lapu-Lapu City, Island of Mactan
55		BPI Buendia Center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56		Convergys IT Building	Ayala Avenue corner Salcedo Street, Makati City
57		DBP IT Plaza	Barangay Calindagan, Dumaguete, City, Negros Oriental
58		Diliman IT Building	Commonwealth Avenue, Diliman, Quezon City
59		East Cyber Gate	169 EDSA, Manduyong City

60		Eastwood City CyberPark	E Rodriguez, Jr. Ave., Bagumbayan, Quezon City
61		EDSA Central IT Center	EDSA corner United Street, Mandaluyong City
62		E-Square Information Technology Park	For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Metro Manila
63		Eugenio Lopez, Jr. Communication Center	Mother Ignacia Avenue cor. Sgt. Esguerra St., Diliman, Quezon City
64		Exportbank Plaza Building	Exportbank Plaza, Exportbank Drive corner Chino Roces Ave., Makati City
65		Federated IT Park	Sacsac, Bacong, Negros Oriental
66		Gateway Office Tower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67		Global Trade Center	1024 EDSA, Quezon City
68		G. T. Tower International	Ayala Ave. cor. H. V. Dela Costa St., Makati City
69		HTMT Cyber Park	86 E. Rodriguez Jr. Avenue, Barnagay Ugong Norte, Quezon City
70		HVG Arcade IT Park	HVG Arcade, Subangdaku, Mandaue City
71		Innove IT Plaza	Samar Loop cor. Panay Road,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72		Insular Life Building	6781 Ayala Avenue corn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73	IT Centers and Buildings	JY Square IT Center	Salians Drive, Lahug, Cebu City
74		Leyt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ark	Brgy. Pawing, Palo, Leyte
75		Mango Square	Maxilom Avenue corner Juana Osmena Street, Cebu City
76		Marvin Plaza Building	2153 Chino Roces Avenue corner Herrera Street, Makati City
77		MSE Center	Ayala Triangle, Ayala Avenue, Makati City
78		Multinational Bancorporation Center	6805 Ayala Avenue, Makati City
79		Northgate Cyberzon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80		Octagon IT Building	San Miguel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81		Orient Square IT Building	Along Emerald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82		Pacific IT Center	Pascor Drive, Brgy. Sto. Nino, Paranaque City

83		PBCom Tower	Ayala Avenue cor. Herrera Street, Makati City
84		Peoplesupport Center IT Building	Amorsolo Street, Makati City
85		Philamlife IT Building	Acacia Avenue, Madrigal Business Park, Brgy. Ayala Alabang, Muntinlupa City
86		Pueblo de Oro IT Park	Pueblo Business Park, Barangay Upper Carmen, Cagayan de Oro City
87		RCBC Plaza	Ayala Ave. cor. Gil Puyat Ave., Makati City
88		Riverbank Center ICT Building I	A. Bonifacio Ave., Barangka, Marikina City
89		Robinsons Big R Supercenter Cainta Junction	Ortigas Avenue Extension, Barangay Sto. Domingo, Cainta, Rizal
90		Robinsons Cyberpark	Robinsons Pioneer Complex, EDSA cor. Pioneer St., Mandaluyong City
91		Robinsons Equitable Tower	ADB Avenue corner Poveda St., Ortigas Center, Pasig City
92		Robinsons Metro Bacolod	Araneta Street, Singcang, Bacolod City
93	IT Centers and Buildings	Robinsons Place Novaliches	1199 Quirino Highway corner Maligaya Road, Barangay Pasong Putik, Novaliches, Quezon City
94		SM CyberZone 1	Block 9,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Pasay City
95		SM iCity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Pasay City
96		Sta. Rosa Commercial IT Park	Barrio San Jose, Sta. Rosa, Laguna
97		Summit One Office Tower	Shaw Boulevard, Mandaluyong City
98		The Block IT Park	Villamonte Bacolod City, Negros Occidental
99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nue corn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100		UnionBank Plaza	Meralco Avenue cor. Onyx Street, Ortigas Center, Pasig City
101		V-tech Tower	G. Araneta Avneue cor. Ma. Clara Street, Quezon City
102		Wynsum Corporate Plaza IT Building	Emerald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103	Tourism Economic Zones	Eastbay Arts, Recreation and Tourism Zone	San Roque, Angono & Darangan, Binangonan, Rizal
104		Fort Ilocandia Tourism Economic Zone	Balacad, Laoag City, Ilocos Norte
105		Misibis Resorts and Estates	Cagraray Island, Barangay Misibis, Bacacay, Albay

7. 노무관리

가. 고용

현지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하에 위험하지 않은 작업에만 종사가능하며 피고용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시직으로 고용했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동 정규직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어렵다.

나. 인력

현재 필리핀은 2006년 현재 약 250만 여명의 실업자(실업률 8.4%)가 있는 상태로, 업종과 숙련도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력의 확보에는 별문제가 없다.

제조업 미발달로 고기술을 요하는 숙련노동자의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의 훈련으로 작업에 쉽게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가정을 중시하여 집안일 때문에 결근하는 사례가 잦은 편이며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업무영역 이외의 일은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개선추세에 있기는 하나 특히 부녀자의 경우 치안 상의 문제 등으로 잔업 또는 초과근무를 싫어하며, 경영주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추가 비용을 감안 시 비효율적이다. 업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면 싫증을 내지 않고 반복적인 작업에도 잘 적응하며 손재주가 뛰어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기간 훈련 후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약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임금

급여기준 정규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생산직: 하루 8시간 주 48시간
- 사무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점심시간: 하루 1시간

임금정책은 노동 고용부 산하 National Wages & Productivity Commission(NWPC)가 관장 하고 있으며 RA 6727 (1989년 공포)에 기초하여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인 METRO MANILA의 최저임금은 1일 당 350페소(2006 -현재) 마닐라 근교로 우리 기업의 입주가 가장 많은 CAVITE의 일당 최저임금은 1일당 266페소(Cavite Economic Zone 기준). 초과 근무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무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피고용자 모두 초과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업체들의 경우 교통비, 식비 보조 성격의 생활보조비(ECOLA)를 일당 50페소(2006 현재)씩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비 등 물가가 올라 노동단체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시간외 근무수당
 - 정규 근무일: 정상 임금의 125 %,
 - 휴일, 일요일 및 특별 휴일: 정상임금의 130 %,
 - 야간 근무자의 근무수당: 정상임금의 110 %, (22:00 - 06:00)
 - 법정 공휴일(Regular Holiday)이 주당 정기휴일과 겹친 경우 200%.

휴일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하는 일요일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요하지 않음. 주당 6일 근무 후 최소한 24시간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노동부 권고령(Labor Department Advisory No. 2)이 발표되어, 유해작업장,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10시간 또는 최대 12시간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변경. 주당 근무시간 48시간을 준수하고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근무일수를 6일에서 5일로, 또는 5일에서 4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지불해야 한다.

라. 외국인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법(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Labor Code) Title II 및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Rule XIV에 의거 규정되어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후 취업코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을 필리핀 내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은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Employment Permit)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취업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이를 위반 시 노동법제 289조 및 290조에 의거 처벌 받고 추방될 수 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용 후 30일 이내에 성명, 국적, 국내 및 해외고용 직업과 체재자격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에 권한 위임)

모든 거주자인 외국인은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에 등록해야 함. 고용 허가서는 1년 또는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정당한 취업의 사유로 갱신이 가능.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는 이민국(Commission on Immigration and Deportation: CID)에 고용 허가서 발급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마. 사회보장제도

1854년 6월 18일 발효된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Law; RA 1161) Sec.9에 의거 60세 이하의 모든 피고용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동 법 Sec. 8. (C) Employee 규정에서 정부 및 정부기관 등은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신 이들은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Act (GSIA)의 대상이 된다.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마지막 날에 동 법에 의한 Social Security System(SSS)에의 가입 의무가 중단되었다. SSS에 의한 혜택은 월간 베이스로 부양가족 연금, 퇴직금, 사망보조금(Death Benefits), 장애자보조금(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장례보조금, 질병보조금, 출산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요

- 현재 적용되는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CR)은 1997년 개정되었다.
-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특별소비세, 비례세, 인지세 등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

- 부가가치세는 건설 및 서비스 계약업자에 대한 서비스, 주식, 부동산, 세관 브로커 등에 대한 서비스, 부동산 임차료, 창고 서비스료, 요식업 서비스료, 전신전화료, 은행 서비스료 등의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수입품은 수입 시 납부)을 포함한 각종 제품 판매 대금에 대해 12%가 적용되었다.
- 그러나 식품용이 아닌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일반 소비용 가축, 비료, 종자, 동물용 사료 등의 수입품, 천연가스나 석탄 및 그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엔진과 부품을 포함하여 5,000톤 이상의 여객선이나 화물선 수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06년 2월 1일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국가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10%에서 12%로 인상하였다. 이는 국가 재정회복 프로그램(Fiscal Recovery Program)에 따른 것으로 2%의 부가세 인상으로 연간 미화 15억 달러 상당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 금년 2월 9일 세계 3대 평가 기관 중 하나인 Standard & Poor's(S&P)사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정부 재정적자 폭 축소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 하여 종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 개인소득세 (Income Tax)

- 내,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소득 1만 페소 이하: 5%
- 1만 초과 3만 페소 이하: 500페소 + 1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10%
- 3만 초과 7만 페소 이하: 2,500페소 + 3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15%
- 7만 초과 14만 페소 이하: 8,500페소 + 7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20%
- 14만 초과 25만 페소 이하: 22,500페소 + 14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25%
- 25만 초과 50만 페소 이하: 50,000페소 + 25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30%
- 50만 페소 초과: 125,000페소 + 50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32%

라. 법인세 (Tax on Corporations)

- 필리핀 국내법인(domestic corporation)이나 필리핀 거주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은 과세대상 소득의 32% 납부해야 하고, 비 거주 외국법인(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은 35%를 적용한다.

마. 양도세 (Transfer Taxes)

- 부동산세(Estate Tax), 증여세(Donor's Tax) 등.

바. 특별소비세 (Excise Taxes)

- 주류, 담배, 석유제품, 기타 화장품이나 향수, 요트 및 자동차에 대해 적용된다.
- 광산물도 석탄, 코크스 등은 채굴 톤당 10페소에 연간 총 생산량의 실제 시장가격에 대해 2% 과세. 금, 크롬은 2%, 구리 및 기타 금속광물은 2% 이하 등 적용된다.
-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15%, 35%, 50%, 100%로 차등 적용된다.
-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이 2004년 말 인상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황

1993년 4월 13일 결정되어 신문지상에 공포된 중앙은행의 Circular No.1389로 외환의 자유화 조치로서 일부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외화 소지 및 자유로운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수출대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환 자유화 추진을 하고 있다.

필리핀의 외환보유고는 1995년 76억 달러, 1996년 116억 달러, 1997년 86억 달러, 1998년 106억 달러, 1999년 149억 달러, 2000년 129억 달러, 2001년 143억 달러, 2002년 162억 달러, 2003년에는 171억 달러, 2004년에는 162억 달러, 2005년에는 185억 달러, 2006년 230억, 2007년 337억, 2008년 6월 기준 36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최근 필리핀의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연간 140억불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15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외화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나. 외환 통제

필리핀으로의 투자 유입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국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 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일반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 거래 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의 철수, 투자의 회수, 현금 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 역할을 한다.

외국인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의 환율로 환산하여 현지 화폐로 계산되는데, 현금 투자 및 현 물 투자도 가능하다. 현물 투자의 경우 중앙은행 Circular 1318에 표기된 상품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 외국자본 및 기술에 대한 규제

1) 자본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대부금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면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국 자본 차입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중앙은행은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외국자본 차입 신청서는 중앙은행이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다.

모든 사기업, 주식회사, 금융기관, 정부기관은 외국자본 차입 현황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차입행위는 다음과 같이 자유화 및 단순화되어 있다.

- 서로 상이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사전 행정 처리는 폐지되었다.
- 구비서류 간소화
- 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보고서 제출요구는 분기 혹은 반기 1회로 변경되었다.

3) 기술계약

기술이전계약은 호텔 경영계약을 제외하고는 상공부의 특허, 등록상표, 기술 이전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기술이전 등기소(Technology Transfer Registr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copyright licenses는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금 계좌

법인은 증권거래 위원회(SEC) 또는 무역 산업부(DTI)에 등록을 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은 Alien Certificate Registration을 필히 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관련 계약이나 외국인 투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로열티, 임대료, 수수료, 배당금, 이익금, 기타 다른 무형의 지불금 등이 거래중지 계좌로 간주된다.

5) 자본금, 배당금, 이자의 본국 송금

외국인 투자는 중앙은행 혹은 투자자가 정식으로 지정한 보관은행에 등록되지 않으면 본국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분할 송환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다. 1992년 9월 1일부로 중앙은행은 사전승인 없이 중앙은행 투자등록증(DBRD)의 제출만으로 투자자본의 본국 송환 및 배당금, 이자의 송금이 가능하다.

중앙은행 Circular 1353에 의해 중앙은행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1973년 3월 15일 이전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인된 은행을 통하여 자본금의 본국 송환이나 투자에 따른 배당금 송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 대부금과 이자
 - 외환 대부금이 금융권으로부터 구입한 외국환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환 대부금으로부터의 수익금이 공인된 은행에 매각되어야만 한다. 외국환 대부금과 관련된 지불은 중앙은행 Circular 1277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선 대부금 성질의 일부를 차지하는 계약이나 계획에 대한 지불금도 포함된다.
- 로열티와 서비스 수수료
 - 로열티 및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자동 갱신조항이 없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 일정한 조건하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음), 제한적인 비즈니스 조항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 계약문구의 해석은 필리핀 국내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기본적으로 필리핀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과 상품의 가치성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한다. 최근 주요 소비품목으로는 액세서리, 의류, 휴대전화기 및 관련 상품 등 패션과 관련된 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2006년 12월에 필리핀 상업 도시인 마카티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상류층 소비자들에게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중산층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높은 가격대 분포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가전제품 회사에서의 꾸준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한국 업체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V와 기타 가정용 가전 제품으로는 일본과 미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핸드폰의 경우에는 노키아와 모토로라, 삼성, 소니 에릭슨 순서로 선호하고 있다.

다. 유망상품

1) 자동차

□ 품목명: 이노바 지(Innova G)



모델명	이노바 지(Innova G)
선정사유	2006 년 최다 판매 다목적 승합차
가격대	US\$18,600 ~ US\$20,900
브랜드	상
기능	가솔린 엔진(2.0), 자동변속
선호계층	중상류층
원산지	필리핀
유통구조	판매(딜러)

□ 히트 요인

토요타는 필리핀 소비자들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의 입지에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가격대비성능으로 나타났다. 현지 시장에서는 가격대비성능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요타 이노바(Innova)는 비오스(Vios)와 같이 2005년에 출시되었으며, 지난해 2006년에 최다 판매실적을 올렸다.

Innova G는 7인이 승차 가능한 가족형 밴으로서 대가족 사회인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라고 인식되고 있다. 기본 차량 규격은 4,555 * 1,770 * 1,755 mm(길이*폭*높이)으로 가족형 밴으로 알맞은 크기이며 승차감이 뛰어나다. 이노바 지는 2.0과 2.5 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동변속과 수동변속이 있다. 차량의 색상은 총 6가지이며,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는 색상으로는 은색과 초록색이 있다.

2) 음료

□ 품목명: C2 녹차



모델명	Ready-to-Drink Green Tea, 350ml ~ 500ml
선정사유	2006년 최다 판매 음료
가격대	US\$0.23 to 0.30
브랜드	중
기능	녹차 잎을 우려 만든 혼합음료
선호계층	15 ~ 50 세, 대중
원산지	필리핀
유통구조	도매, 딜러, 소매

□ 히트 요인

녹차 잎을 우려 만든 혼합음료로서 필리핀 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06년 최다 판매 음료로서 코카콜라사의 콜라의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었다. 녹차는 오랫동안 건강을 위한 음료로서 알려져 있다. 최근 필리핀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C2 녹차의 제조사인 Universal Robina Corporation는 미화 5억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반면 2003년 필리핀 코카콜라사의 판매액은 미화 5.53억 달러로서 제품출시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C2 녹차는 현재 4가지 맛의 제품(딸기, 키위, Lychee, Forest Fruits)을 생산하고 있다.

3) 커피숍

□ 품목명: 스타벅스



모델명	커피숍
선정사유	인지도가 높은 커피숍
가격대	음식 (US\$1.86~US\$2.75)/ 음료 (US\$1.47~US\$3.42) 기념품 (US\$5.39~US\$328)
브랜드	상
기능	스타벅스 로고
선호계층	18 ~ 42 세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대리점

□ 히트 요인

필리핀 전 지역에 걸쳐 105 개의 대리점이 있는 커피 전문점으로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경영의 영향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은 스타벅스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판단을 하고 있다.

주요 고객들은 학생과 비즈니스맨들로서, 평일에는 학업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곳에서 토론하며, 금요일과 주말에는 만남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대중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4)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 품목명: iPod Nano



모델명	아이팟 나노
선택사유	아이팟에 이어 출시된 제품으로 최다 판매 제품
가격대	US\$180 ~ US\$304
브랜드	상
기능	최대 8GB 메모리, 24 시간 연속사용, 6 가지 색상
선호계층	16 ~ 38 세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허가된 딜러

□ 히트 요인

2006 년 전반기에 애플사의 iPod 이 북미지역의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의 76%를 차지하였고, 미국 시장의 유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리핀 역시 iPod 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시장에서는 iPod 시리즈(iPod, iPod Nano, iPod Video, iPod Shuffle)중에서 iPod Nano 가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다.

iPod Nano 는 슬림(slim)디자인이고 2000 개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다. 색상은 총 6 가지로서 은색, 하얀색, 검정, 핑크, 녹색, 회색이 있다. 검정색과 하얀색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검정색 제품의 경우 8G 메모리 제품만이 출시되고 있다.

iPod 제품은 현지 중상류층 간에게 최고의 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프로모(Promo) 경품으로 내놓고 있다.

5) 신발

□ 품목명: Havaianas Rubber Sandals



모델명	Brasil
선정사유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
가격대	US\$12.00 ~ US\$14.00
브랜드	상
기능	편의성과 디자인
선호계층	18 ~ 32 세
원산지	Brazil
유통구조	신발 판매점 및 대리점

□ 히트 요인

Flip-flops 로 알려진 샌들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다시 좋은 호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불편한 하이힐을 자주 신는 직장여성들이 사무실에서 편하고 활동이 자유로운 샌들을 선호하고 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어필되고 있는 샌들에는 Brazilian Havaianas 샌들이다. 이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호응을 받게 된 이유로는 편의성과 디자인이다. 가격은 다른 샌들 제품보다 10 배가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High-Look 스타일로서 약 6 cm의 굽이 있는 샌들이다. 색상은 총 8 가지이며, 이 중 금색과 은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Sulf 용 샌들을 선호하고 있다. 남성용 샌들은 단순한 디자인과 옐로우 색상이 있다.

6) 휴대폰

□ 품목명: 노키아 (Nokia) N70



모델명	Nokia N70
선정사유	노키아 N 시리즈 중 최다 판매
가격대	US\$390.00
브랜드	상
기능	3G, MP4, 디지털 카메라
선호계층	26~38 세, 비즈니스맨
원산지	핀란드
유통구조	딜러, 판매 대리점

□ 히트 요인

노키아(Nokia) 휴대폰은 현지 휴대폰 시장에서 90%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이 노키아 휴대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용자 편의성과 훌륭한 디자인, 그리고 우수한 성능 등이 있다.

노키아 휴대폰 중 N70 과 그 후속 모델인 N73 이 2006 년 한 해 동안 최다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모델들은 훌륭한 디자인과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

N 시리즈는 하이 앤드 제품으로서 3G, MP4, 3.2 백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N73 의 대기시간은 350 시간이며 통화시간은 5 시간이다. N70 은 대기시간 265 시간, 통화시간 3 시간 30 분이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휴대전화 3 대 통신사(Globe, Smart, Sun)는 지원되는 휴대전화 모델을 각기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N 시리즈의 제품은 통신사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7) 게임

□ 품목명: Defense of the Ancients (DotA)



모델명	Ver. 6.276
선정사유	현지에서 가장 폭넓게 알려져 있는 게임
가격대	인터넷 카페 (US\$0.40 to US\$1.20)
브랜드	중
기능	온라인 or LAN 플레이
선호계층	13 ~ 27 세의 남성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Publisher Asia Media Development Group

□ 히트 요인

한국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Ragnarok)가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 이후 많은 게임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2006 년 한 해 동안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들인 Defense of the Ancients (DotA)와 ALL-STARS 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도타(DotA)라고 알려진 Defense of the Ancients 는 게이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으로서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 플레이어들이다.

현지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게임의 요소로는 그래픽의 완성도와 빠른 접속 및 반응 속도로 대다수의 게이머는 자택에서 아닌 인터넷 카페에서 플레이하고 있다.

2. 물가정보

가. 마닐라(필리핀) 기초 통계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인당 GDP(USD)	1,044	1,121	1,253	1,472	1,777
명목 물가상승률(%)	3.4	5.7	7.0	5.5	2.8
명목 임금상승률(%)	-	7.0	8.0	7.0	3.4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54.20	56.04	55.09	51.31	46.15

나. 마닐라(필리핀) 물가정보(1 USD = 43.86 PHP)

번호	항 목	가격(USD)			
1. 식재료			5.1	식용유 1L	2.42
1.1	쌀 1kg	1.30	5.2	올리브오일 1L	10.05
1.2	밀가루 1kg	1.80	6. 과일		
1.3	백설탕 1kg	0.80	6.1	사과 1kg	0.39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1.40	6.2	오렌지 1kg	0.27
1.5	계란 12 개	1.28	6.3	레몬 1kg	0.18
1.6	햄 1kg	0.93	6.4	바나나 1kg	1.12
1.7	베이컨 1kg	8.23	7. 채소		
2. 육류			7.1	양배추 1kg	1.71
2.1	쇠고기 등심 1kg	16.64	7.2	양상추 1kg	0.74
2.2	쇠고기 안심 1kg	7.84	7.3	당근 1kg	1.14
2.3	돼지고기 목살 1kg	7.66	7.4	양송이 버섯 1kg	12.53
2.4	돼지고기 등심 1kg	8.89	7.5	감자 2kg	1.65
2.5	닭고기 가슴살 1kg	3.19	7.6	양파 1kg	1.20
3. 어패류			7.7	토마토 1kg	2.71
3.1	냉동새우(중간 크기) 1kg	16.64	8. 과자 및 당류식품		
3.2	대합조개 1kg	-	8.1	스낵과자 130g	1.03
3.3	연어(생) 1kg	12.95	8.2	초콜릿 100g	0.76
3.4	냉동참치 1kg	12.04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2.63
4. 낙농품			9. 음료		
4.1	우유 500ml	1.87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0.41
4.2	요거트 150g	0.89	9.2	생수 1L	0.68
4.3	치즈(슬라이스) 500g	5.18	9.3	오렌지주스(100%) 1L	1.35
4.4	버터 500g	7.47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2.05
4.5	마가린 500g	0.95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2.17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1.57	9.6	인스턴트 커피 125g	1.23
5. 유지			9.7	Ground 커피 500g	12.46
			9.8	홍차 티백 25bags	1.67

9.9	코코아 250g	2.30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1,356.60
10. 주류			15.2	침대 쿼 사이즈 매트리스	1,482.00
10.1	맥주 355ml 캔 6 팩	1.91	16. 의료비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86.64	16.1	의료보험료 4 인 가족 1 년	4,560.00
10.3	와인 750ml	19.15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13.68
11. 담배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무료
11.1	담배 1 갑	0.80	16.4	진통제 10 정	1.25
12. 패스트푸드			16.5	해열제 100 정	3.65
12.1	햄버거 1 개	1.98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15.96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2.62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17.10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5.91	16.8	제왕절개수술	798.00
13. 잡화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3.1	치약 150g 1 개	2.74	17.1	경승용차 900~1,299cc	9,690.00
13.2	샴푸 400ml	3.56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13,110.00
13.3	칫솔 1 개	2.30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23,598.00
13.4	화장비누 1 개	2.74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36,708.00
13.5	면도기 1 개	5.44	17.5	초대형 3,500cc 이상	273,600.00
13.6	전기 면도기	57.00	17.6	무연휘발유 1L	1.06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3.16	17.7	LPG(단위부피당)	13.29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1.11	17.8	경유 1L	0.88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3.32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114.00
13.10	세탁용 세제 3L	4.16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36.48
13.11	섬유 유연제 1L	3.05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912.00
13.12	주방용 세제 750ml	1.99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57.00
13.13	살충제(스프레이식) 330g	4.39	18. 교통비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5.24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0.23
14. 의류 및 신발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0.27
14.1	남자정장	2,485.20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0.27
14.2	여자정장	-	18.4	택시 기본요금	0.68
14.3	여성핸드백	2,553.60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0.06
14.4	아동복	-	18.6	철도이용료(100km)	0.96
14.5	청바지	71.82	19. 통신이용료		
14.6	남자코트	0.00	19.1	전화 개통비 1 회선	45.58
14.7	여자코트	0.00	19.2	전화 사용료 월 기본요금	15.96
14.8	티셔츠	142.04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0.86
14.9	신사화	531.24	19.4	국제전화 3 분	3.08
14.10	숙녀화	649.80	19.5	휴대전화 개통비	2.28
14.11	드라이클리닝(정장 한 벌)	6.16	19.6	휴대전화 사용료 월 표준 1 분	0.15
15. 가구			19.7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무료

19.8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22.78	23.1	유치원 수업료 1 년(사립)	1,596.00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80	23.2	초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710.00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2.51	23.3	중학교 수업료 1 년(사립)	0.00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13.68	23.4	고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824.00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23.5	국공립 대학교	2,052.00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1,504.80	23.6	사립 대학교	3,420.00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1,846.80	23.7	전문대학	684.00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2%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 년	9,980.00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24%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 년	11,000.00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0.12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 년	13,510.00
20.6	가정용 가스요금 m ³	없음	24. 외식 및 숙박		
20.7	가정용 수도요금 m ³	0.02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93.48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15.50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266.76
21. 가전제품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62.63
21.1	LCD TV 40 인치	2,279.98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34.20
21.2	DVD Player 범용형	79.78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10.26
21.3	냉장고 600 리터급	501.55	25. 스포츠		
21.4	세탁기 10kg(드럼형)	1,593.72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45.60
21.5	전자레인지 20 리터급	105.97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20.52
21.6	에어컨	832.18	25.3	피트니스 클럽 1 년 이용료	681.72
21.7	토스터기 1 개	29.53	26. 임금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1,219.71	26.1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11.40
21.9	데스크탑 본체	674.77	26.2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11.40
21.10	노트북	1,593.72	26.3	생산직 일반 초임(학력 무관)	9.12
21.11	컴퓨터 프린터기	296.29	26.4	가정부 시간당 임금(주중)	1.14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6.5	베이비시터 시간당 임금(주중)	2.28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5.93	27. 이미용 서비스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성인)	2.74	27.1	여성 헤어컷 1 회	15.96
22.3	DVD 타이틀 1 개(신작 기준)	29.62	27.2	남성 헤어컷 1 회	3.42
22.4	도서 1 권(신작 소설)	7.18	28. 화장품		
22.5	공연 best seat (뮤지컬, 대형극장 기준)	68.40	28.1	바디로션	6.38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기준)	8.09	28.2	영양크림	138.67
22.7	해당국 유력 일간 신문 1 년 구독료	151.76	28.3	스킨로션	50.84
23. 교육			28.4	밀크로션	62.86
			29. 관공서 요금		
			29.1	여권 발급 비용	45.60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7.07
			30. 노무환경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생산직 48시간

		사무작 40 시간
30.2	출산휴가일수	30 일
30.3	연간 국경일수	14 일
30.4	토요휴무제	기업별 상이

* 비교

1.2	800g
1.6	100g
4.5	250g
6.1	개당 가격
6.2	개당 가격
6.3	개당 가격
8.3	275g
9.1	330ml 1 캔
9.6	100g
9.7	1kg

9.9	200g
10.1	개당 가격
13.10	2kg
13.12	500ml
13.13	500ml
14.1	유사제품
16.4	650ml
16.5	100ml
19.5	Sim 카드 구입비용
26.1	일급 기준
26.2	일급 기준
26.3	일급 기준
28.1	250ml
28.2	75g
28.4	75ml

3.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

- 농산물 협회
 - Central Luzon Egg Producers Association
 - Federation of Cattle Raise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National Federation of Producers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Association of Hog Raisers, Inc
 - United Broilers Raisers Association
- 자동차 부품 협회
 - Association of Consolidated Automotive Parts Producers, Inc
 -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 Motor Vehicles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s Association of Battery Manufactures
 - Philippines Automotive Federation
 -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화학 및 화학 제품 협회
 - Chamber of Cosmetic Industry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s Oleo-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Samahan sa Pilipinas ng mga Industriyang Kemika

- 건축 협회
 - Ce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hamber of Real Estate and Builders Associations
 - Philippines Constructors Association
- 패션 액세서리 협회
 - Association of Accessory Manufacturers and Exporters of the Philippines
 - Association of Philippines Leather goods Exporters and Manufacturers
 - Meycauayan Jewelry Industry Association
 - Philippines Jewelry Business Club Foundation
 - Tanne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프랜차이즈 협회
 - Association of Filipino Franchisers
 - Philippines Franchise Association
- 가공 식품
 - Association of Coconut Brokers
 - Association of Philippines Coconut Desiccators
 - Beverage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hamber of Flour Millers
 - Coconut Refiners Association
 - Fresh Frozen Seafood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Integrated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Organic Producers Trade Associations
 - Philippine Association of Flour Millers, Inc
 - Philippine Association of Meat Processors, Inc
 - Philippine Coconut Oil Producers Association, Inc
 - Philippine Food Processors and Exporters Organization, Inc
 - Philippine Sugar Millers Association, Inc
 - Seaweed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United Coconut Associations of the Philippines, Inc
- 가구
 - Albay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Cebu Furniture Industries Foundation, Inc
 - Chamber of Furniture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 Negros Occidental Chapter
 - Chamber of Furniture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 Pampanga Chapter
 - Chamber of Furniture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 Vigan Chapter
 - Iloilo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의류, 원단 및 유사 제품
 - Confederation of Garment Exporters of the Philippines
 - Garment Busin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Home Textil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Textile Mill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선물, 장난감 및 가정용 그릇
 - Christmas Décor Produc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ube Gifts, Toys and Houseware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Inc
 - GTH –Bulacan
 - Home Accents Group of the Phils., Inc
 - Philippine Chamber of Handicraft Industry, Inc
 - Pottery Export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Wooden Gifts and Accessories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호텔과 식당
 - Hotel and Restaura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정보 기술, 전자 제품과 서비스
 - Computer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eal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Federation of Electrical & Electronics Suppliers & Manufacturers of the Phils. Inc
 - Integrated Telecommunications Suppl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Appliance Industries Federation
 - Philippine Association of Electrical Industries, Inc
 - Philippine Electric Wires Manufacturers Association
 - Philippin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Federation
 - Semiconductor Electronics Industry in the Philippines, Inc
- 금속 제품
 - Agricul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 Foundation, Inc
 - Metalworking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Manila Chapter
 - Philippine Die and Mold Association, Inc
 - 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
 - Philippine Metalcasting Association, Inc
 - Philippine Nail Manufacturers Association
 - Philippine Steelmakers Association
 - Pipes and Tube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Incorporated
 - Tin Can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비금속 제품
 - Glas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Rubber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기타
 - Association of Firearms and Ammunition Dealers of the Philippines
 -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 Foreign Buy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Association of Feed Millers, Inc
 - 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
 - Philippin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Philippine Product Safety and Quality Foundation, Inc
- Philippine Tropical Fish Exporter's Association
- 포장
 - Packaging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 종이 제품
 - Association of Paper Traders of the Philippines
 - Pulp and Paper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석유
 - Association of Petrochemicals Manufacturing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Liquefied Petroleum Ga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 Petroleum Sea Transport Association
- 의약품
 -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원자재 의존 제품
 -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 Federation of Cutflowers and Ornamental Plant Growers of the Philippines, Inc
 - Philippine Wood Producers Association
- 소매
 - 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hilippines Amalgamated Supermarkets Association
 - Philippine Association of Supermarkets, Inc
 - Philippine Retailers Association
- 서비스
 - Advertising Board of the Philippines, Inc
 - Cold Chain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 Confederation of Truc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Contact Cente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Medical Transcription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
 - Philippine Association of Convention/Exhibition Organizers and Suppliers
 - Philippine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Inc
 - Philippine Liver Shipping Association
 - Printing Industrie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Prod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Screenprinting and Imaging Graphic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SPA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나. 기타 방법

필리핀 전화국(Philippines Long Distance Telecom; PLDT)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 책자 (Yellow book)를 통해 알 수 있다.

다. 각종 홈페이지

각종 검색 엔진 및 회사 홈페이지에 필리핀 바이어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으나 검색어를 (관심 분야 및 제품)+import+philippines로 입력할 시 쉽게 찾을 수 있다.

라. DB 활동 등 온라인,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 온라인
 - 최근 B2B 웹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필리핀 바이어가 등록되어 있는 웹사이트로는 알리바바(www.alibaba.com)으로서 2007년 2월까지 365개의 바이어와 셀러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 필리핀 무역 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제공하는 CITEM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 and Missions; www.citem.com.ph)을 통해 바이어를 확인 할 수 있다.
- 오프라인
 - 필리핀 무역 산업부(DTI) 및 한인 경제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바이어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복장

-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갖추면 정장으로 간주된다. 상의는 입지 않아도 무방하나 건물 내에서는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므로 상담장에서 종일 상담하는 경우 상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전통 의상인 ‘바롱 타갈로그’를 입고 상담에 응한다면 친밀감을 줄 수 있다.

2) 인사

- 영어 인사도 괜찮지만,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따갈로그(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기본 회화

영어	따갈로그	발음
Good Morning	Magandang Umaga	마간당 우마가
Good Afternoon	Magandang Hapon	마간당 하폰
Good Evening	Magandang Gabi	마간당 가비
How are you?	Kumusta po kayo?	꾸무스타 뽀 까요?
I am fine	Mabuti po	마부띠 뽀
Thank you	Salamat po	살라맛 뽀

- 상담자의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상담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선물

- 두터운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저렴한 한국의 전통차나 기념품 등을 선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 인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
- 대체적으로 현지 회사 사장 및 주요 간부들에게는 비서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들과 상담하여 선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문화적 금기 사항

일반적으로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으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함. 특히 성질이 급한 한국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하기에는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언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될만한 일’에 언성을 높이더라도 현지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일로 받아들인다. 또한 손가락이나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직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야단을 치면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불러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므로 종업원은 누구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인 방문객들이 현지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는 사건들이 현지 언론에도 계속 보도된 바 있어 현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유흥가에서 마치 한국에서처럼 과격하게 행동하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이나 경비원들이 권총을 발사할 수도 있고 현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스려지게 되므로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그 외 남부 민다나오 섬의 회교권에서는 회교 율법에 의한 금기사항이 있으나 다른 지역은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필리핀의 수입은 대략 50% 정도가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은 통상 독점권을 요구한다. 이 경우 독점권은 해당상품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창구를 하나로 독점한다는 의미이며 대리점등이 해당 브랜드의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통상 대리점은 수 가지의 상품 또는 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

유통업체들은 재고의 보유를 극히 꺼려 소량 반복 구매를 하므로 신속한 배송이 중요하다. 현지에서 가구나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구점이나 사무용기기 판매점을 접촉해보면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재고가 있더라도 곧바로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되어 새로 수입품이나 제작품이 들어올 때까지 두 세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4월(부활절), 12월(크리스마스, 연말모임)에는 수입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기업주들이 해외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상담이 어렵다. 중화학공업 제품이나

산업용 제품 등의 경우 수입상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보다 주요한 구매조건이 된다. 화교계 상인들은 해외거래선 구축 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계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표면적으로 무역 거래상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간혹 세관에서 기존에 거래가 없던 신규로 들어오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높은 관세로 측정하고 있다. 사전에 관련 법규 및 관세율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방 은행, 대중 매체, 전문 직종에서의 직업 행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나 지분소유가 금지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영역에 있어 100% 외국자본 투자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네거티브 리스트 C에 포함되더라도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100% 외국인 투자 가능. 세부적인 투자제한 내용은 국가 정보 내 '투자' 항목(V) 내 '1. 주요 투자법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현지 업체의 대금 결제 미지급 사례

최근 국내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바이어가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동 거래의 대금결제 조건은 L/C 50% 및 현금결제 50%이고, L/C 대금은 현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나, 현지업체가 물품 인수 후 3개월이 경과토록 대금지불을 지연시키며 결제를 거부하였다.

현지업체 주장은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인데, 거래 초기에 국내업체가 제시한 샘플과 비교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었고, 국내업체는 바이어가 요구한 사양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제품 상태가 불량하다면, 바이어가 제시한 사양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지업체가 지속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 버림에 따라 동 분쟁은 국내업체가 손실 전부를 감수하고 종료되었다.

현지업체가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대화를 중단할 경우 국내업체나 당관이 바이어를 접촉하여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지 치안이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 사무실 및 주택 입구에 경비원이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고, 방문자는 입구에서 면담자의 허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업체가 현지업체의 책임소재를 추궁하며 몰아부침에 따라, 전화 및 핸드폰 수신을 거부하고, 국내업체의 업체방문도 거절하여 협상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이다.

나. 구체적인 계약내용 미 숙지 사례

현지업체가 무선 인터넷 다운로드가 가능한 핸드폰 단말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에 요구한 구매 희망 제품 사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초기부터 요구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다운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고, 제품에 불만을 느낀 현지업체가 제품 전량 회수 및 기 지급 선금분 환불을 요구한 사례이다.

국내 업체는 부가적인 연결 장치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를 구현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현지 업체가 요구한 사양에 맞춰 별도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판매도 불가능하므로 제품 회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핸드폰 단말기를 수출한 국내업체가 무역업체로서, 제품의 특성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현지업체가 한국업체와 더 이상의 거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사례이다.

다. 현지 독점권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

현지업체에 냉온수기를 수출한 국내업체가 현지 업체에 조건부 독점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독점권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현지업체가 불명확한 계약내용을 발미로 지속적인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내업체의 현지진출이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수년 전 국내의 대표적인 냉온수기 업체가 자사 브랜드 사용권한을 현지업체에 부여하면서 취급가능 제품 모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독점권 취소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국내업체의 내부 여건상 자회사 성격의 협력업체에 브랜드 사용권한을 제공하면서, 취 협력업체와 취급모델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현지업체와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규모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거래중단을 통보하였다.

최근 브랜드의 원소유권이 있는 업체의 협력업체가 현지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현지업체가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동 국내업체의 현지진출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내업체는 모 기업격인 브랜드 원 소유업체에 확인한 결과, 현지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됨에 따라, 독점권 사용권한도 함께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현지 업체는 독점권 사용권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현지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선통보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년째 해당 브랜드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진출하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내업체가 진출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락 되기는 하였지만 현지업체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거래선 전환 및 진출전략 재설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제한조건 및 독점권 회수절차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 사례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 집 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적은 지역이다.
-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면 중개업체가 자세한 리스트를 제시해 주며, 각 주택을 일일이 동반하여 안내해 준다.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 임차료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집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거나 해외여행 등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애로를 겪게 될 수 있는 바, 중개업자를 가운데 두고 계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약 시 수리 등의 문제, 퇴거 시 원상복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임차 시 보통 1년 선불로 계약하며 임차보증금은 대체로 2개월 분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14개월 분이 소요된다.

나. 은행계좌 개설

- 달러화 및 현지화 계좌를 개설함. 가급적이면 지점이 많은 대형은행(UNIVERSAL BANK 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여권을 챙겨서 가져가도록 한다. 현지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임차료 등 고액경비나 공과금, 현지직원 급여 등을 회사수표나 개인수표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며 Crossed Check의 경우 도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인출기(ATM)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다. 전화신청

- 주택 임차 시 통상적으로는 그 집에 가설되어 있는 전화선을 사용하므로 별도 전화 번호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 전화를 신청하려면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 PHONE)의 경우 장시간이 걸리므로 GLOBE TELECOM 등 타 LAND LINE TELEPHONE 전화를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단시간에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 비품 구입

- 자신이 소유한 비품의 과다를 따져 주택 임차 시부터 FURNISHED 여부를 체크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좋다.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UNFURNISHED가 아파트 (콘도 미니엄으로 부름)의 경우 SEMI-FURNISHED가 일반적이다.
- 가구나 비품을 살 경우 대부분 제품이 수입품이어서 매우 비싸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상관행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가 여의치 않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로 계절은 건기(11~4월/루손 섬 기준,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와 우기로 나누어짐. 연평균 강수량 2,030mm, 연평균 기온 25도(24~31도), 습도 70~85%의 기후 특성을 보인다.

2) 풍토병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말라리아(Palawan 섬), 뎅기열병, H-Fever, 해산물 특히 조개류에 의해 감염되며 치사율이 높은 레드타이드(Red Tide) 등이 있다.

3) 주요 지역의 기후

지역별 연평균 기온 (섭씨 기준)

구분	필리핀 평균	루손섬	비사야	민다나오
최고기온	33.0	33.0	33.3	33.7
최저기온	21.3	21.0	21.6	21.1

지역별 강수량(mm) 및 강우일

구분	필리핀	루손섬	비사야	민다나오
총강수량	36,284	11,823	12,454	12,007
총강우일	137	147	132	132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 1시간'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다.

2) 근무시간

- 일반 직장, 정부관공서의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8:00-17:00까지 이다.
- 은행은 09:00-17:00까지 근무하나 실제 고객이 이용 가능한 시간은 15:00까지 이다. 달러화를 인출할 경우에는 14:00에 업무가 종료된다.
- 일반상점은 10:00-20:00까지 영업한다.
- 관공서, 은행, 국영 기업체 및 사무실 등은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공장은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요금 절약을 위해 2005년 4-5월 두 달간 정부 공무원 (민원부서 일부 제외)은 월-목까지 주4일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함)

-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가 보통이며, 15:00~16:00까지는 간식(미리엔다 타임)이 있다.
-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우기인 경우 집중호우가 있을 시 관공서, 사무실 등은 일찍 문을 닫고 직원들을 조기에 귀가 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도한 폭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관공서가 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메트로 마닐라 일대에 저지대 (특히 마닐라 지역)가 많고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일이 많아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다. 주요 단위

	단 위	비 고
거리	Kilometer(Km)	Mile도 혼용하고 있음
무게	Kg	일부 사람들은 파운드(lb) 사용
길이	Inch	
전기규격	220V/110V 경용(60Hz)	*플러그 모양이 다르므로 traveler's jack구입 요망 *수도권 외 지방은 전기공급업체에 따라 다름.
온도	섭씨(°C)	
면적	Square meter(m ²)	

라. 출입국 비자

1) 비자

방문기간이 21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 시는 출입국 사무국(이민국)에 21일이 경과하기 전에 여권과 함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59일 이상) 등이 있음. 체류 예정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 59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민국 통과 시 '21일'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으므로 이민국 통과 시 스탬프를 찍어 주면 그 자리에서 59일짜리인지 확인하고, 만약 21일짜리로 되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근 들어 59일짜리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았더라도 입국 시 이민국에서 21일짜리로 여권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자 기한은 이민국 고유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정중하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 통과 시 이민국 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나 그 무례한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로 인해 강제 출국당한 사례 있음).

비자 종류별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gov.ph/faqs/visa.asp> 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2) 비자 발급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dd : 34-44 Itaewon-1 dong, Yongsan gu, Seoul, Republic of Korea
 - Tel: 02) 796-7387~9, Fax: 02) 796-0827
 - Ambassador: Susan O. Castrence
 - 근무시간: 09:00-12:00 & 12:30-17:30(토요일 휴무)
- 필리핀 출입국 사무국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
 - Add: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527-3265 / 527-5371
 - 근무시간: 오전 8:00 - 정오 12:00, 오후 1:00 - 오후 5:00

3) 출입국 절차

□ 입국

입국 시에는 기내를 나서서 입국 심사대를 거쳐 수화물을 찾고 세관심사를 마친 후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

입국 심사 시는 외국인 전용 라인을 이용해야 하며 입국신고서와 함께 여권, 항공권을 제시 (무비자로 입국하는 21일 이하 체류 관광객의 경우는 출국용 항공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세관 심사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는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참고: 1인당 담배 2보루, 주류 2병은 면세). 블루라인을 통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등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즈니스 출장으로 샘플이 과다할 경우 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카톤 박스에 샘플을 담아오는 경우 개봉요구 가능성이 많음), 목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하면 대개는 그냥 통과된다.

전시품의 경우라도 보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 세금을 납부하고 입국했더라도 출국 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세관심사 후 출입문 입구에서 공항직원이 수화물 번호와 해당 수화물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화물 번호표를 회수하므로 반드시 수화물표를 보관해두어야 한다(반복적인 확인으로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내 짐을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수화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공항당국에 입국기편, 수화물 내용, 수령할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고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해야 한다.

마중객은 공항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Terminal 2(필리핀항공 전용공항)에서는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앞에서 마중객들 만날 수 있으며, 공항 내 택시 서비스 티켓 발급소에서 승차권을 구입(거리 정액제)하여 택시에 탑승할 수 있음. Terminal 1(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외국항공 전부)에서는 공항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건너편에 택시회사 부스들이 있어 이곳에서 택시를 타면 되며, 마중객이 있는 경우 Waiting Area (A to Z)로 걸어 내려가야 만날 수 있다. 현지 여행사에서 마중 나오는 경우에도 이곳까지 내려와야 한다.

마중객이나 여행사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참고로, 이곳에서 현지인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경우 실제 통화료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므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휴대전화로는 발신이 안 되는 공중전화도 많으나 공항 내에는 휴대전화로도 발신 가능한 전화기가 있다.

□ 출국

항공권이 없으면 공항 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탑승 수속 시 환송객은 동행하지 못한다. 공항 건물 진입 시 여권과 함께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수화물의 X-RAY 투시기 통과 및 탑승객의 금속탐지기 통과 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발송하고 항공기 탑승권(보딩 패스)을 수령한 후 출국 심사장으로 진입하며 출국 심사 전 1인당 790페소 공항 이용료를 납부한 후 출입국 심사대로 간다. 출국 심사대에 출국 신고 서와 함께 여권, 탑승권, 공항 이용료 영수증을 제시한다 (59일 이상 체류한 여행자는 별도로 ECC 1,010페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국심사를 마치면 면세구역 내로 진입케 되며 이곳에서 탑승권에 명기되어 있는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마. 환율/환전

1) 통화 단위

- 통화 단위는 페소(PESO)로서 약칭은 P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이다.

2) 종류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로는 1,000 페소, 500 페소, 200 페소, 100 페소, 50 페소, 20 페소가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었던 10 페소와 5 페소 지폐는 화폐 가치를 잃어버렸음. 동전은 10 페소, 5 페소, 2 페소, 1 페소, 50 센타보, 25 센타보, 10 센타보, 5 센타보, 1 센타보.

3) 환전 요령/장소

- 호텔, 은행(여권 지참), 환전상이 산재해 있으며, 각각 환율이 다름. 대개 시중 사설 환전소의 환전율이 제일 높다. 환전소가 곳곳에 있는 이유는 해외파견 근로자(OFW)들의 달러화 송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가족, 친척들이 수시로 환전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환전소 이용객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바 환전소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환전 시 화폐를 순식간에 바꿔 치기 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운터에서 즉시 금액을 확인할 필요 있다. 출장자나 여행객 입장에서는 환전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에서 환전하도록 권장한다.
- 시간대 별로는 주로 목요일 중의 환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특히 주말이나 은행 근무 시간이 끝난 오후의 환율은 낮은 편이다.

4) 신용카드 사용

- AMERICAN EXPRESS 제휴사의 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VISA 카드가 보편되고 있다.
- 전압이 일정하지 않아 현금 출금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카드 사용에 각별한 주의 바란다.

5) 소매치기 주의

-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 환전 및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한 주의 바란다.

바. 교통/통신

1) 한국-필리핀 직항편

비행기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되며, 시간표(2006년 12월 기준)는 아래와 같다.

☐ 인천 -> 마닐라

- 대한 항공: 20:10-22:50 (월화수금토일)
- 아시아나 항공: 09:00-11:50 (매일), 19:45-22:50 (월수금일)
- 필리핀 항공: 20:20-23:20 (매일)
- 세부퍼시픽 항공: 21:20-00:20 + 1day (월화금토)

☐ 마닐라 -> 인천

- 대한 항공: 12:10-16:50 (매일), 00:10-04:50 (월화수목토일)
- 아시아나 항공: 13:00-18:00 (매일), 23:50-04:40 + 1day (월수금일)
- 필리핀 항공: 14:15-19:15 (매일)
- 세부퍼시픽 항공: 15:05-20:05 (월화금토)

☐ 인천 -> 클라크

- 아시아나 항공: 20:45-23:40 (화수금토일)

☐ 클라크 -> 인천

- 아시아나 항공: 01:00-06:00 (월수목토일)

☐ 부산 -> 마닐라

- 아시아나 항공: 21:00-23:40 (화목금일)
- 필리핀 항공: 19:45-22:30 (월수목금토일)

□ 마닐라 -> 부산

- 아시아나 항공: 04:00-08:30 (월수금토)
- 필리핀 항공: 14:00-18:45 (월수목금토일)

□ 인천 -> 세부

- 아시아나 항공: 20:20-23:50 (수목토일)
- 필리핀 항공: 21:45-01:10 + 1day (수목토일)

□ 세부 -> 인천

- 아시아나 항공: 00:50-06:20 (월목금일)
- 필리핀 항공: 15:20-20:45 (수목토일)

2) 국내 교통

교통 수단의 노후화, 더운 열대기후, 대중교통 수단 미 발달, 치안 불안 등의 이유로 외국인, 특히 비즈니스맨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 및 비행기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간 이동 시 내국인은 배를 주로 이용하며 안전이나 시간 면에서 외국인 및 상류층은 비행기를 이용한다.

장기노선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역내 짧은 거리는 지프니(JEEPNEY)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지프니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버스도 냉방시설이 없는 것이 많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를 감안, 이용할 만한 교통 수단은 택시 및 에어컨 버스 정도이며 택시의 경우도 가능하면 호텔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부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호텔 벨보이에게 차량번호를 인지토록 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택시

외국인 방문객이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피하려면 입국 시 공항건물 바깥에서 탑승 쿠폰을 구입하여 쿠폰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상이 하나 메트로마닐라의 '마카티 시'까지의 요금은 500페소 정도이다.)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다.

□ 교통 수단 별 요금

- 택시
 - 기본요금 30.0페소 + 2.50페소/200미터
 - 택시요금 계산시 미터기에 나온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지프니: 7.5 페소 (기본 3KM) + 0.50 또는 1페소 (추가KM당)
- 에어컨 버스 - 10페소/ZONE
- 버스요금은 버스회사 및 노선에 따라 다르다.
- 경전철(기본요금): LRT - 12페소/ONE WAY, MRT - 9.5페소/ONE WAY

3) 국제 통신

근래 들어 사정이 많이 좋아졌으나 시설의 낙후로 잘못 연결되거나 회선의 부족으로 '통화 중' 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특히 우기에는 침수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전화번호를 올바르게 돌려도 "The Number you dialed is not yet in service"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Sorry, the line is busy now"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잦음.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도중에 통화가 끊기거나 상당기간 불통이 되는 경우도 빈발하다.

□ 한국과의 통화방법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의 통화

- 국가번호 63--->지역번호(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가입자번호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통화 시에는 필리핀 국가번호 63, 지역번호(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 가입자 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 휴대전화로 걸 때는 국가번호(63)→휴대전화 사업자번호(앞의 0을 빼고 916, 917, 919, 927 등)→가입자 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

- 국제전화 접속번호 00 ---> 국가번호 82 ---> 지역번호(서울일 경우 2) ---> 가입자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 단 국제전화는 국제통화가 허용된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함
- 시간대 별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통화가 용이한 반면 근무 시간대 및 저녁 시간대에는 체증이 심하다.
- 필리핀 교환을 통한 국제전화 신청 시는 108을 다이얼링한다.

○ 한국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통화(COLLECT CALL)

- 10582(한국통신), 10587(데이콤 안내), 105087(데이콤 직통), 105823(온세통신) 등을 다이얼링한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통화를 하려면 0번을 눌러 교환을 부른 다음 교환원에게 10582 또는 10587 등의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 된다.

4) 국내 통신

공중전화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시내 거리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커머셜 센터 같은 공공장소 등 매우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전화사무소를 찾아 신청 후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카드 전화기는 공항 내 및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유선전화 보급률이 2004년에는 100명당 7.8대 수준으로 매우 낮음. 총 보급회선은 647만 회선이나 전체 가입자는 344만 회선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화가 있는 이웃집을 통해 전갈을 받는 경우도 많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는 3천 500만여 명(필리핀 국가 통신위원회 자료)이며 선불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저가 보급형이 주류이다.

사. 호텔/식당

1) 호 텔

필리핀 관광부는 176개 호텔, 60개 Inn, 11개 Apartel 및 113개의 리조트에 총 18,92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편이 저렴하다. 다만, 호텔측에서 이따금 과도하게 예약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하려는 시점에서 객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성수기나 행사가 몰려있어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 하려면 객실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급 호텔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 19개 정도가 있으며 WALK-IN GUEST의 경우 보통 싱글 US\$ 135 - US\$ 250, 더블/트윈 US\$ 280 - US\$ 330 (서비스 료와 세금제외) 수준이다.

□ 1급 호텔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 16개 정도가 있으며 WALK-IN GUEST의 경우 싱글 US\$ 60 - US\$ 150, 더블/트윈 US\$ 70 - US\$ 160 (서비스 료와 세금제외) 수준이다.

□ 기타

기타 메트로마닐라 지역에는 70개의 STANDARD 호텔과 70개의 Economic호텔이 있으며 그밖에 장기체류자를 위한 아파트 형태의 호텔인 아파텔 및 Pension하우스 등이 있다.

그 외 현지 교민들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기거하는 경우 한국식 식사(아침, 저녁)와 의복 세탁까지 해주는 곳들이 있으므로 장기 투숙자는 이용할 만 할 것이다. 하숙집은 현지 교민 신문들에 광고가 게재되며, 교민신문들은 인근 한국 식당이나 한국 식품점들에서 입수할 수 있다. 교민지에는 현지 한국계 여행사 광고 등 각종 영업점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주요 호텔 객실요금 (할인 전 정상요금)

(단위: US\$)

호 텔 명	SINGLE ROOM	DOUBLE/TWIN	전화번호
Shangri-la Makati	197.39	228.04	813-8888
Inter-Continental	150	150	815-9711
Peninsula	116.14	141	810-3456
Mandarin Oriental	194.93	182.67	750-8888
New World Renaissance	120	120	811-6888
Shangri-la EDSA	158	184	633-8888
Diamond	110	110	528-3000
Westin Phil. Plaza	151	151	551-5555
Hyatt Regency	86	86	833-1234
Manila Hotel	101	101	527-0011
Dusit Hotel Nikko	125	125	867-3333
Trader's Hotel	159	183.13	523-7011
Manila Pavilion	89.76	89.76	526-1212

주1: 상기 요금에 10% 서비스료와 12%의 부가세가 추가 된다.

주2: 상담장 임차 시에는 가능한 2개월 이전에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한인운영 숙박시설

업소명	전 화	소재지
서울 호텔	2)890-1830	Makati City
오가 호텔	2)890-2052	Makati City
코리아비즈니스호텔	2)890-7793	Makati City

주: 요금은 1박 3식 세탁포함 1인당 40-50불 수준임.

2) 식 당**□ 필리핀의 전통 음식**

- 크리스피파타(Crispy Pata): 돼지족발 튀김요리
- 카레카레(Kare-kare): 쇠꼬리 요리
- 아도보(Adobo):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식초에 버무려 삶은 요리
- 라뿌라뿌(Lapu-lapu): 필리핀의 대표적인 생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다.
- 레촌(Lechon): 통돼지를 장작불에 돌려 구워서 기름을 뺀 것
- 포크 리엠뵈(Pork Liempo): 두껍게 썰어 팬에 구운 돼지 삼겹살 요리
- 알리망고: 검은 녹색을 띠고 있는 게. 대부분 삶아서 요리한다.
- 시니강: 야채와 돼지고기나 생선 등을 이용한, 시큼한 맛을 가진 국
- 칼라만시(Calamansi)주스: 레몬 비슷한 과일로 만든 신맛 주스. 비타민C가 풍부하다.

□ 메트로 마닐라의 식당

호텔이 몰려있는 메트로 마닐라 일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식당이 산재해 있다. 필리핀 식 전통 식당 이외에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및 유럽식 요리 등을 하는 식당들이 많다.

현지 교민지에 광고가 게재된 한국식당 수는 마닐라 지역 23개, 마카티 29개, 파식과 만달 루용 지역에 9개, 그린힐 1개, 케존 18개, 파라냐케/알라방 지역 11개, 파사이 6개, 수빅과 앙헬레스 3개, 라구나 1개, 보라카이 11개, 세부 16개, 다바오 3개, 바기오 3개 등 총 145 곳이며, 광고를 실지 않는 소규모 식당들도 있다. 광고를 게재한 식당들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만 해도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맥도널드, 웬디스, KFC 등 서구 브랜드도 있지만 '졸리비(Jollibee)'라는 필리핀 고유 브랜드가 사랑 받고 있다.

□ 메트로 마닐라 소재 가 불안한 식당

- 한국식당 (마카티 소재)
 - 가야 (KAYA): 895-0404
 - 한국관 (KOREA GARDEN RESTAURANT) : 895-5443
 - 마산가든 (MASAN GARDEN): 896-9395, 896-5094
 - 부마(해산물): 897-1011
 - 동원가든(한식): 898-3558
- 일 식 (마카티 소재)
 - Furusato : 523-0476
 - Inagiku: 813-8888 (local: 7842)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 내)
 - Tsukiji : 843-4285

- 중국식
 - Shang Palace: 813-8888 (마카티 상그릴라 호텔 내)
 - Tin Hau: 750-8888 (만다린 호텔 내)
 - Dragon Gate: 404-2853 (파사이 소재)
- 필리핀식
 - IHAW-IHAW (Singing Cooks & Waiters): 832-5579
 - Gery's Grill: 897-9862, 9698 (마카티 소재) (저렴함)
 - Harbor View: 524-1532 (마닐라 베이 소재) (해산물)
- 스페인식 (마카티 소재)
 - Via Mare (seafood specialty restaurant) : 815-1918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 기간

서구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인정주의가 혼재해 있으나 전반적으로 후진국형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불만이다.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느낌을 주나 일부 통제성 기관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느리며 무뚝뚝한 인상을 준다.

현지인들의 느긋한 성격 때문인지 관공서의 일처리가 상당히 느리다. 일례로 정부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을 소개하는 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해본 바,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이 돌아 오는데 거의 두 달이 소요된 일도 있다. 어떤 통관대행업자는 한 건의 물품 수입을 위해 68명의 담당자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다소간의 비공식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현지 투자업체 일부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된 일도 없다는 식으로 관공서의 업무처리를 혹평하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단계별 사례금 지급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외국인에 대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나 발언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 일들이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정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한국인이 공항 입국 시 이민국 직원과 시비를 벌여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으며, 그것을 지켜보던 한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시비를 벌인 사람과 일행이 아닌데도 강제 출국 당한 사례가 있는 바, 현지인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도록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 공휴일

□ 2007년도 공휴일

- 1/1 (월) New Year's Day (신정)
- 2/25(일) People Power Day(EDSA 혁명 기념일)
- 4/5 (목) Maundy Thursday(성 목요일)
- 4/6 (금) Good Friday(성 금요일)

- 4/8 (토) Easter(부활절)
- 4/9 (일) Day of Valor(바타안 죽음의 행진)
- 5/1 (화) Labor Day(노동절)
- 6/1 (금) Day of Makati City(마카티시의 날)
- 6/12(화) Independence Day(독립 기념일)
- 6/24(일) Day of Manila(마닐라시의 날)
- 8/21(화) Ninoy Aquino Day(아키노 추모일)
- 8/26(일) Heroes' Day(영웅의 날)
- 10/11(목) End of Ramadan(무슬림 단식의 끝)
- 11/1(목) All Saints Day(모든 성인의 날)
- 11/30(금) Bonifacio Day(보니파시오 추모일)
- 12/8 (토) 임마쿨라타 성인 축일
- 12/25(화) 크리스마스
- 12/30(일) Rizal Day(리잘 추모일)
- 12/31(월) New Year's Eve

필리핀인들의 휴가철인 부활절 전후 기간(2007년의 경우 4월 6~9일), 크리스마스 휴가철인 12~1월 초에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중역들이 휴가를 실시 중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어렵다. 상담의 경우 월요일에는 각 기업들의 회의가 많아 바쁜데다 주말을 지나면서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며, 금요일은 업무정리와 교통체증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 일자는 될 수 있으면 월요일과 금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는 샌드위치 데이인 경우 특별공휴일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시 위의 표를 참조로 하며,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임박하여 공휴일 변경을 선포하므로 최소 일주일 전에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개 3~4일 전에 변경사항을 발표한다. 따라서 사전에 출장을 계획할 때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주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의복은 한국의 여름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쇼핑몰, 호텔, 극장 등 건물 내부에서는 냉방 때문에 추울 수 있으므로 겉옷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면담 시에는 양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복장상의 유의사항은 없다.

진통제, 소화제 등 기초 응급약품은 휴대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약국이 문을 일찍 닫고 기초 의약품 외 항생제 등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규격은 220V, 60HZ로 한국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플러그 모양이 다르니 이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TRAVELER'S JACK'을 사서 연결하면 된다.

2) 여행 여건

□ 치안

과거에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특히 마카티 시내는 치안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 강도·납치 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낮의 대도시에서조차 방심해선 안된다. 서민들의 대중 교통인 지프니에서도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는 강도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는 일을 삼가해야 하고 과다한 현금 보유, 귀중품이나 보석류 소지 및 화려한 옷차림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인에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현지인들이 흥기(총기 등)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나 임신부 등이 길을 묻는 등 접근하여 관심을 끈 후 일행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서 서류가방을 들고 사업가나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말을 걸어(한국어 사용) 유인한 후 강력한 수면제가 든 음료 등을 권하여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으면 돈을 빼앗는 사례가 자주 있는 바, ‘현지인이건 한국인이건 낯선 이의 친절 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마중객이 나오기로 미리 약속된 경우가 아닌데 누군가 마중을 나 와 있다면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공항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내에서 환전소를 이용하게 되면 표적이 되기 쉬우니 환전소를 이용하기 보다 환율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특히 달러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주위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민다나오 섬 근처의 회교 자치구역은 특히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민다나오섬 전역, 술루(Sulu), 바실란(Basilan) 및 팔라완(Palawan)의 Puerto Princesa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여행경고 지역’으로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 여행 필요 시 대사관에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연성을 높이는 등 현지인을 자각하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현지인과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팁

호텔 내 식당에는 10%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식사비용이 청구되므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20~100페소 정도를 주기도 한다. 호텔 외 식당에서 식사 할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20페소 정도의 팁을 주면 됨. 공항이나 호텔포터는 포터 서비스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20~30페소 정도의 팁이 적당하다. 호텔 객실에는 매일 20~30페소 정도 팁을 주는 것이 좋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알아두면 유용한 비상연락처

- 화재신고: 911, 16016
- 응급환자(앰블런스 호출): 117
- 한국병원: 02)303-6700
- 전화고장신고: 173
- PLDT 전화번호 안내: 187
- 경찰구조요청: 166
- 대사관 긴급전화(사건사고발생신고): 0917-817-5703

2) 의료기관

- Capitol Medical Center: 02)372-3825
- Our Lady of Lourdes Hospital: 02)716-3901
- Makati Medical Center: 02)888-8999
- Manila Doctor's Hospital: 02)524-3011
- Medical City General Hospital: 02)635-6789
- Phil. Heart Center for Asia: 02)925-2401
- St.Luke's Medical Center: 02)723-0301

3) 현지 관공서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02)524-7011/53
-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02)928-7031/39
- DEPARTMENT OF AGRICULTURE (DA): 02)928-8741/65
- DEPT.OF BUDGET AND MANAGEMENT (DBM): 02)735-4847,4926
- DEPT.OF EDUCATION,CULTURE & SPORTS (DECS): 02)632-1361 to 70
- DEPARTMENT OF ENERGY (DOE): 02)840-1401 to 21
- DEPT. OF ENVIROM'T & NATURAL RESOUR'S (DENR): 02)929-6633 to 35
- DEPARTMENT OF FINANCE (DOF): 02)524-7011 to 53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02)834-4000 / 834-3333
- DEPARTMENT OF HEALTH(DOH): 02)743-8301/23
- DEPT. OF INTERIOR & LOCAL GOV'T.(DILG): 02)925-0320/23
- DEPARTMENT OF JUSTICE (DOJ): 02)523-8481/98
- 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 (DOLE): 02)527-2116 / 527-2121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02)911-6001/31
- DEP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02)304-3000 / 304-3280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 (DOST): 02)837-2071/82
- DEPT. OF SOCIAL WELFARE & DEVT. (DSWD): 02)931-8101/7
- DEPARTMENT OF TOURISM (DOT): 02)523-8411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TI): 02)890-4901 to 05
- BOARD OF INVESTMENTS (BOI): 02)890-9332
- DEPT. OF TRANSPORTATION & COMM.(DOTC): 02)727-7960~79
- NATIONAL ECONOMIC DEVT. AUTHORITY (NEDA): 02)631-0945

4) 필리핀 주요 은행

- Allied Banking Corp.: 02)816-3311
- Asian Development Bank (ADB): 02)636-8008
- Banco De Oro Universal Bank: 02)636-6060
- China Banking Corporation: 02)242-5601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02)811-5407
- Development Bank of the Phils.: 02)818-9511
- Far East Bank & Trust Co.: 02)845-9888
- ING Bank N.V.: 02)840-8888
-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02)522-0000 / 551-2200

- Metropolitan Bank & Trust Co.: 02)898-8000
- Phil. Bank of Communications: 02)637-1717
- PCI/Equitable Banking Corp.: 02)840-7000
- Philippine National Bank: 02)891-6040
- Prudential Bank – Under BPI: 02)889-2479
-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02)894-9000
- Security Bank Corporation: 02)867-6788
- Union Bank of the Phils.: 02)830-2361
- United Coconut Planters Bank: 02)811-9000

5) 외국계 은행

-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Corp.: 02)818-8117
- Bank of America NT & SA: 02)815-5000
- China Trust (Phils) Commercial Bank: 02)848-6818
- Citibank: 02)995-9999
- Dao Heng Bank: 02)812-7054
- Deutsche Bank AG: 02)894-6900
- HK & Shanghai Banking Corp.: 02)830-5300 / 878-7878
-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02)811-5683
- ING Bank: 02)840-8888
- Korea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 02)848-1988
- Standard Chartered Bank: 02)886-7888
- Orion Bank (동양오리온은행): 02)845-3817, 3838

6) 경제단체

- Confederation of Philippine Exporters:
02)833-2531 to 34 (마닐라) 032)254-4333 (세부)
- Employers 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02)816-3813
-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02)722-3409
- Makati Business Club: 02)751-1137, 8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02)844-3290, 3250
- Federation of Filipin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FCCCI): 02)242-6289

7) 한국 기관

- 대사관: 정무, 경제, 공보
 - ADD : 10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CITY
 - TEL : 632)811-6139, 6145/6
 - FAX : 632)811-6148
- 대사관: 영사과
 - ADD : 18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 TEL : 632)811-8260/2
 - FAX : 632)811-8258/9

- 마닐라 무역관 (Korea Trade Center, Manila) (KOTRA)
 - ADD : UNIT 1002, 10/F., AYALA LIFE-FGU CENTER, 6811 AYALA AVE., MAKATI
 - TEL : 632)893-1183, 3244
 - FAX : 632)817-3369
- 한인회
 - ADD : 1104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MAKATI
 - TEL : 632)887-4967, 2422
 - FAX : 886-7997
- 한국외환은행 (위에 있음)
 - ADD : 33TH FL., CITI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 TEL : 632)848-1988
 - FAX : 632)818-0074, 819-5377
- 동양 오리온 은행 (위에 있음)
 - ADD : GROUND FL., CHATHAM HOUSE 116, HERRERA ST., SALCEDO, MAKATI
 - TEL : 632)845-3838, 845-3822/30
 - FAX : 632)845-3840/42
- 대한 항공
 - ADD : GROUND FL., LPL PLAZA, 128 ALFARO ST., SALCEDO VILLAGE, MAKATI
 - TEL : 632)815-9265/6
 - FAX : 632)815-0737
- 아시아나 항공
 - ADD : 6/F., SALCEDO TOWERS, 169 H.V. DELA COSTA STREET, SALCEDO, MAKATI
 - TEL : 63-2)892-5688
 - FAX : 63-2)892-5701

8) 외국 항공사

- 필리핀 항공(국제선): 855-8888, 831-8370
- 에어 필리핀(국내선): 851-5258
- 타이 항공: 812-4744
- 노스웨스트: 841-8800
- 세부퍼시픽: 702-0888
- 퍼시픽에어: 853-8394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쇼핑 센터

명 칭	위 치
Alabang Town Center	Alabang-Zapote Road, Alab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AliMall	P. Tuazon Boulevard,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Ayala Center Cebu	Archbishop Reyes Street,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EDSA Central	EDSA cor. Shaw Boulevard,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Fairmart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Farmer's Plaza	EDSA,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Galleria	EDSA corner Ortigas Avenue, Quezon City
Gateway	Aurora Boulevard,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Glorietta	Ayala Center, Ayala Avenue corner Pasay Road, Makati Avenue and EDSA, Makati City, Metro Manila
Greenbelt	Ayala Center, Paseo de Roxas corner Legaspi Street, Ayala Center, Makati City, Metro Manila
Greenhills	Connecticut Street, San Juan, Metro Manila
Jeepney Central	EDSA Service Road,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Landmark	Ayala Center, Makati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Market! Market!	Carlos P. Garcia Avenue (also known as C-5) cor. 26th Stree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Metro Manila
Megacenter	Padre Jose Burgos Street, Cabanatuan City, Nueva Ecija
Metro Point	Pasay Rotonda, EDSA cor. Taft Avenue, Pasay City, Metro Manila
Park Square	Ayala Center, Hotel Drive cor. EDSA, Makati City, Metro Manila
Pavilion Mall	National Road, San Antonio, Biñan, Laguna
Plaza Fair	Araneta Center, Cubao, Quezon City, Metro Manila
Robinsons Cagayan de Oro	Limketkai Complex, Lapasan, Cagayan De Oro City
Robinsons Metro East- Pasig	Marcos Highway, Brgy. Dela Paz, Pasig City
Robinsons Place - Bacolod	Lacson Street, Mandalagan, Bacolod City
Robinsons Place - Cainta	Ortigas Avenue Extension, Junction, Cainta, Rizal
Robinsons Place - Cebu.	Fuente Osmeña, Bo. Capitol, Cebu City
Robinsons Place - Dasmariñas.	Aguinaldo Hi-Way Corner Governor's Drive Barangay Sampaloc 1, Dasmariñas, Cavite
Robinsons Place - Iloilo	Quezon-Ledesma Street, Rojas Village, Iloilo City
Robinsons Place - Imus	Aguinaldo Highway, Tanzang Luma V, Imus, Cavite
Robinsons Place - Lipa	Mataas Na Lupa, Lipa City, Batangas
Robinsons Place - Manila	M. Adriatico Street, Ermita, Manila
Robinsons Place - Novaliches	Quirino Highway, Novaliches, Quezon City
Robinsons Place - Pioneer	EDSA Corner Pioneer Road, Mandaluyong City
Robinsons Place - Santa Rosa.	Old Nat'l Hi-way, Brgy. Tagapo, Sta. Rosa City, Laguna
Robinsons Place - Tagaytay	Tagaytay City, Cavite
Robinsons Place Angeles	McArthur Hi-way,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Robinsons Place Davao (soon to rise)	Davao City, Davao del Sur
Robinsons Star Mills - Pampanga	San Jose, San Fernando, Pampanga
Robinsons Town Mall - Los Baños, Laguna	Lopez Avenue, Batong Malaki, Los Baños, Laguna
Shaw Boulevard MRT Station Mall	EDSA,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SM Baliwag	Baliwag, Bulacan
SM Calamba	Calamba City, Laguna
SM City Bacolod	Rizal Avenue, Reclamation Area, Bacolod City, Negros Occidental

SM City Bacoor	General Emilio Aguinaldo Highway cor. Tirona Highway, Brgy. Habay, Bacoor, Cavite
SM City Baguio	Luneta Hill, Upper Session Road corner Governor Pack Road, Baguio City, Benguet
SM City Baliuag	Maharlika Highway, Baliuag, Bulacan
SM City Batangas	Brgy. Pallocan Kanluran, Batangas City, Batangas
SM City Bicutan	Doña Soledad Avenue corner West Service Road (beside Exit 14, Bicutan exit), Brgy. Don Bosco, Bicutan,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SM City Cagayan de Oro	Materson Avenue cor Gran Via St., Brgy. Carmen, Cagayan de Oro, Misamis Oriental
SM City Cebu	North Reclamation Area, Cebu City, Cebu
SM City Clark	M.A. Roxas Avenue, Clark Special Economic Zone, Angeles City, Pampanga
SM City Dasmariñas	Governor's Drive, Brgy. Sampaloc 1, Dasmariñas, Cavite
SM City Davao	Quimpo Boulevard corner Tulip Drive, Ecoland Subdivision, Brgy. Matina, Davao City, Davao del Sur
SM City Fairview	Quirino Avenue cor. Regalado Ave., Greater Lagro, Quezon City, Metro Manila
SM City Iloilo-Mandurriao	Benigno S. Aquino Jr. Avenue, Jaro West Diversion Road, Mandurriao, Iloilo City, Iloilo
SM City Lipa	Laurel Highway, Lipa City, Batangas
SM City Lucena	Maharlika Highway corner Dalahican Road, Brgy. Ibabang Dupay, Lucena City, Quezon
SM City Manila	Concepcion corner Arroceros and San Marcelino Streets, Ermita, Manila
SM City Marikina	Marcos Highway, Marikina City, Metro Manila
SM City Marilao	MacArthur Highway, Brgy. Lias, Marilao, Bulacan
SM City Naga	Central Business District II Triangulo, Naga City, Camarines Sur
SM City North EDSA	North Avenue cor. EDSA, Quezon City, Metro Manila
SM City Pampanga	Olongapo-Gapan Road corner North Luzon Expressway (Exit 65, San Fernando Exit), Brgy. San Jose, San Fernando City, Pampanga
SM City San Lazaro	Felix Huertas Street corner Arsenio H. Lacson Extension, Santa Cruz, Manila
SM City Sta. Mesa	Ramon Magsaysay Boulevard cor. Araneta Ave., Quezon City, Metro Manila
SM City Sta. Rosa	National Highway, Barrio Tagapo, Santa Rosa City, Laguna
SM City Sucat	Dr. A. Santos Avenue, Brgy. San Dionisi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SM City Taytay	Manila East Road, Taytay, Rizal
SM Dagupan	Dagupan City, Pangasinan
SM Laoag	Laoag City, Ilocos Norte
SM Mall of Asia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Pasay City, Metro Manila
SM Megamall	EDSA cor. Julia Vargas Avenue, Ortigas Center,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SM Meycauayan	MacArthur Highway, Meycauayan, Bulacan
SM San Pablo	San Pablo City, Laguna
SM Southmall	Alabang-Zapote Road, Las Piñas City, Metro Manila
SM Supercenter Molino	Molino Road, Molino 4, Bacoor, Cavite
SM Supercenter Muntinlupa	Brgy. Tunasan,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SM Supercenter Pasig	E. Rodriguez, Sr. Ave. (C-5), Frontera Verde, Ortigas Center, Pasig City
SM Supercenter Valenzuela	McArthur Highway, Brgy. Karuhatan, Valenzuela City, Metro Manila
SM Supercenter Vito Cruz	Pablo Ocampo Sr. Road, Makati City, Metro Manila
SM Tagaytay	Tagaytay City, Cavite
SM Tarlac	MacArthur Highway, Brgy. San Roque, Tarlac City, Tarlac
SM Urdaneta	MacArthur Highway, Urdaneta City, Pangasinan
TriNoma¹	North Avenue cor. EDSA, Quezon City, Metro Manila

2) 특산물

- 목조품: 나라, 아카시아, 카마곤(흑단)으로 제작된 토속 인형 등이 있다.
- 조개 세공: 조개로 만든 접시, 귀금속 보관 상자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 직물 제품: 파인애플 섬유, 바나나 섬유, 마와 목면 혼방의 손수건, 테이블보, 핸드백 등
- 진주: 흰색, 살색, 흑색, 금색의 천연 및 인공 진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파. 관광 명소

1) 시내 관광명소

□ 리잘공원(Rizal Park)

마닐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리잘(Jose Rizal)이 1896년 12월 30일 처형된 장소를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다. 주말에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산책 장소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 말라카냥 궁(Malacanang Palace)

필리핀 대통령의 관저로서 일부 공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

□ 아얌라 거리(Ayala Ave.)

상업, 금융 도시인 마카티(Makati City)의 중심 도로로서 필리핀의 Wall Street라 할 정도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 차이나타운(China Town)

중국계 필리핀인들의 집중 주거지역으로서 각종 약품판매점, 귀금속점, 중국식당, 중국제 과점들이 많다.

2) 메트로 마닐라 외의 관광명소

□ 이푸가오 라이스 테라스(Ifugao Rice Terraces)

산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쌀 경작지(논)로서 루손섬 북부인 Mountain주에 위치.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보라카이(Boracay)

필리핀 중부 파나이 섬 북서단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세계 3대 해변으로 선정될 정도로 하얀 모래, 수정 같은 바닷물을 자랑한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 바기오(Baguio)

필리핀 루손섬 북쪽에 있으며 필리핀의 여름수도로 애기될 정도로 날씨가 선선하여 특히 여름에는 피서객,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이다. 비행기를 타면 40분 정도, 자동차로는 6-8시간 소요된다.

□ 세부(Cebu)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남국의 여왕(Queen City of the South)으로 불리고 있으며 비사야 제도의 중심지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 초콜릿 힐(Chocolate Hills)

비사야스 지방의 보홀섬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40미터 정도의 원추형 구릉이 1,000여 개 정도가 잇따라 있어 불가사의한 풍경이 됨. 우기에는 풀로 덮여 있어 녹색을 띄지만 건기가 되면 초콜릿 색으로 변한다 하여 '초콜릿 힐'로 불림.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

□ 팔라완 엘니도(El Nido)

팔라완 지방의 엘니도 섬은 때문지 않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우 사랑 받는 곳임.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미니락, 라겐, 아만폴로 등의 리조트가 유명하며,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모든 식사와 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팁을 받지 않고 친절하여 방문객은 누구나 만족해 하고 있다.